

대중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

/음악을 중심으로/

2009. 11

대중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실행방안연구

발행인 이 대 영

발행일 2009. 11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록 KACES-0940-R008

홈페이지 www.arte.or.kr

문 의 T.02.6209.5900

F.02.6209.5999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대중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연구진

책임 연구자	양은주	명지전문대학 실용음악과 교수
공동 연구자	강민선	국제예술대학 음악과 교수
	한경훈	경희대학교 예술학부 포스트모던음악과 교수
	정승일	백석예술대학 실용음악과 교수
연구 보조원	김선희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명지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 성 태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연구요약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2. 선행 연구 분석	3
3. 연구의 내용	4
4. 연구의 방법	5
<hr/>	
II. 학교 음악교육에서 실용음악교육	7
1. 대중문화예술의 개념	8
2. 대중문화예술과 청소년	13
3. 학교 대중문화예술교육의 방향	15
4. 학교 실용음악교육의 의미	16
<hr/>	
III. 학교 실용음악교육의 교수학습방법	19
1. 팀 티칭	20
2. 개별화 수업	27
<hr/>	
IV.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현황 분석	35
1.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사례	36
가. 학교에서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현황	36
나. 학교에서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39
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현황	55
2.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분석	58
가. 설문 조사의 내용	59
나. 설문 조사의 대상	60
다. 설문 조사 결과 분석	63

V. 미국과 영국의 학교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실태	77
1. 미국의 학교 실용음악 교육 실태	78
가. 리오 아메리카노 고등학교 (Rio Americano High School)	84
나. 로얄 오크 고등학교 (Royal Oak High School)	90
다. 성 마이클-알베르빌 고등학교(St. Michael-Albertville High School)	96
라. 브렉스빌 고등학교(Brecksville High school)	100
2. 영국의 학교 실용음악 교육 실태	102
가. 덴비 스쿨(Denbigh School)	108
나. 소햄 빌리지 컬리지(Soham Village College)	110
다. 제임스 알렌즈 걸즈 스쿨 (James Allen's Girls' School)	115
<hr/>	
VI.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119
1.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120
가. 교육프로그램의 개요	120
나. 교육프로그램의 학습 내용	122
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틀	128
2.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예시	130
가. 팝 록 -7화음 : 붉은 노을	130
3.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적용의 결과	147
가. 시범 수업의 계획	147
나. 시범 수업의 실시	150
나. 시범 수업의 결과	152
<hr/>	
VII. 결론	155
<hr/>	
참고문헌	159
<hr/>	
부 록 : 설문지	163
<hr/>	

표 목 차

<표 1-1>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요	4
<표 4-1>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36
<표 4-2> 상신중학교 밴드 동아리 운영 계획서	41
<표 4-3> 당산중학교 ‘제네시스’ 활동내용	46
<표 4-4> 염창중학교 밴드반 지도계획표	49
<표 4-5> 서서울생활과학고 방과후학교 락밴드반 지도 계획	51
<표 4-6> 청소년수련시설의 실용음악 동아리 현황	56
<표 4-7> 청소년수련시설의 실용음악 관련 계발활동 수업 지원 현황	58
<표 4-8> 설문지 내용 구성	59
<표 4-9> 설문 조사 표집 인원 및 회수율	60
<표 4-10> 교사 변인	61
<표 4-11> 학생 변인	62
<표 4-12>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식	63
<표 4-13> 학교의 악기 보유 개수	67
<표 4-14>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	68
<표 5-1> MENC 6 ~ 8학년 교사 가이드	78
<표 5-2> MENC 추천 음반 목록	80
<표 5-3> MENC 추천 교재 목록	81
<표 5-4> MENC의 팝음악 교육과정	82
<표 5-5> Garage Band 101 교육과정	97
<표 5-6> 영국 왕립음악원 연합회 (ABRSM) 타악기 시험	104
<표 5-7> 점심시간 클럽 활동 시간표	114
<표 6-1>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개요	120
<표 6-2> 실용음악 합주 교육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	121
<표 6-3> 실용음악 합주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세부계획	123
<표 6-4> 실용음악 합주 장르에 따른 난이도별 예제곡	125
<표 6-5> 실용음악 합주 시범 수업의 계획	14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 단계	6
[그림 4-1] 서울중학교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식	42
[그림 4-2] 서울중학교 그룹사운드 동아리 공연 모습	45
[그림 4-3] 당산중학교 '제네시스' 활동 모습	47
[그림 4-4]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식	52
[그림 4-5]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지도 체계	54
[그림 4-6] 청소년수련시설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지원	57
[그림 4-7]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종류	64
[그림 4-8] 방과후학교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실시 횟수(1개월)	65
[그림 4-9] 개발활동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실시 횟수(1개월)	65
[그림 4-10]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실시 장소	66
[그림 4-11] 악기의 소유 상태	67
[그림 4-12] 가창을 담당하는 학생 수	68
[그림 4-13] 건반을 담당하는 학생 수	69
[그림 4-14] 기타를 담당하는 학생 수	69
[그림 4-15] 베이스를 담당하는 학생 수	70
[그림 4-16] 드럼을 담당하는 학생 수	70
[그림 4-17] 학생의 악기 교육 경험	71
[그림 4-18] 학생의 개별 연습 시간	71
[그림 4-19] 지도교사의 소속	72
[그림 4-20] 지도교사의 수	73
[그림 4-21]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74
[그림 4-22]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	75
[그림 4-23]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76
[그림 5-1] 리오 아메리카노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주활동장면	89
[그림 5-2] 덴비 스쿨 학생들의 연주활동 장면	109
[그림 5-3] 소햄 빌리지 컬리지 학생들의 연주활동 장면	114

[그림 5-4] 제임스 알렌즈 걸즈 스쿨 학생들의 연주활동 장면	117
[그림 6-1] 합주용 음악실과 가창 수업용 일반 음악실	150
[그림 6-2] 기타와 베이스 개별 수업	150
[그림 6-3] 건반과 드럼 개별 수업	151
[그림 6-4] 전체 합주 수업	151
[그림 6-5] 모듬별 합주 수업	152

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적 취향과 관심을 학교 내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접목하여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음.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계발 활동, 또는 방과 후 교육 과정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도록 함.

2. 연구의 방법

- 첫째, 자료 분석 및 문헌 연구
- 둘째, 설문지 개발 및 조사
- 셋째,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 넷째, 심층 면담을 통한 현장 조사
- 다섯째, 도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범 수업을 실시

II. 학교음악교육에서 실용음악교육

- 학교에서의 실용음악교육이 실용음악에 대한 감수성을 활성화하는 교육, 통합적인 사고와 상호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교육, 자율적인 표현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교육, 그리고 공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의 방향을 지닐 때 실용음악에 대한 단편적인 소비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학교 실용음악교육이 될 수 있을 것임.

III. 학교실용음악교육의 교수학습방법

1. 팀 티칭

- 팀 티칭이란 2인 또는 그 이상의 교사가 협력해서 동일 학생집단의 수업 전반이나 중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교수학습의 방법임.

2. 개별화 수업

- 개별화 수업은 수업의 초점을 학급성원인 개별 학생에게 두고, 가능하다면 모든 학생이 의도한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각 개인의 능력, 적성, 동기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고 타당한 수업방법 및 절차, 자료의 선택, 평가 등을 변별적으로 실천하는 수업임

IV.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현황 분석

1.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사례

-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 음악 수업보다는 주로 방과후학교나 계발활동을 통하여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심층대상은 상신중학교와 도촌중학교, 염창중학교, 서울중학교와 당산중학교 등 5개의 중학교와 서서울고등학교,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2개의 고등학교를 선정함.
-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은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도 진행되고 있음.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35개 청소년수련시설들 중 약 25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실용음악과 관련된 동아리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들 대부분은 밴드 동아리이지만 아카펠라 그룹과 같은 보컬 동아리도 운영되고 있음

2.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분석

- 계발활동이나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실용음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60명의교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실태와 프로그램의 효과,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음

V. 미국과 영국의 학교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실태

1. 미국의 학교 실용음악 교육 실태

- 재즈 교육과정은 미국을 대표하는 예술형식인 재즈의 이론과 실기 교육을 강조함. 또한 클래식 악기로부터 전자 악기에 이르는 다양한 악기 편성과 다양한 음악 장르들을 제시함.

2. 영국의 학교 실용음악 교육 실태

- 영국 중등학교 음악 교육과정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국 왕립음악원 연합회 등급시험(ABRSM)은 1999년부터 재즈 분야를 도입했고, 대중음악 교육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드럼, 전자 바이올린, 전자 첼로도 선택 악기로 인정하는 문제를 고려중임. 또한 다양한 악기들을 시도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소수로 구성된 밴드도 쉽게 결성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어 클래식 음악교육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팝 밴드 활동을 겸하는 경우가 많음.

VI.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1.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은 1회 2시간 수업으로 개발되는데, 1차시에는 개별화 수업으로 가창,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각각의 악기를 가르치는 교사가 해당 악기를 학습하는 소수의 학생군을 지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2차시 수업에서는 가창,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모둠을 이루어서 합주 수업을 하는데 이때에는 리더를 맡는 한 명의 주임 교사와 나머지 보조 교사들이 팀 티칭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함.

2.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예시

- 합주 수업은 모두 4차시로 구성되는데 1차시는 전주~악절의 전반부에 대한 개별 악기지도, 2차시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 합주, 그리고 3차시는 후렴구~연결구인 후반부에 대한 개별 악기지도, 마지막 4차시는 후반부 및 전체 악곡의 합주로 수업하도록 함.

예제 악곡을 중심으로 한 합주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단원명 및 악곡설명 ⇒	3. 팝 락-7화음 : 붉은 노을
학습 목표 수업 기자재 학습 내용 유의점	1. 학습 목표 2. 수업 기자재 3. 학습 내용 4. 지도상의 유의점
악곡의 이론에 대한 학습 자료 ⇒	학습자료 1. 락 음악 소개 2. 화성 3. 리듬 4. 악곡의 구조
1차시 수업부분 ⇒	1차시 : 전주~악절
악기별 지도내용 ⇒	 가 창  건 반  기 타  베이스  드 럼
2차시 수업부분 ⇒	2차시 : 전주~악절
합주 지도내용 ⇒	 합 주
3차시 수업부분 ⇒	3차시 : 후렴구~연결부
악기별 지도내용 ⇒	 가 창  건 반  기 타  베이스  드 럼
4차시 수업부분 ⇒	4차시 : 후렴구~연결부
합주 지도내용 ⇒	 합 주

3.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적용의 결과

- 실용음악 합주 프로그램 중 ‘팝 락-7화음 : 붉은 노을’ 단원의 1차시, 2차시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 수업을 마친 후 연구진과 수업 관찰자 교사, 그리고 다섯 명의 시범 수업 교사가 모여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학교 수업에 적용되기에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VII. 결 론

- 첫째, 학교 교육에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둘째,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용음악 교육을 위한 교실 시설과 악기 및 악보, 여러 가지 음향기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셋째, 실용음악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넷째,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과 지역 사회의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 연구 분석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를 이끌어갈 중요한 화두로서 정보화와 창의성을 꼽는다. 정보화가 사회 및 산업의 구조를 정밀하게 조직해가는 틀이라면, 창의성은 그 틀 위에서 개인과 사회, 국가가 남보다 한 발 앞서 새로움을 확보하는 추진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가 기술력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제품과 삶의 방법을 제시한다면, 창의성은 이와 같은 기술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발한 착상과 해결책을 고안하게 한다.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여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인간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강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교육은 개개인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시키고 창조적인 통찰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통합적 인격을 형성하게 한다. 또한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을 표현하고 개인과 사회와의 소통과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는 당위적으로 공감을 표하지만 정작 학교 안팎에서는 지식교과 중심의 입시교육에 밀려서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교육에서는 특별활동이나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실시하여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을 계발하고, 취미와 특기를 기르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충분한 교육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재량활동 교과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대학입시의 부담에 밀려 개설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적 관심을 학교에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적이면서도 교육적으로 잘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적 취향과 관심을 학교 내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접목하여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구체적인 교과로는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하나인 실용음악 분야로 하며,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계발 활동, 또는 방과 후 교육 과정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중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를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 및 전문성이 확대될 것이다.

2. 선행 연구 분석

실용음악 혹은 음악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채완병의 ‘음악교과교육 실기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코다이 솔페주 교수법을 중심으로’(1999)와 이성주의 ‘방과 후 교육활동 음악 프로그램 개발 및 모형탐구’(2001), 그리고 최정선의 ‘중학교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에서의 보컬 실기지도 연구 방안 : 실용음악을 중심으로’(2009)가 있다.

채완병(1999)의 ‘음악교과교육 실기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연구의 부제에 나타나듯이 전통 예술음악의 교수법인 코다이 솔페주 교수법을 가르치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이며, 이성주(2001)의 ‘방과 후 교육활동 음악 프로그램 개발 및 모형탐구’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고려한 연구이지만 실용음악 분야와는 관련성이 없다. 최정선(2009)의 ‘중학교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에서의 보컬 실기지도 연구 방안’ 연구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다루고 있고 관련 분야도 실용음악의 보컬 실기이다. 중학교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컬 실기지도방법을 모색하여 학생들의 가창실력의 향상을 조사하였다.

음악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이화진 외의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콘텐츠 개발 운영 : 내용교수법 및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2005), 양종모 외의 ‘음악과 수업 계획서 : 중학교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과 예시 자료 개발 연구’(2003) 등이 있다.

이화진 외(2005)의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콘텐츠 개발 운영’ 연구는 학생들의 ‘이해를 위한 학습’과 이를 위한 교사의 ‘이해를 위한 교수’를 지향하는 연구로서 모두 8개 교과목의 교수법을 개발하였는데, 이 중에 음악과의 내용 교수법 개발 방향, 개발 방법 및 절차, 주제 선정, 샘플 자료 예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양종모 외(2003)의 ‘음악과 수업 계획서’ 연구에서는 ‘변주 이해’, ‘즉흥 연주’, ‘소리 구성’의 세 가지 단원에 걸쳐 교수 학습 방법과 예시 자료가 개발되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용음악의 교육 프로그램 혹은 수업 계획서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실용음악과 관련한 특별 활동이나 방과 후 학습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전무한 실정이다.

3.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실용음악 합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대중문화예술교육으로서 실용음악 교육의 의미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의 개념, 학교 대중문화예술교육의 방향, 학교 실용음악 교육의 의미를 파악한다.

둘째,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파악 및 요구 조사를 실시한다.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실용음악 합주교육 프로그램 현황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우수 운영 사례를 심층 분석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 및 향후 요구를 조사한다.

셋째, 외국의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조사한다. 미국과 영국 중·고등학교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수집 및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넷째, 학교 현장에 적합한 실용음악 합주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한다.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모색한 후, 세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을 결정한다.

다섯째, 실용음악 합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한다. 실용음악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의 계발 활동이나 방과후 수업,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적합하도록 한다. 1회 두 시간 수업을 기본으로 하여, 1차시에는 개별화 수업으로 가창,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각각의 악기를 가르치는 교사가 해당 악기를 학습하는 소수의 학생군을 지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시 수업에서는 가창,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모듬을 이루어서 합주 수업을 하는데 이때에는 리더를 맡는 한 명의 주임 교사와 나머지 보조 교사들이 팀 티칭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한다. 합주 실습 중심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1-1>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개요

학습내용 영역	교수학습 방법	학생조직	연구 결과물
합주(양상블)	개별화수업 팀티칭	개별 학습 및 모듬 학습	1. 교수학습 지도안 2. 합주 악보

4. 연구의 방법

연구는 다음의 방향으로 진행한다.

첫째, 자료 분석 및 문헌 연구이다. 실용음악 교육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하고 학교 현장의 실용음악 교육 실태를 파악하며, 외국의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하고자 한다. 대상은 예술교육 및 실용음악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물, 전국의 중고등학교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보고서, 외국의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교수학습 방법 관련 문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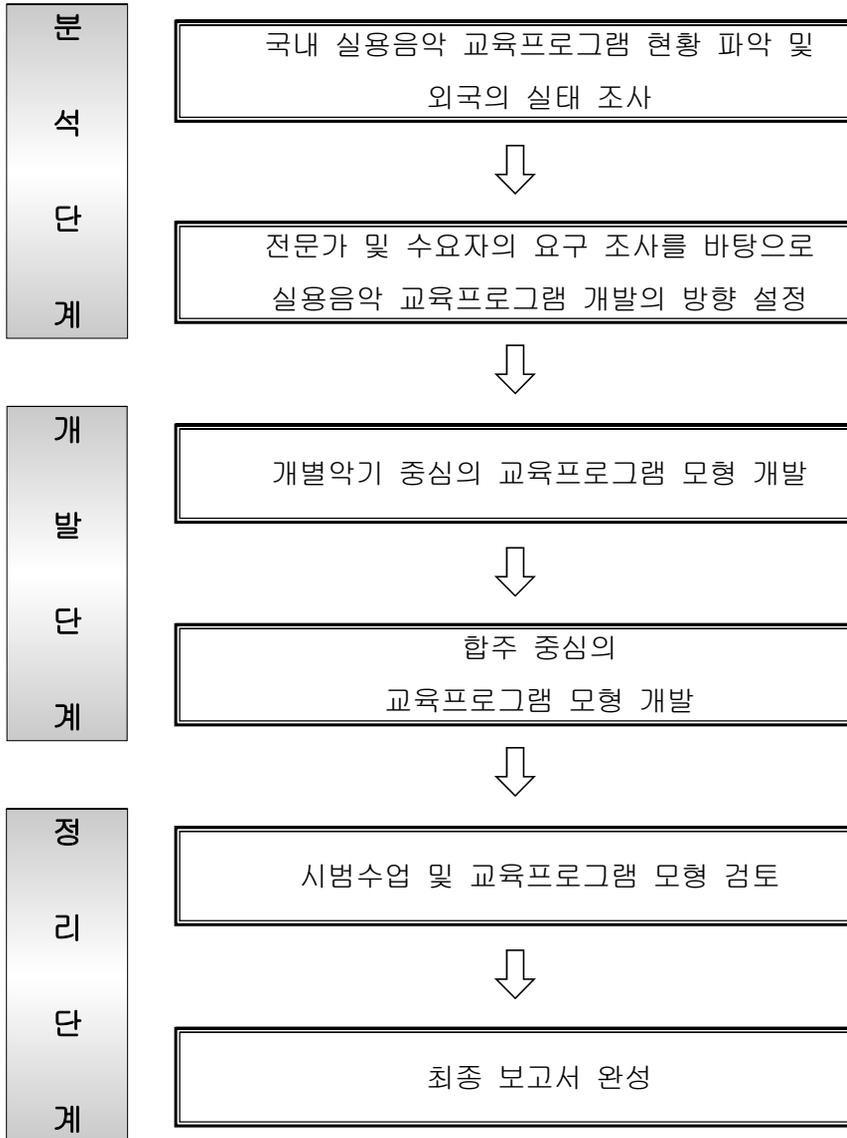
둘째, 설문지 개발 및 조사를 실시한다. 학교 음악교육에서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이해하고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및 향후 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층 무선 표집한 전국 중고등학교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지도 교사 46명과 수도권 중고등학교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327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전문가협의회는 실용음악 교과 내용 전문가와 실용음악 교과 교육 전문가로 나누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모색하고 교육 내용별 프로그램 구성 체계 및 교수학습 방법의 타당성과 설문지 및 면담지의 문항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을 논의한다.

넷째, 심층 면담을 통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중고등학교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효과 및 필요성, 그리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섯째, 도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범 수업을 실시한다. 서울시 은평구 상신중학교 실용음악 CA반 시범수업을 통해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과 개선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의 수행은 아래의 [그림 1-1]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



[그림 1-1] 연구 수행 단계

II. 학교 음악교육에서 실용음악교육

1. 대중문화예술의 개념
 2. 대중문화예술과 청소년
 3. 학교 대중문화예술 교육의 방향
 4. 학교 실용음악교육의 의미
-
-

1. 대중문화예술의 개념

가. 대중문화예술의 정의

오늘날 현대인은 하루 종일 대중매체에 노출된 채 대중문화예술의 홍수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TV와 라디오, 신문, 컴퓨터, 음반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손쉽게 가벼운 오락 혹은 교양적인 정보를 보고 들으며,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음 없이 이동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대중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

현대인에게 미치는 대중문화예술의 영향도 날로 지대해져서 우리는 여가 생활의 많은 부분을 대중문화예술을 소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으며, 인기 있는 TV 쇼프로그램이나 드라마 혹은 영화를 화제에 떠올리거나 패러디하지 않고는 친구나 동료들과 대화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유명 TV 텔런트, 영화배우, 가수들은 수많은 팬을 몰고 다닐 뿐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대중매체의 위력에 힘입어 한류 열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현대를 대중문화예술의 시대라고 일컬을 만큼 위력을 보이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대중문화예술의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이라는 용어보다 더 먼저 사용되고 의미가 정착된 대중문화, 즉 매스 컬처(mass culture)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 ‘매스 컬처’라는 용어는 독일어 ‘마스(Mass)’와 문화를 의미하는 ‘쿨투르(Kultur)’의 복합어이다. 이 때 마스(Mass)란 일반적으로 유럽 사회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계층을 지칭하는 의미인데, 오늘날에는 중산층 이상의 노동자 계층 및 가난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¹⁾. 따라서 대중문화는 ‘중산층 이상의 노동자 계층 및 가난한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근대 시대, 즉 자본주의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이후에 출현한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대중문화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 근세 이전의 봉건주의 사회 체제 하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사회 계층에 따라 각각 문화의 양식과 내용이 고정되어 있었다. 과거 서구 사회에서는 국가나 교회가 계층별로 문화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귀족들은 지배 문화 또는 엘리트 문화로서 고급 취향의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귀족 문화는 지배 계층의 문화였기 때문에 한 사회를 대표하는 공식 문화였다. 서민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피지배 계층의 문화를 가지고

1) 원승룡, 김종현(2001). 문화이론과 문화읽기. p.160.

있었으나, 이들은 피지배 계층의 문화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거나 한 사회의 주도적인 문화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귀족과 서민 계층 사이에서는 문화적인 접촉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 갈등도 생겨나지 않았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도시에 온 서민들 중에는 점차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생겼으며, 그들에게도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들이 과거에 농촌에서 즐겼던 문화가 있었지만, 그것은 도시에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도시민에게 적절하게 들어 맞지 않았다. 이제 도시 생활에 맞는 오락과 문화를 찾게 된 것이다. 도시에는 새로운 문화적 욕구가 나타났고 그들에게 맞는 예술을 창작해 주기를 예술가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대중문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민주주의가 형성되면서 개인들이 문화적인 주체성을 갖게 되는 19세기 말 경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정립된 중산층이 스스로 문화를 즐기고자 하면서, 그들을 위한 문화, 즉 대중을 위한 문화가 탄생한 것이다²⁾.

대중문화예술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광범위한 대중문화의 지평 중에서 가능한 한 가장 많은 관중이나 독자, 청중들이 듣거나 감상하도록 만든 무용이나 문학, 음악,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의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19세기 말 이후 대중문화예술의 급속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 무렵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한 각종 매체의 탄생과 정보 통신 및 저장 기술의 발달이었다.

근대적 대중매체의 역사는 신문에서 시작되었는데, 부르주아지로 불리는 중산층이나 노동자 계급은 자신들의 의사를 전파하여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문을 활용하였다. 처음에는 지역 단위에서 소규모로 생산되던 신문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곧 전국적인 매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신문의 독자가 늘어나자 뉴스뿐 아니라 사회적 가십과 논평, 소설, 상업적 광고도 도입되는 등 신문은 초기 대중문화예술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신문 뿐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한 서적의 집필과 인쇄도 널리 확대되었다. 그 결과 문학 작품이 시장성을 지니게 되어 새로운 독자층의 관심과 흥미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인쇄술, 사진술, 축음술, 녹음기술, 영화, 라디오, TV와 같은 재생 기술의 발달은 미술, 무용, 연극, 영화, TV드라마 등의 대중문화예술의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TV의 광범위한 보급은 대중 매체의 차원을 인쇄 매체의 차원에서 영상 매체의 차원으로 변모시켰고,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던 대중 매체의 방향성을 쌍방향적인 매체로 변화시킴으로써 오늘

2) 정진수, 정용탁 외(2002). 대중예술의 이해. p.13.

날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의 양적인 팽창과 시공간적인 확대를 이루게 된 것이다.

나. 대중문화예술의 특성

앞서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의 정의에 의하면 대중문화예술은 광범위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향유된다는 대중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비롯된다.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첫 번째는 대중문화예술을 대량생산이나 소비와 관련지어 상품의 일종으로 바라보는 상품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다. 대중문화예술은 자본주의의 상업적 속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는 상품화가 가능한 것을 찾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놀라운 기제를 가지고 있으며, 상품화 가치가 있는 모든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요소가 대중문화예술로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중문화예술의 상품화는 ① 문화예술의 표준화의 우려를 지닌다. 대중문화예술이 대량 생산되어 대량 확산되고 대량 소비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성이 줄어들고 동질성이 많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예술의 가장 큰 미덕인 유일함 혹은 독특함이 사라지고 표준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중문화예술의 상품화는 ② 문화예술의 저급화의 우려를 지닌다. 대중문화예술이 대중을 겨냥하여 때문에 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평균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작되는데, 이 점에서 문화예술의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예술의 상품화는 ③ 문화예술산업이 경제적 논리에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의 생산이나 유통은 대규모 자본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작 대중들은 자신들이 향유할 문화예술을 선택하여 소비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수용하기 쉽다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에 관련된 부정적인 시각의 두 번째는 저속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다. 고급문화예술과 대중문화예술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에는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를 구분하려는 엘리트주의적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대중문화예술은 고급문화예술의 타락이며 통속화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중과 대중적 가치를 저급하고 야만적이며 기생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귀족적이고 엘리트적인 문화전통을 유지하려는 관심이 깔려 있다. 예를 들어, 대중사회에 대한 최초의 사회적 비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토크빌(A. de Tocqueville)은 고급문화가 산업사회의 단조롭고 틀에 짜인 생활방식에 위협받고 있으며 작가는 상품의 어용상인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많은 학자가 대중문화의 출현에 따라 고급문화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하였다. 1932년

오르테가 이 가세트(Ortega y Gasset)는 “대중들이 오고 있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대중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화에 대한 엘리트층의 거부감은 대단한 것이었다. 앙드레 말로(A. Malraux)는 “대중예술은 열등한 예술이라기보다는 예술에 반대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대중예술은 반-예술이다”라고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기도 했다³⁾.

대중문화예술에 관련된 부정적인 시각의 세 번째는 문화 본연의 가치나 역할보다는 정치적인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다. 1970~80년대 한국에 소개된 많은 대중문화론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논리였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대중문화예술이 정치나 자본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에게 나치의 대중 매체조작은 그 분명한 증거였다. 즉, 대중문화예술은 권력 구조의 억압과 실패를 망각케 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예술산업은 부패한 자본주의의 착취 구조 위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의 비판적 의식을 마비시킨다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그 밖에도 대중문화예술에 의해 전통의 가치와 질서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전통주의자들의 시각도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통주의자인 리비스(F. R. Leavis)의 경우, 물질적 풍요와 자신의 행복을 주장하는 대중문화예술은 더 이상 이전의 제도, 교육, 가치 등을 가능하지 않게 한다고 비판하였다. 물질만능주의의 대두로 오래된 불문율들이 무너지고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들이 사라질 때 삶은 쾌락이 되고 삶을 즐기려는 속물들의 주장만이 퍼져간다고 말하며, 대중문화예술에 만연한 물질주의 상업 문화에 대한 경계심을 피력하였다. 이렇듯 20세기 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문화층과 그들의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인의 거부감은 서구 사회에 팽배해 있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중문화예술의 상품화, 저속화, 정치화를 우려한 것이었던 데 반해, 대중문화예술 옹호론자들은 문화적 민주주의로 인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대중문화예술 옹호론자들은 대중문화예술과 고급문화예술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대중문화예술과 고급문화예술은 상호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대중매체의 발달로 시작된 대중문화예술 시대의 도래는 시민들에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적 풍요를 제공해 주었으며, 과거 소수층만이 즐기던 고급문화예술을 다수의 시민이 즐길 수 있게 하는 문화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의 보급이 고급문화예술의 창조자를 타락시키거나 억압하여 고급문화예술 장르를 파괴시켰다는 증거도 없다

3) 박성봉(1999). 대중예술의 미학. p. 71.

는 것이다.

나아가서 오늘날에는 문화의 수준을 따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비틀스보다 베토벤이, 이미지보다 조수미가, 조용필보다 파바로티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문화 구분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접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문화예술과 고급문화예술의 구분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다양성에 대한 포용을 화두로 하고 있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부터는 고급문화예술과 저급문화예술이라는 구분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방법 면에서도 예술의 각 장르간 폐쇄성을 거부하고,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혼합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고도로 전문화된 문화 영역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삶과 문화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 흑백 논리 같은 이분법의 해체,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 해소 등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 대중문화예술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2. 대중문화예술과 청소년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대중문화예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측면에서 가장 주된 소비자층은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다. TV 프로그램, 음반, 광고, 의상, 영화, 각종 게임 등의 문화예술상품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산된다. 각 공중파 방송들이 주말 황금시간대를 청소년이 좋아하는 쇼나 오락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중문화의 주된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 준다. 대중가요의 경우는 음반 구입 고객의 70% 이상을 청소년층이 차지할 정도이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소비 세대라고 할 정도의 막강한 구매력과 소비 성향을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의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이 대중문화예술의 주된 소비자가 된 것은 대략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1980년대 이후 영화나 청소년 대중잡지, 컴퓨터,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다양한 매체들이 급속도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영화와 음반의 수입자유화 등이 시작되었으며, 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다양한 종류의 대중문화 소프트웨어와 문화상품을 소개함에 따라 청소년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다양한 대중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이 문화산업에 진출하면서 청소년의 취향에 맞는 대중문화예술 상품을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된 청소년들은 대중문화예술의 소비를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중문화예술이 청소년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⁴⁾

첫째, 청소년들은 대중문화예술의 소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한다. 학업 이외의 여가시간을 갖기가 힘들고 입시의 중압감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대중문화예술은 일종의 해방구로서 기능한다. 청소년들은 연예인에 대한 팬클럽도 만들고 스타의 용모와 의상, 몸짓과 태도를 모방함으로써 스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이를 통해서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대리만족을 경험한다. 이러한 대중문화예술의 소비는 현실도피적인 일면을 가짐과 동시에 학교사회의 규범적 질서에 대한 저항의 속성도 가진다.

둘째, 청소년들의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는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수단이기도 하다. 대중문화 예술의 소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를 드러내고 나아가 자신을 내세우는 수단이 된다. 청소년들은 음악, TV, 영화 등 대중문화에 대한 자신의 취향과 지식을 드러냄으

4) 조용환, 윤여각, 이혁규(2006). 문화와 교육. p. 134.

로써 남과는 다른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다른 친구들의 선망을 획득한다. 예의바름이나 높은 성적이 학교교육 내에서 청소년을 평가하는 기준인 반면에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과 대중문화 상품의 소유 정도는 청소년집단 내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셋째,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중문화예술을 사용한다. 즉, 대중문화예술은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래집단을 묶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해 내는 일종의 유대의 끈으로 작용한다. 청소년에게 또래집단은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집단이며 학업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는 동료들이다. 그런데 이들 또래집단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대중문화예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친구들과 사이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대중문화예술 장르라는 점은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서 대중문화예술이 발휘하는 힘을 짐작케 해 준다.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은 학업성적이거나 용모, 육체적 힘과 더불어 경쟁에 동원되는 일종의 자원역할을 한다. 즉, 대중문화예술은 청소년집단 내부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중문화예술이 청소년들에 의미하는 바가 지대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대중문화예술과 대중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학교 대중문화예술교육의 방향

과거의 전통적인 예술 교육은 엘리트층을 위한 예술 교육으로서 탁월한 재능을 지닌 개인의 능력을 최고의 경지로 고양시키는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은 전통적인 예술 창작과 수용에서 드러나는 순수미학과는 다른 대중을 위한 문화예술적 감성의 계발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동연⁵⁾은 대중문화예술의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미학적 관점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예술을 창작하고 교육받는 전문예술가든, 아니면 예술교육을 수용하는 일반인이든 예술교육의 최종 목적은 개인의 탁월한 재능(talent)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각(sense)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감각의 활성화는 사물을 미적으로 보는 힘, 몸의 자유로운 활력, 표현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예술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술교육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정보를 소통하는 방식을 넘어서 상호간 인격의 신뢰, 정서의 교감, 즐거운 사건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예술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창작자와 수용자 사이의 일방향적 정보전달이 주를 이루었지만, 새로운 예술교육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교육자와 작품, 교육자와 교육자 간 다방향적인 정보의 소통과 인터페이스를 가능케 한다. 특히 예술을 소재로 한 상호작용적 ‘놀이’(play)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정서적 연대감을 강하게 심어주게 된다. 셋째, 예술교육은 다양한 표현력을 길러주고 하나의 사물이나 주제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줌으로써 상상력을 풍부하게 갖도록 해준다. 상상력은 특히 상품미학이 주를 이루는 문화산업의 시대에 비판적인 힘을 기르고 문화 활동이 지배적인 상품 시장에 포섭되지 않는 독립적인 감수성을 기르는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예술의 새로운 감수성을 확대시키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력을 높이는 디지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디지털 마인드는 디지털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익히는 것을 말한다.

5) 이동연(2008). 2007 문화예술교육포럼. p. 15.

4. 학교 실용음악교육의 의미

이 글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 가운데서 실용음악분야를 선택하여 학교 실용음악교육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⁶⁾

첫째, 학교 실용음악교육은 학생들의 실용음악 분야에 대한 감수성을 활성화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실용음악은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보편화되어 그들이 즐기는 문화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음악 교육을 통해 실용음악을 선별하여 수용할 수 있는 안목과 실용음악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실용음악 교육이 다만 수업 시간에 실용음악을 수용한다는 소극적인 개념의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음악적인 감각과 감성을 활성화하는 교육을 한다는 커다란 목적 아래에 우리 사회의 다수의 대중들이 향유하는 음악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실용음악에 대한 창조적인 수용자가 되도록 함을 뜻한다. 대중의 음악문화에 대한 수용과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들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있다면 이것 또한 특성화하여 선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실용음악교육은 통합적인 사고와 상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실용음악교육은 실용음악의 영역에만 국한되기 보다는 미술이나 문학, 영화 등의 개별 예술 장르가 가지고 있는 매체상의 기능적 구분의 한계를 넘어서 폭 넓은 시각을 가진 교육이 되도록 한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합하는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통합은 예술 장르나 교과목 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규 교과목과 특별활동, 음악 수업시간과 동아리 활동 시간, 학교 안에서의 교육과 학교 밖의 교육을 통합하려는 기획도 실용음악교육에서는 가능하다. 실용음악 수업과 미술, 연극 교과 간에 통합이 가능하고, 학교에서의 연주 발표뿐 아니라 문화회관, 청소년 수련관, 문화 회관 등의 지역 사회 공연장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공동의 음악 작업이 기본이 되는 실용음악교육에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통합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된다.

6) 양은주, 강민선(2008). 고등학교 실용음악 전문교과서 분석 및 모형 중 요약.

셋째, 학교 실용음악교육은 개인의 자율적인 표현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예술교육은 특별한 예술적 소양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층을 위한 교육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반 학교교육에서 관심을 가지는 교육은 인간의 조화로운 발달에 목적을 두고 그 실현 방법을 예술에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음악을 직접 접하고 표현하는 교육은 문체와 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 대한 열린 태도, 그리고 독창성의 증진 등의 이루어지는 장이 된다.

학교 실용음악교육이 창의적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실용음악 매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실용음악에 대한 올바른 수용과 소비에 대한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실용음악이 어떠한 매체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소비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매체교육이란 매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게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비판적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하며, 나아가서 매체에 대한 주체적인 창조 및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예술 전반의 교육에서 가능한 매체교육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매체비평교육, 매체문화교육, 매체제작교육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⁷⁾. 매체비평교육은 매체에 대한 비판적인 능력을 신장하는 것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그 영향을 수용자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다. 매체문화교육은 매체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평가하고 그러한 분석과 평가를 기초로 자신의 의견이나 사고를 표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교육이다. 매체비평교육과 매체문화교육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매체문화교육이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매체제작교육은 매체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적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용음악이라는 상품을 정보와 지식으로 바라보며 창조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실용음악교육에서도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을 단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역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생산해 내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 실용음악교육은 학교 내외에서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실제적인 대안이 되어야 한다. 실용음악교육은 학교 내에서는 지식 암기식 입시교육을 극복하는 창의적이고 내실있는 교육과정으로 뿌리내려야 할 것이며, 지역의 문화교육시설의 하나로서 다양한 예술교육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실용음악교육을 위해서 지방의 곳곳에 설치되어 있

7) 조용환, 윤여각, 이혁규(2006). 문화와 교육. pp. 139-140.

는 공공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매우 바람직하다. 학교 안 밖의 실용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수만 명씩 배출되고 있는 실용음악 관련 학과의 졸업생들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의 시설 및 지역 사회의 물적, 인적 자원의 활용이 극대화 되며, 학교 실용음악교육의 효과를 지역 사회에 전체에 과급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실용음악교육이 실용음악에 대한 감수성을 활성화하는 교육, 통합적인 사고와 상호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교육, 자율적인 표현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교육, 그리고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의 방향을 지닐 때 실용음악에 대한 단편적인 소비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학교 실용음악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학교실용음악교육의 교수학습방법

1. 팀 티칭
 2. 개별화 수업
-
-

1. 팀 티칭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선수학습의 정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학교 실용음악교육에서는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학교 실용음악교육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방법 가운데 팀 티칭(team teaching)과 개별화 수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팀 티칭은 실용음악의 합주에 있어서 다양한 악기의 연주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이며, 개별화 수업은 다양한 개인차를 보이는 악기 연주 지도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다.

팀 티칭이란 교사의 조직과 그들에게 배정된 학생들을 포함한 수업조직의 한 양식으로서, 2인 또는 그 이상의 교사가 협력해서 동일 학생집단의 수업 전반이나 중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즉, 복수의 교사로 된 팀이 종래 학급의 몇 배에 해당하는 학생집단을 협동해서 지도하는 방식으로서 여러 명의 교사가 팀을 이루어 학생의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조직의 형태를 갖는다. 학생집단 규모는 70~80명에서 300명에 이르기도 하며, 대그룹으로 일제수업을 하거나, 수업 목적에 따라서 20~30명의 중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교사가 분담·지도하기도 한다. 이때 중그룹의 편성에는 능력별·내용별 등 여러 방법이 있으며, 이를 다시 5~6명의 소그룹으로 나눠서 개별적인 지도나 개별학습을 시키기도 한다.

팀 티칭의 목적은 교원조직의 개편을 통해 유능한 교사와 경험이 적은 교사를 짝지어 각자의 지도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팀에서의 교사 직무에 따라 기존보다 높은 지위와 보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업 목적에 따라서 학생을 대소의 집단으로 다양하게 편성하고 다른 규모의 교실에서 다른 교사가 별개의 지도를 함으로써 수업의 개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 팀 티칭의 정의와 유형

팀 티칭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혹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데 Bauwens & Hourcade (1995)는 팀 티칭을 “일반적인 교실 환경에서 서로 다른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둘 이상의 교수자가 서로 다른 학습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동 작업을 함으로써 교수의 과정을 재구조화하는 것” 이

라 하였고 협동교수(Cooperative Teaching)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즉, 팀 티칭이란 둘 이상의 교수자가 한 팀이 되어 같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단, 계획, 교수, 평가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권낙원(1997)은 열린교육의 시각에서 팀 티칭을 정의하고 있다⁸⁾. 즉, 팀 티칭은 두사람 이상의 교수자가 협동하여 똑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 활동을 하는 교수조직이며, 학습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열려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Bergen(1996) 역시, 하나의 열린교실에서 또는 여러 열린교실을 통합하여 전문가팀이 계획, 교수, 평가하는 것이라는 열린교육에서의 관점으로 팀 티칭을 보고 있다⁹⁾. 그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팀 티칭의 정의는 Shaplin(1964)의 것이다. Shaplin은 팀 티칭이란 교수자들이 일정 학생집단을 상대로 집단 수업하기 위해서 밀접한 협동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며, 두 사람 이상의 교수자가 협동하여 똑같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수활동을 함으로써 전체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교수조직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의 여러 가지 개념을 정리해볼 때, 기존의 팀 티칭은 동일한 한 집단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두 명 이상의 교수자가 교수의 단계들을 공동으로 실행하는 의미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및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앞서의 팀 티칭 개념에서의 '동일한 집단의 학습자'란 더 이상 물리적인 거리로 제한되지 않는다. 가상공간에서의 학습자 집단이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팀 티칭이란 동일한 학습자 집단 혹은 다양한 학습자 집단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게 위해서, 각자 전문성을 지닌 둘 이상의 교수자가 교수 계획, 교수준비, 교수 제공, 교수평가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이러한 단계를 모두 함께 수행하는 형태는 물론, 이 중 한 단계라도 협동으로 진행한다면, 팀 티칭이라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가토(1998)는 위의 4가지 단계 가운데, 교수 계획, 교수 준비, 교수 평가는 반드시 함께 공동 수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교수 계획을 세울 때 교수자 각각의 개성 및 전공을 살려서 자신의 영역에서 제각기 책임을 진다면, 혼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훌륭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은 시청각교재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한 교재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혼자서 이러한 교재들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교수자들이 함께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경우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점 도출이 용이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팀 티칭에서 학습자를 개인의 흥미 또는 학습 능력에 따라 대집단, 중집단, 소집단, 개별 등으로

8) 권낙원(1997). 열린교육의 이론과 실제. pp. 120-135.

9) 위의 책 재인용.

탄력적으로 집단을 재편성하여 각 그룹의 특성에 맞게 지도하는 방법으로는 도달도에 따른 팀 티칭, 학습 과제에 따른 팀 티칭 등의 유형이 있다.

도달도에 따른 팀 티칭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도달도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그룹을 지어 구분한 뒤 복수 교사들이 나누어 맡아 지도하는 형태의 팀 티칭을 말한다. 이는 학습의 어느 단계에서 팀 티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출발점 행동을 고르기 위한 팀 티칭’ 과 ‘학습의 결과에 따른 도달도별 팀 티칭’ 이 있다. 도달도에 따른 팀 티칭은 계통성이 강한 수학과 같은 교과에서 효과적이며 단계별로 학습하는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학습 과제에 따른 팀 티칭이란 복수의 학습 과제를 팀 티칭 방식으로 지도 및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 과제에 따른 팀티칭은 학습자군이 과제의 순서를 선택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순서 선택 학습 방식’ 과 ‘과제 선택 학습 방식’ 이 있다. 학습 과제에 따른 팀 티칭은 계통성이 비교적 약한 교과 영역에 적합하다.

나. 팀 티칭의 특징

미국의 Shaplin(1964)은 팀 티칭이란 가르치는 인원을 재조직하여 교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며 둘 혹은 그 이상의 교사가 협동하여 동일한 학생 집단을 교수하는데 있어서 그 교수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책임 맡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팀 티칭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이 있다.

- 팀 티칭이란 복수의 교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필요한 동안 복수의 학습을 해체하여 이룬 한 무리의 학생들을 필요에 따라 대집단, 소집단, 개별 집단 등 탄력적으로 집단을 편성하여 지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 어떤 특정한 관점으로 학생들을 봤을 때 특성을 같이하는 학생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각 그룹의 특성에 맞게 지도하는 교수 조직의 한 형태이다.
- 편성된 그룹은 목적이 달성되면, 즉각 해체하는 일시적 일과성적 집단이다.
- 내용은 서로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며 다만 교사가 소집단 지도를 충실히 해 주어야 하는 교과 내용과 학생 스스로의 자율 학습으로도 가능한 교과 내용을 병행하여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팀 티칭프로그램은 교사 개개인보다는 함께 계획하고, 가르치고, 평가하는 과정을 더 강조한다.
- 모든 팀 티칭계획은 팀의 각 구성원 각자의 힘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 많은 팀 교사들은 여러 가지 시청각 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다. 팀 티칭의 모형

교수학습과정에서 팀 티칭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된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Olds(1964)의 모형과 The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1988)의 모형이 있다.

Olds는 팀 티칭을 팀리더형(team leader type), 연합형(associated type), 주임교수자/초임교수자형(master teacher-beginning teacher type), 조정팀형(coordinated-team type)으로 분류했다. 팀리더형이란 교수자 팀 가운데 리더를 선임하여 그 리더에게 전반적인 책임을 부여한 형태이며, 계급적 권위구조를 지닌다. 연합형은 특정 리더 없이 작은 인원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임교수자/초임교수자형이란 초임교수자를 위한 훈련기능을 지니는 교수팀인 경우에 사용되는 형태이며, 마지막으로 조정팀형은 팀 구성원이 정상규모의 단일 교실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팀을 조직하여 계획에 참가하는 형태이다.

한편, The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1988)은 팀의 구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주임교수자가 의사 결정 및 과정 전반에 걸쳐 주도하는 위계적 팀과, 특정 리더 없이 모든 구성원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협동적 팀이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구성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리더의 역할을 맡을 수는 있으나, 교수의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가지 형태 모두 개인의 능력 및 흥미 등을 고려해서 각자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모든 교수자들이 모든 분야에 걸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Collins 외(1997)는 원격교육 상황에서 활용되는 팀 티칭 모형을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주임/보조 교수자 모델(Lead/Supplemental instructor model)로써, 주임교수자는 해당 교과목에서의 교수 경험이 풍부한 교수자가, 보조교수자는 교과목의 교수경험은 없으나, 원격교육 프로젝트의 조정자로서의 수업 보조 경험이 있는 교수자가 맡는다. 주임교수자가 수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평가는 공동으로 수행한다. 때에 따라서 퀴즈 및 과제물은 보조교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주임교사가 채점하는 형식 등으로 수업에서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둘째, 다수의 교수자 모델(Multiple instructor model)로써, 여러 명의 교수자가 협력하여 교수 계획, 교수 진행,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교수자들은 계획 활동은 공동으로 진행하고, 수업은 학습 집단을 분담하여 각자 맡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즉, 다수의 교수자들은 수업의 토론 및 다양한 교수 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동으로 세우고, 자신이 맡은 학습자에 대한 평가는 각자 실시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외부강사 모델(Guest lecturer model)으로써, 한명의 교수자가 수업을 전담하며, 그 수업의 일부분을 외부 강사가 수업한다. 여기서 외부 강사는 과제 평가의 일부분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전반에 대한 책임은 외부강사가 아닌, 원래 수업을 담당한 교수자에게 있다.

넷째, 협력교수자 모델(Co-instructor model)으로써, 단일 내용교과의 경우에는 두 명의 교수자가 모든 영역을 동일하게 책임지며, 수업은 분담하여 진행한다. 즉, 같은 내용을 다루는 수업들이 동시에 개설된다면 이를 합하여 하나의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새로운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와 접할 수 있고,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교수자의 수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별개의 내용을 다루는 교과를 가르쳐야 할 경우에는 교수자들이 자신이 맡은 부분을 강의하다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두 학습자 집단을 합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해당 분야의 이슈나 동향을 다루는 교과목일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팀 티칭에서 어떤 모형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팀의 리더는 뛰어난 지도력과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팀 구성원은 교재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멀티미디어 전문가라면 더욱 바람직하다. 평가분야에 관심 및 능력이 있는 교수자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구성된 교수팀을 통해 각각의 교수자들이 지닌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팀 티칭의 모형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팀 티칭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교수자간의 미션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팀 티칭의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둘째, 교수자가 자신의 대인관계 스타일을 알고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팀 티칭에서는 교수자들 간의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수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다른 교수자의 수업을 참관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서 팀 티칭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다섯째, 다양한 팀 티칭 상황을 충분히 역할연습을 해보도록 한다.

라. 팀 티칭의 과정

1) 팀 티칭의 구성

팀의 크기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학습 내용 및 학생 집단의 크기, 활용 가능한 공간 그리고 인적 자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된다. 팀 티칭에서는 팀 구성원의 협동심이 가장 중요하므로 처음

부터 대규모로 실시하면 팀 구성원간의 의견이 일치되기가 어려우므로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여 교사나 학생들이 이 방법에 친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학습 내용에 따라 어느 규모로도 팀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공간도 교실 특별 교실, 운동장, 복도 등 열린 공간을 확보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팀의 구성원으로는 전문직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인사나 학부모 또는 교재 개발, 성적 처리, 서류 정리 등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교사 등 필요에 따라서 교내외의 인사들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팀 구성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팀 리더가 있어서 회의를 주선하여 이끄는 것이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된다.

2) 팀 구성원의 과제

팀의 교사들은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지어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팀의 소수에게만 업무를 과중하게 부여한다면 팀 티칭은 의미가 없어진다. 팀의 교사들은 함께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일을 분담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제작하고 함께 맡은 분야를 지도하여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함께 반성하고 평가한다.

교사들의 업무 배정 시 주의할 점은 여러 명의 교사가 넓은 공간에서 다수의 학생을 번갈아 가르치는 상황 하에서도 한 명의 학생이라도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각 학생은 특정한 시간에 어느 교사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며 교사는 자기의 책임 하에 있는 학생들의 적응력, 원만한 교우 관계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팀 티칭은 두 명 이상의 교사가 팀을 이뤄 지도하므로 교사 각자의 지도 스타일을 인정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협동하는 자세로 임하며 학생들이 질 좋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 팀 티칭의 제한점

팀 티칭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첫째, 지도 내용보다는 교사의 조직에 주의가 집중될 수 있다.

둘째, 여러 명의 교사들이 함께 협동하여 작업을 하므로 한 명의 교사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학습 진도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셋째, 한 교사는 대체로 한 가지 교과나 일부 그룹만 담당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학생의 전반적인 평가가 어렵다.

넷째, 학생을 지도하는 각 교사들의 기준이 다를 때 학생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다섯째, 여러 차례의 회의, 성적 관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

여섯째, 간혹 교사들 간의 성격, 교육 철학, 학생들에 대한 태도의 차이 때문에 교사들 서로 간에 화합이 힘들 수 있다.

일곱째, 현재 교사들은 팀의 멤버로서 유효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의 계획, 분담 및 진행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팀 티칭수업은 학교급별, 또는 교과목별로 수업의 시행 면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급의 교육과정은 학급 전담제인 반면 중등학교급은 교과 전담제이므로 자연히 중등은 팀 편성이나 시간 편성에 있어 초등보다 제약을 많이 받는다. 초등학교급의 경우는 동학년 교사 간 협의에 의해 시간 편성이나 학급 편성을 교사의 의도대로 비교적 수업 외적인 제약을 덜 받고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반면에 중등학교급에서는 학습 교과가 교사 자신의 교과의 전문적 지식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팀 편성이나 시간 편성 역시 학기별 단위로 시간표 작성을 하여 수업이 실시되는 관계로 수업 외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교사 개인의 의도대로 필요시 수시로 팀 티칭을 시행할 수가 없다. 즉 학년 단위로 학기 초의 전반적인 계획 하에 두 시간 블록 수업이나 두 개 반 팀 티칭 또는 고등학교급에서와 같은 전 학년 능력별 이동 수업이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전문화된 교과목의 편성으로 인해 초등 과정처럼 학부모 자원 봉사자의 조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여건에서는 중등에서의 팀 티칭의 실시는 여러 가지 수업 외적인 제약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적으며 일부 교과에 국한되어 실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과정부터 누적되어 온 학습 능력의 차이는 중등학교 과정에서 더 심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팀 티칭의 필요성은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2. 개별화 수업

가. 개별화 수업의 개념¹⁰⁾

개별화 수업은 수업의 초점을 학급성원인 개별 학생에게 두고, 가능하면 모든 학생이 의도한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각 개인의 능력, 적성, 동기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고 타당한 수업 방법 및 절차, 자료의 선택, 평가 등을 변별적으로 실천하는 수업을 말한다. 즉 개개의 학습자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수업의 모든 요소를 각 학습자들의 독특한 요구와 특성에 알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수업을 실천하는 변별적인 수업 방법을 의미하며, 개인차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정하여 진정한 관심을 표출시키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본다. 행동과학적 교수학습에서는 개별화 수업의 과정에서의 투입→과정→산출에 주목한다. 수업자의 수업 설계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수업설계, 자료 개발, 수업 전략 수립, 수업과정 분석, 정확한 평가방법 고안 등을 개별화 수업에서 고려하고 다루어야 할 중점 내용으로 본다.

개별화 수업에서는 수업 절차나 형태, 수업 기술이나 전략, 수업매체, 평가방법 등 수업에 관한 모든 변인들이 학습자의 선행지식이나 성장 발달 등의 특성에 맞도록 처방된다. 학습자 개인은 각각 서로 다른 ① 학습 진도 ② 공부하는 기술 ③ 문제해결 방법 ④ 흥미경향 ⑤ 학습경향 ⑥ 특정 시점에서 학습준비도 ⑦ 특정시점에서 학습능력의 특성을 지닌다.

개별화 수업의 목적은 모든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개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일한 과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매체를 사용해서, 동일한 속도로 가르치는 식의 획일적 처방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 각자의 특성이나 개인차에 대응할 수 없었다. 개별화 수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형태의 수업체제이다.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경직되고 획일화되어 가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돌파구로 세계 각 나라에서는 학습자들의 개인차에 적합한 수업방법을 구안,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별화수업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여 개별화수업방법으로 ① 학급규모의 유연화 ② 교수·학습 자료의 다양화 ③ 다양한 교수방법

10) 황윤환, 조영임(2005). 개별화수업 : 이해와 적용. pp. 119-123.

의 개발보급 ④ 수업 운영의 현대화 ⑤ 평가의 개별화 등의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교육개혁심의회 교육방법 쇄신의 기본방향에서도 ①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 ② 자발적 학습이 강조되는 수업 ③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이 중시되는 교육 ④ 자료와 매체의 획일성을 탈피하는 교육 등을 지향점으로 두고 있는 등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화수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독자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고도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전문적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요청된다. 셋째, 개인차가 교육활동의 실제에서 반영될 때 교육의 기회균등이 확실히 보장된다. 넷째, 인간이 타고난 재질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모든 심리학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교육력의 총량을 높이려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나. 개별화 수업의 유형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수업은 크게 선별적 수업방법, 접합적 수업방법, 상호작용 수업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선별적 수업방법은 학교의 교육 조건이나 환경에 교육받을 능력이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학생들만을 선발하여 가르치려고 한 초기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학생들의 개인차를 인정하되 선발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 학습 집단 구성원들의 개인차를 최소화시켜서 그 집단에 적합한 하나의 수업방법으로 가르치려던 접근이다. 이와 같은 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입학 시험을 통해서 개인차가 유사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생 집단을 만들고 그에 적합한 한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들 수 있다.

선별적 수업방법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개인차가 고려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학습자 개인의 학습 속도, 적성, 혹은 선호하는 학습 양식 등에 따라서 적합한 수업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부터 한 걸음 나아간 새로운 시도가 접합적 수업방법이다.

둘째, 접합적 수업방법은 학습자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학교의 수업방법과 학습 조건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제공함으로써, 각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수업방법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접근이다.

접합적 수업방법에서는 수업의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진단하거나 측정하여 각 개인별로 적합한 수업방법이나 학습 자료를 선택하여 자기에게 알맞은 학습을 하도록 한다.

개별화 수업의 세 번째 유형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유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방법으로 상호작용적 수업방법이다. 이 접근에서의 관점은 단순히 가르치는 방법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학습자 개인이 성취하여야 할 수업목표나 내용의 수준과 양도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달리 정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적성, 수업 이해력, 선수학습능력의 수준, 요구와 관심 사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이 성취해 낼 수 있는 학습의 양과 수준은 다를 것이며, 학습해 나아가는 속도가 각기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학습자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와 방법을 알맞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겠는가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한 방안을 구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상호작용적 수업방법의 대표적인 접근으로는 완전학습, 협동학습, 컴퓨터 기반 수업 등을 들 수 있다.

다. 개별화 수업의 방법¹¹⁾

학생들의 개인차에 알맞은 교수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고려와 변화가 있어야 한다.

1) 양과 수준에 차이를 둔 수업목표와 내용의 선택

학습자들은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적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학습의 속도나 성취의 수준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선택이나 좋아하는 교과목의 선택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따라서 각 학습자들이 성취해야 할 수업목표의 양과 수준을 달리하여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학습량과 수준을 선택하도록 허용해 주어야 하며 개인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목과 학습활동들이 계획되어야 한다.

① 성취 수준과 학습량

개인이 달성해야 할 성취 수준과 학습량은 학생의 필요를 감안하여 차별화한다. 최저 수준의 공통 목표와 각 개인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택할 수 있는 선택 목표를 구분하여 제시하며, 학습이 시작되기 전 학습자들의 출발점 행동, 요구, 흥미 등을 측정·조사하여 각 개인이 학습할 목표치 결정하는데 활용하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학생 각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11) 황윤한, 조영임(2005). 개별화수업 : 이해와 적용. pp. 228-258.

② 학습목표와 내용의 계열화

각 교과목별로 학습목표와 내용은 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열화하는데, 학습해야 할 것을 정선하여 구조화하고, 학습의 난이도, 전이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열화한다.

③ 수업목표의 명확한 진술

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수업목표를 명확하게 진술한다. 구체적 내용과 구체적 행동이 분명히 제시되도록 하며, 목표의 달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명료하게 진술한다.

2) 다양한 수업방법과 절차의 제공

개별화 학습이 강조될수록 학습 기회가 많아지므로 각 학습자들은 수업목표와 수업방법이 각기 다르게 학습되므로 수업 방법은 다양해야 하고 학습 노력도 달라야 한다. 새로운 수업방법과 기술을 제공하고 또 수업시간의 시작과 끝도 다르게 계획되어야 한다.

① 진단 결과에 따른 처방

학습자의 특성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에 맞는 처방을 제공하도록 한다. 수업의 절차는 '진단 → 방법과 자료결정 → 학습활동 → 확인평가'에 따르며, 학습방식과 인지양식에 따라 서로 다른 수업자료나 방법이 제공되도록 한다.

② 개별화 학습의 기회 제공

학습자 스스로 읽고, 관찰하는 등 많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학습자 스스로 학습결과를 평가하여 학습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학습의 시간과 분량을 융통성 있게 허용한다.

③ 정규 수업 이외 수업의 효과적 활용

일과 후의 수업은 자율학습을 권장하고, 학습 부진아에게는 보충학습, 속진아에게는 심화학습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자율학습을 위한 장소, 자료, 시간 등을 알맞게 제공하며,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을 위해 학습이 가능한 학습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④ 융통성 있는 학교 일과 시간

효과적인 개별화 수업을 위해서는 학교의 시간표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오전에는 동일한 수업을 하더라도 오후에는 학년, 교과목에 따라 개별화 수업을 하는 등 수업시간의 단위를 학년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하도록 한다.

⑤ 강화의 적절한 사용

개별화 수업에서의 학업 성취의 대부분은 학습자 자신에게 달려있으므로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료를 통해서 내적강화를 부여하고, 교사로부터는 외적강화를 많이 받도록 하여 학습의 과정을 촉진시킨다.

3) 자율학습이 가능한 학습자료의 제공

학습자의 인지 양식과 학습양식은 다양하므로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도 다르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학습 자료와 수업 매체가 필수적이며 많이 제공되어야 하고 수업의 절차와 방법을 동시에 계획해야 한다.

① 현대적 교육공학과 통신공학적 기기 활용

컴퓨터, VTR, 녹음테이프, 컴퓨터와 VTR통합기기 등의 교육용 기자재를 활용하여 자율학습의 효과를 높이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업 절차를 개발한다. 여기에는 학습자들이 기자재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② 도서관 등의 자율학습센터 여건

다양한 학습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스스로 학습 공간을 마련하며, 학습자의 학습을 안내할 수 있는 교사를 배치한다.

③ 충분한 자율학습 자료 준비

학습 양식과 인지 양식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데, 교과목 별로 서로 다른 방식의 자료를 갖춘다. 여기에는 방송학습과 학습 실험실, 언어 학습실, 음향설비가 된 학습실 등이 포함된다.

4) 융통성 있는 학습과 학습 집단 편성

학습자들은 학습의 역사를 통해서 누적적으로 성취한 수준과 학습 속도 또한 각기 다르므로 학년과 학습의 벽을 무너뜨리거나 학습 집단 편성에 융통성을 주어야 한다.

① 개별학습과 분단학습의 기회 확대

일제 학습 시간을 줄이고 수업의 흐름은 ‘일제학습 → 개별학습 → 분단학습 → 일제학습’ 등의 형태로 제공한다. 여기에서 교사의 역할은 수업의 관리와 안내자가 되도록 한다.

② 학급 및 학습 집단 조직 · 편성

학생의 특성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속진 방법이나 월반제를 도입한다.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동일학년에 동질 학급을 편성하는데 동질학습에 각 집단의 수준에 알맞은 목표와 방법을 제공한다.

5) 수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

평가는 학생들의 성적을 가늠하는 기능이 아닌, 수업 개선에 주 기능을 두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고 평가의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 정하고 기능별로 다양한 평가활동을 계획한다.

① 목표지향 평가

평가의 도구는 상대평가가 아닌 목표 지향적 평가 도구로 하며 평가 기준은 성취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② 다양한 측정도구

교과목별, 단원별로 다양한 평가 자료를 제시하고, 적성, 학습양식, 인지 양식, 선수학습능력 등을 측정하여 누가 기록을 비치한다.

③ 진단평가나 형성평가 후 적절한 후속 조치

평가 후 결손 부분을 보충해 주는 보완학습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교정학습 후 보충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재교정한다. 이를 위하여 학습결손과 미성취부분에 대한 자율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④ 신속한 평가 결과의 공지

평가의 결과를 학습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평가의 결과를 가능한 빨리 언제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6) 융통성 있는 학급과 학교 운영

학교의 운영은 개별화를 고려한 수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향과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① 무학년제도 활용

학습 속도가 빠른 학습자에게는 속진법 또는 월반제도를, 학습 속도가 느린 학습자에게는 유급제도를 활용하여 교사의 재량에 따라 동질집단을 편성하여 가르친다.

② 조교사의 활용

전문적 지식이나 자질이 없어도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임용 이전의 교수 인력이나 요건을 갖춘 학부모로 구성하며 수업 효과 높이기 위해 팀 티칭기법 활용할 수 있다.

7) 기타 지원체제의 강화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강구되어야 하며 학교 운영 및 학급 운영에 자율성과 융통성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와 가정의유대를 강화하여 가정에서도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이 수반되어 긍정적인 태도와 신념, 다양한 수업 기법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IV.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현황 분석

1.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사례
 2.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분석
-
-

1.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사례

가. 학교에서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현황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 음악 수업보다는 주로 방과후학교¹²⁾나 계발활동¹³⁾을 통하여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전국 단위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학교에서 어떤 종류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각 시·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수강신청 코너와 그 외 인터넷 자료들을 검색하는 방법을 통하여 방과후학교나 계발활동에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는 전국의 중·고등학교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여 보았다(〈표 4-1〉). 그러나 많은 학교들이 시·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수강신청 코너보다는 학교 자체적인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표 4-1〉에 제시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 역	학교명	프로그램명
서울	가원중	보컬반, 드럼반, 기타반
	경성중	드럼과 기타반
	경신고	그룹사운드
	금옥중	드럼, 보컬
	동대문중	밴드

12) 방과후학교는 사회양극화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과후에도 학교에서 특기적성, 수준별 교과 보충 및 심화 수업, 진로 지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일컫는다.(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홈페이지(<http://afterschool.edunet4u.net>)에서 발췌)

13) 계발활동은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5개 영역 중 한 영역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활동이다(교육인적자원부, 특별활동 교육과정, 2007, p.1). 본 연구에서는 계발활동을 동아리와 동아리를 제외한 부서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동원중	밴드반(기타, 베이스)
	북서울중	드럼(초급, 중급)
	삼각산중	일렉&베이스, 드럼반, 일렉기타
	상경중	밴드반
	상신중	밴드반, 드럼, 보컬반, 기타반
	상현중	실용음악
	서서울생활과학고	락밴드
	서울디자인고	밴드연주반
	서일중	밴드부
	성암여중	드럼반
	송파중	락밴드
	수락중	밴드반
	수명중	밴드반
	신반포중	드럼반, 기타반
	영일고	기타부
	인현중	밴드반, 보컬반
	잠실중	기타반, 드럼반
	장안중	드림사운드(실용음악)반
	장평중	생활음악반
	정원여중	실용음악반
	창천중	그룹사운드반
	청량중	토요일 신나는 락밴드, 청소년 실용음악
	휘경중	밴드합주반, 기타반, 드럼반, 보컬+키보드반
경기	광명중	락밴드반
	광명 안서중	밴드반
	대호중	락밴드반
	덕소고+예봉고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보컬
	파주 탄현중	락밴드반
인천	계산여중	기타반
	논곡중	기타반
	만수북중	밴드
	방축중	드럼반
	부흥중	그룹사운드
	청학중	밴드교실반
강원	거진종합고	보컬
	무주중+적상중	그룹사운드

	솔을중	드럼반	
	대백 철암중	밴드반	
	화천 간동중	보컬반	
충남	주산산업고	그룹사운드	
충북	금산 제원중	밴드	
대전	대신중	기타연주	
	두리중	그룹사운드반	
	변동중	기타반	
	봉산중	기타반	
	정림중	기타반	
	충남중	통기타반	
경남	한밭여중	기타반	
	거제공고	밴드(한반도)	
경북	진해 중앙고	기타반	
	경주화랑고	밴드	
경북	성주 명인중	그룹사운드	
	대청중	실용음악반	
부산	동백중	밴드반	
	신덕중	기타반	
	강남중	밴드반	
울산	남외중	기타반	
	대현중	드럼반	
	옥현중	드럼반	
	울산동중	기타반	
	울산중앙중	통기타반	
	울주 구영중	기타반	
	울주 서생중	밴드반	
	울주 울산과학고	통기타	
	울주 천상중	기타반	
	태화중	실용음악반	
	현대청운중	기타반	
	대구	관천중	드럼반
		범일중	기타반
전남	고흥 과역중	기타, 밴드	
	순천 남산중	그룹사운드	
	순천 매산중	밴드반	
	순천 팔마중	보컬밴드	
	여수 화양고	밴드반	
전북	김제서고	보컬밴드	
	부안농공고	락밴드	

	부안중	기타
	산외중	그룹사운드
	삼계중	기타반
	삼례고	그룹사운드
	삼례공고	기타, 그룹사운드
	완산여고	음악밴드반
	전주 남중	밴드반
	함열여중	락밴드부
광주	봉산중	밴드반
	일신중	그룹사운드
	지원중	악기연주(밴드)
	치평중	그룹사운드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실용음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개설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밴드반, 기타반, 드럼반 등이 있다. 몇몇 학교들은 학교 간에 연계하여 2개교 이상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학교에서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조사의 대상은 전문가들의 추천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학교, 연주활동이 활발한 학교 그리고 교육청 우수사례 선정된 학교 등 5개의 중학교와 실용음악과가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 인근 중학교와 연계하여 맞춤형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등 2개의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상신중학교와 도촌중학교, 염창중학교 그리고 서서울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였다. 한편, 솔울중학교와 당산중학교,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혹은 계발활동 우수사례로서 소속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보고서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활동 내용 등에 대한 자료들은 해당 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교내외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1) 상신중학교¹⁴⁾

상신중학교는 계발활동에서 밴드반을, 방과후학교에서 기타반, 드럼반, 보컬반, 밴드반을 운영하고 있다.

계발활동에서의 밴드반은 동아리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2002년에 처음으로 결성되었다가 2006년 해체된 이후 2008년에 재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밴드반 운영 계획서’를 참고하여 밴드반의 활동 목적과 기대 효과 등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공립중학교.
* 상신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sangsin.ms.kr>

<표 4-2> 상신중학교 밴드 동아리 운영 계획서

1. 활동목적

- 밴드 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개인의 연주 기량과 음악성을 키운다.
- 합주 활동을 통해 음악적 의사소통능력과 조화와 협동정신,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
- 공연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긍심을 키우고, 학교음악문화발달에 기여한다.

2. 활동개요

- 연습 개인연주연습 및 팀별 합주: 점심시간, 방과후학교, 계발활동 시간
- 공연 및 대회 참가
 - 교내: 체육대회, 상신제(송실고 강당), 밴드부 정기공연(상신중 창조관)
 - 교외: 막무가내 120분(연신내 물빛공원), 유스페스티벌, 서부예술제 등
- 음악기초능력 및 포괄적 음악성 배양
 - 음악 감상, 음악 비평, 음악기초이론 학습

3. 주요 활동내용

- 계발활동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후학교 시간을 통한 개인별 연주 연습 및 팀별 합주
-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회 및 행사에 참가공연
- 음악적 안목과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연 관람
- 음악 감상, 음악 비평, 음악기초이론의 이해를 통한 포괄적 음악성 배양

4. 기대효과

-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살린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전한 여가 생활을 누리고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다.
-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와 공연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의식과 성취감 및 자긍심을 키울 수 있다.
- 학교 및 지역사회의 문화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동아리는 현재 가창 8명, 건반 4명, 기타 6명, 베이스 3명, 드럼 3명, 총 24명의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공식적인 활동 시간은 1달에 1~2회, 회당 4시간 정도 주어지는 계발

활동 시간인데,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점심시간과 같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밴드 동아리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악기의 유지·보수 및 구입, 그리고 정기 공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은평구청과 연계한 은평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약 1,000,000원을 지원받았고, 지역방송국에서 방송되는 ‘막무가내 120분’이란 프로그램에 1달에 1번 정기적으로 공연자로서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한편, 상신중학교가 운영하는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방과후학교에 악기별로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8년에 방과후학교에서 처음으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연주 기술 및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건전하게 여가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업으로는 2008년에 개설된 밴드반과 2009년에 추가로 개설된 기타반, 보컬반, 드럼반 등 총 4개가 있다. 이 때, 밴드반은 동아리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보컬 9명, 기타 10명, 베이스 2명, 드럼 13명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업은 1주일에 1회, 회당 90~100분 가량 악기별 외부 실기 강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방과후학교 수강생들의 자체적인 발표회가 별도로 기획되지는 않으나 학교 발표회 때 무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 분기는 약 900분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수강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약 40,000원의 수강료를 부담하는데,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신중학교에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연주를 통하여 음악적 즐거움을 느끼는 음악 내적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들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어 학교에 오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공연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음악 외적 효과까지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악기와 악보가 더 확충되고,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이 병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 도촌중학교¹⁵⁾

도촌중학교는 2008년에 개교한 이후 지역적인 특성상 타 지역 학생에 비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15)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2008년에 개교한 공립중학교.

* 도촌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dochon.ms.kr>

많다는 점에서 고민을 해오다, 2009학년도부터 기타반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기타 연주를 통한 음악적 경험이 학생들의 정체성과 자존감, 성취감 등을 향상시키고, 이는 학교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개설 취지에 깊이 공감한 개인의 후원으로 익기도 확보할 수 있었다.

2009학년도 1학기에는 계발활동으로 기타 동아리를 개설하였는데, 2학기부터는 방과후학교에 기타반을 개설하였다. 현재 기타반에는 총 3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1달에 10회 정도, 회당 1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15회(약 900분)에 약 40,000원의 강습료를 부담하며, 이는 상신중학교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악기는 개인의 후원으로 14대를 학교 소유로 확보하여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학생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

수업은 외부 실기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동영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1:1 개인별로 레슨이 진행된다는 점, 실기 교육과 이론 교육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 등이 도촌중학교 기타반 수업의 특징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10개 정도의 방과후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교생 300명 중 60명이 이 수업을 수강하기를 원하여 3학년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도 했다. 또한 선발되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방과 후나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연습에 몰두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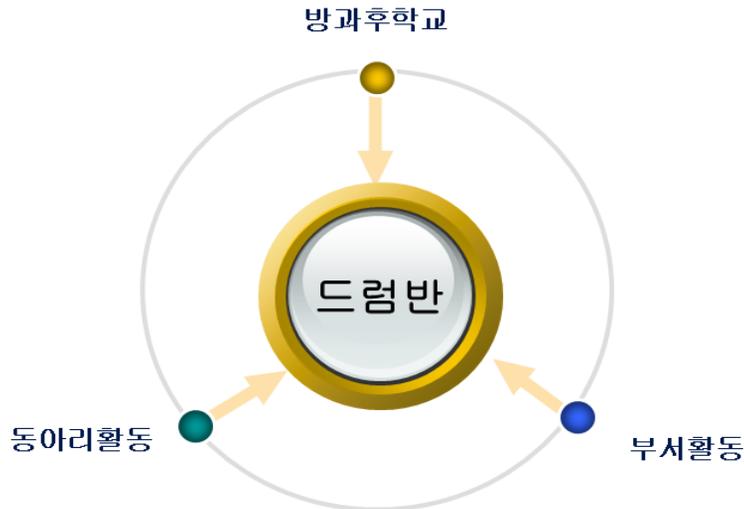
도촌중학교의 기타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더욱 효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악기가 확보되어 학생 각자가 개별 악기를 가지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생이 소유하고 있는 악기까지 활용한다 할지라도 악기가 모자라 학생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너무나 즐겁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연습하는 모습에 힘을 얻어 새 학기에는 드럼과 신디사이저를 준비하여 새로운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3) 솔울중학교¹⁶⁾

솔울중학교는 2008학년도부터 방과후학교, 부서활동,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드럼반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4-1]).

16)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하고 있는 2007년에 개교한 공립중학교.

* 솔울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solohl.ms.kr>



[그림 4-1] 서울중학교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식

오랫동안 교사 밴드 동아리에서 드럼을 맡고 있었던 교사가 새로 부임해 오면서 드럼반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사용하지 않아 비어있던 휴게실에 방음이 되도록 스펀지 시설을 하여 드럼반 전용의 연습실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드럼은 지도교사가 소유하고 있던 1대와 학교 예산으로 구입한 1대, 총 2대를 확보하였고, 앰프도 지도교사가 소유하고 있던 5대와 학교 예산으로 2대를 더 구입, 총 7대를 확보하였다. 더불어 스틱 20개도 학교 예산으로 구입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였고, 건반도 구입하여 멜로디 연주와 협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연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연습용 타이어를 4개 설치하고, 타이어 1개 당 5개의 의자를 놓아 총 20명의 학생이 동시에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수업에서는 타이어를 활용한 연습에서 비트 연습이 충분히 된 학생들이 순서를 정해 실제 드럼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후 2008학년도 1학기에 방과후학교에 드럼반을 개설하였고, 이후 현재에는 19명이 활동하고 있다.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잘 하는 학생과 수업에 잘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일대일로 짝을 지어 동료 간에 레슨과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일에 3번, 회당 1시간 정도의 수업으로는 실력 향상에 한계를 느낀 지도교사가 계발 활동 부서로 드럼반을 개설하여 19명 중 11명이 계속 연습하게 되었다.

이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드럼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보컬과 키보드, 기타까지 합세하여 그룹사운드를 조직하였다. 이 동아리는 방과후학교 시간 외에도 1주일에 2시간씩 동아리 활동으로 연습하고, 토요일무일에도 2~3시간씩 자율적으로 연습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08 강릉 교육가족 한마음 대축제’에서 공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연주자들에게는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이지만 그룹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고, 청중으로 참여한 나머지 학교 구성원에게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었다([그림 4-2]).



[그림 4-2] 솔올중학교 그룹사운드 동아리 공연 모습

드럼반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교사는 무엇보다도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던 몇몇의 학생들이 드럼반 활동을 통하여 무언가 관심을 쏟을 데가 생기고, 학우들과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면서, 교사 자원과 약간의 학교 예산만 허락된다면 드럼반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그다지 어렵지 않게 즐거운 학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동료 간에 합심하여 하모니를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4) 당산중학교¹⁷⁾

당산중학교는 계발활동을 조직함에 있어 먼저 학생과 교사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학생과 교사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발활동은 연 32시간 이루어지는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교시에 실시한다.

당산중학교의 계발활동 중 실용음악과 관련된 동아리는 뮤직밴드 동아리인 ‘제네시스’로 올해로 창단된 지 9주년을 맞이하였다. 총 24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꾸준한 연습을 통하여 각종 축제나 대회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2006년 ‘영등포구 청소년 음악경연대회’, 2008년 학교 합창대회와 축제, ‘남부종합예술제’, ‘2008 당산제’ 등에서 연주를 선보였다.

지난 2008학년도에 계발활동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표 4-3> 당산중학교 ‘제네시스’ 활동내용

일자	주요 교육 활동내용
2008.04.05	연주팀 배정, 기초교육
2008.05.03	자우림의 하하송 연습, 악기별 연습
2008.06.07	합창발표대회 찬조출연 평가회, 예술제 준비를 위한 새로운 곡 연습
2008.07.05	팀별 파트연습과 경연대회, <추억속의 그대> <애정표현> 연습
2008.09.06	당산예술제 참가계획, 1,2,3학년 팀별 연습
2008.10.04	거울꾸미기
2008.10.18	축제에 출연할 곡 <혜성> <말달리자> 연습

‘제네시스’는 방과후학교와도 연계되어 운영되는데, 2008학년도의 경우에는 1학기에 개설된 1~2기, 여름방학에 개설된 3기, 2학기에 개설되는 4~5기에 ‘뮤직밴드반’이 모두 개설되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립중학교.

* 당산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dangsan.ms.kr>

다. 이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동아리 구성원들은 실용음악을 전공한 외부 실기 강사들로부터 전자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건반 등의 악기 실기 교육과 작곡, 화성법 등의 이론 교육을 병행하여 받고 있다.



[그림 4-3] 당산중학교 '제네시스' 활동 모습

‘제네시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악기를 배울 수 있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고 신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 중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5) 염창중학교¹⁸⁾

염창중학교에서는 계발활동으로 밴드반이 운영되고 있다. 명칭은 ‘pop band’이며, 수업은 2주일에 1회, 회당 약 3시간 정도 외부 실기 강사에 의하여 진행된다. 참여 학생은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한다. 선발한 학생들은 학년을 섞어 2개의 밴드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1개의 그룹을 지도교사가 레슨을 하는 동안 나머지 1개의 그룹은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개별 연습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밴드반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는 밴드 활동이 학생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2009학년도 지도계획표는 다음 <표 4-4>와 같다.

18)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공립중학교

* 염창중학교 홈페이지 : <http://yumchang.ms.kr>

<표 4-4> 영창중학교 밴드반 지도계획표

2009 학년도	
개발활동 연간 지도계획표	
(POP BAND)	
지도교사	재적인원
(담임)구○○ (강사)백○○	18
지도장소	
1학년 4반	

지도 목표	*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서를 배우고 협동심을 기른다. *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개발 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날 짜	지 도 내 용
4 / 1	개발활동반 조직 및 오리엔테이션
4 / 4	두 팀으로 나누고, 각 파트 정하기 (드럼, 기타, 보컬, 키보드, 베이스, 미디)
4 / 18	연주 곡목 정하기 (FROM THE HEART, SAME DIRECTION 등 총 6곡 선정)
5월	각 파트 개인 레슨 및 연습
6월	각 파트 개인 레슨 및 연습
9월	총 합주(피아노, 기타, 드럼, 보컬, 베이스, 미디)
9월	총 합주, 각 악기(파트) Tone 레슨 및 연구
10월	발표회 전 총 리허설, 장비, 기기 Test
10/19, 26 11/ 2	특별활동 발표회

6)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¹⁹⁾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는 국제조리과학과, 국제뷰티아트과, 국제정보과학과, 국제관광과, 실용음악과, 생활체육과, 시각디자인과, 만화영상과 등 총 8개 학과로 이루어진 전문계 고등학교이다. 전문계열이라는 특징을 살려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는 기초 교과목 학력 신장을 위한 강좌뿐만 아니라 피부실기대비반, 조리기능사반과 같은 전공 내용을 심화한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다.

실용음악과 관련된 강좌로는 락밴드가 개설되어 있는데, 연주반과 작곡반을 구분하여 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와 관심에 맞게 악기를 다루는 기회와 자신의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 중에서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업은 1주일에 2~3회, 회당 2시간씩 수업이 이루어지며, 이를 수강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20시간에 약 30,000원의 수강료를 부담한다.

2008학년도 락밴드반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도 계획은 <표 4-5>와 같다.

19)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한 사립고등학교.

*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sls.h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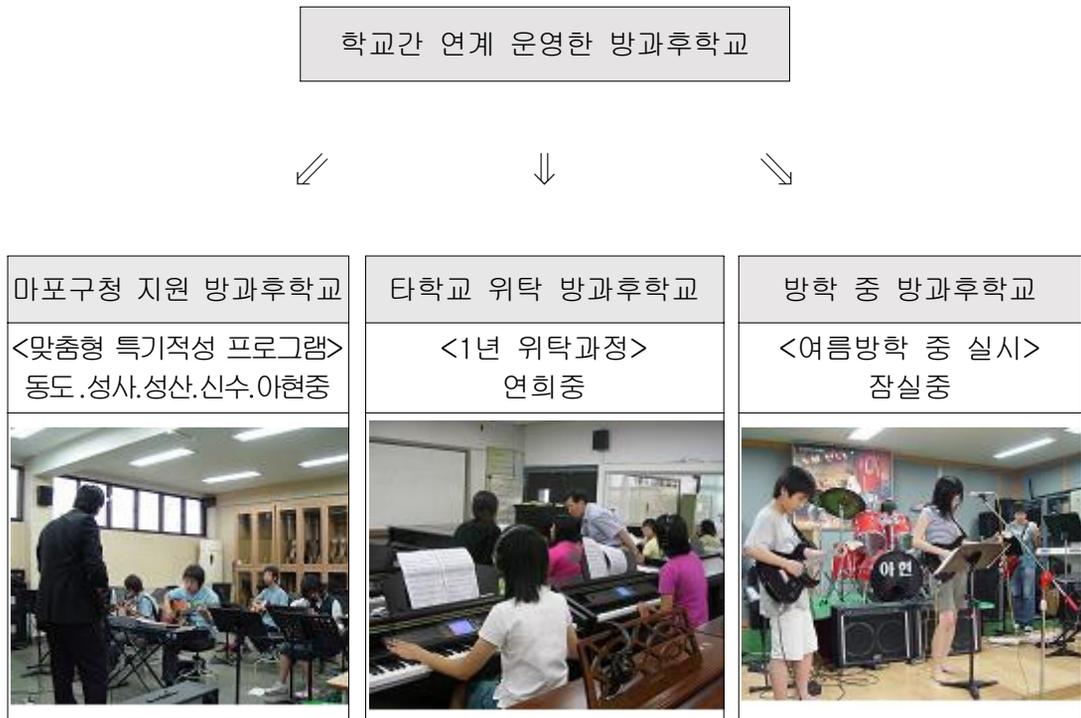
<표 4-5> 서서울생활과학고 방과후학교 락밴드반 지도 계획

프로그램명	Rock Band (합주, 베이스기타)	지도교사	김 ○ ○ (인)
대상	1,2,3 학년	지도시수	60시간
지도기간	2008년 4월 15일 - 7월 15일		
지도목표	연주곡의 구성요소, 형식, 코드진행, 멜로디 연습을 통하여 악성을 개발하고 풍부한 음악적정서와 창조성을 형성하도록 한다.		
주차별 지도 계획			
주차	주 제	학습내용	비고
1	Autumn Leaves 합주 Major Triads(장3화음)의 이해	곡의 Melody, Chord 연습 및 합주 Major Triads 연습	
2	Autumn Leaves 합주II Major Triads(장3화음)의 이해 II	곡의 Solo 연습 및 합주 Major Triads 연습(Tempo Up)	
3	Straight No Chaser 합주 Minor Triads(단3화음)의 이해	곡의 Melody, Chord 연습 및 합주 Minor Triads 연습	
4	Straight No Chaser 합주II Minor Triads(단3화음)의 이해 II	곡의 Solo 연습 및 합주 Minor Triads 연습(Tempo Up)	
5	The Day Wine & Rose 합주 Augment Triads(증3화음)의 이해	곡의 Melody, Chord 연습 및 합주 Augment Triads 연습	
6	The Day Wine & Rose 합주II Augment Triads(증3화음)의 이해 II	곡의 Solo 연습 및 합주 Augment Triads 연습(Tempo Up)	
7	There is No Greater Love 합주 Diminish Triads(감3화음)의 이해	곡의 Melody, Chord 연습 및 합주 Diminish Triads 연습	
8	There is No Greater Love 합주II Diminish Triads(감3화음)의 이해 II	곡의 Solo 연습 및 합주 Diminish Triads 연습(Tempo Up)	
9	All The Things You Are 합주 Major 7th Chord의 이해	곡의 Melody, Chord 연습 및 합주 Major 7th Chord 연습	
10	All The Things You Are 합주II Major 7th Chord의 이해 II	곡의 Solo 연습 및 합주 Major 7th Chord 연습(Tempo Up)	
11	Nardis 합주 Minor 7th Chord의 이해	곡의 Melody, Chord 연습 및 합주 Minor 7th Chord 연습	
12	Nardis 합주II Minor 7th Chord의 이해 II	곡의 Solo 연습 및 합주 Minor 7th Chord 연습(Tempo Up)	
13	Stella by starlight 합주 Dominant 7th Chord의 이해	곡의 Melody, Chord 연습 및 합주 Dominant 7th Chord 연습	
14	Stella by starlight 합주II Dominant 7th Chord의 이해 II	곡의 Solo 연습 및 합주 Dominant 7th Chord 연습(Tempo Up)	

7)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²⁰⁾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들 중 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알맞은 직업의 탐색 또는 선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서, 4개 계열 - 산업계열, 디자인계열, 서비스계열, 생활예술계열 - 의 15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는 원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타 학교 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마포구청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인근 중학교와 연계하여 맞춤형 특기적성 프로그램인“실용음악연주를 위한 방과후학교”를 개발·운영하여 인근 중학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은 [그림 4-4]로 정리될 수 있다.



[그림 4-4]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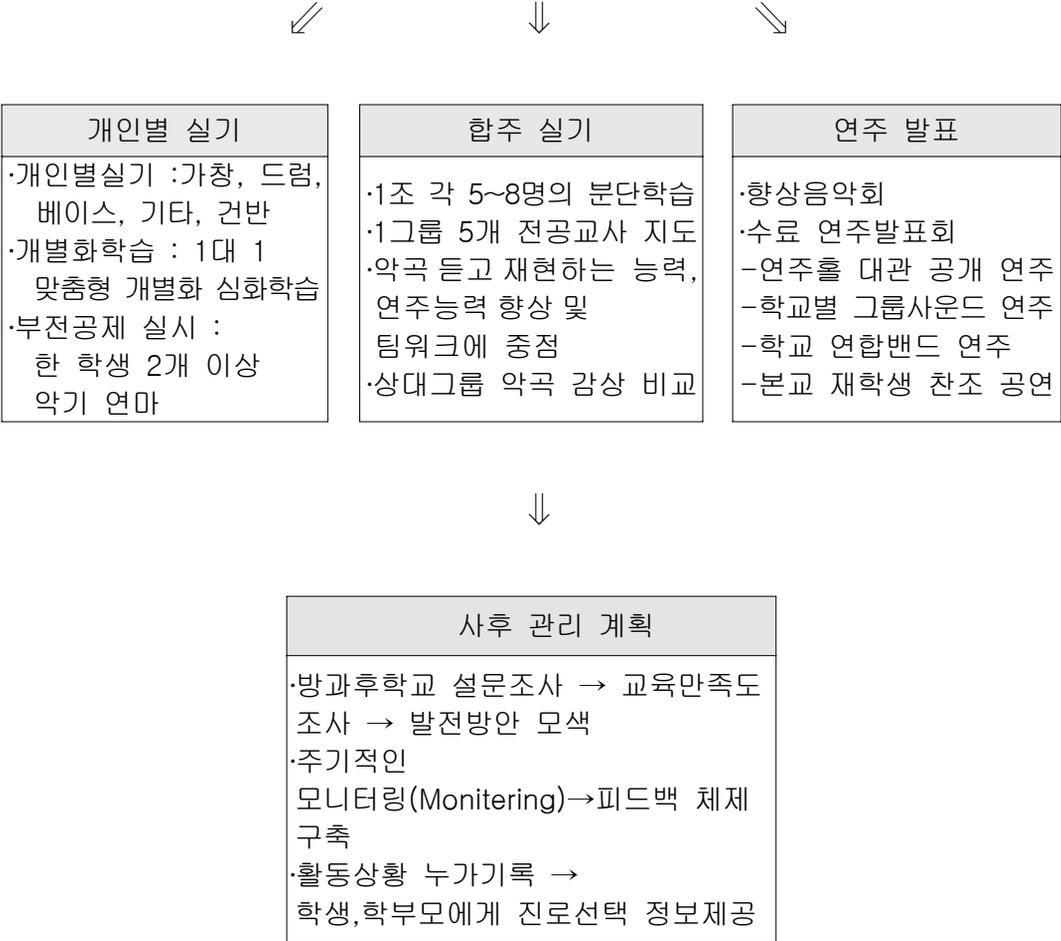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의 “실용음악 연주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20)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립학교.

*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ahyeon.sc.kr/main.html>

발휘하기 때문에 타 학교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우선, 타 학교들이 음악 실 내지는 일반 교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방음 시설이 완비된 전공실과 무대연주실, 합주실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하나의 그룹에 1명의 교사가 전체 학생을 지도하는 보통의 학교들과는 달리 하나의 그룹에 가창, 드럼, 전자 기타, 베이스 기타, 건반을 전공한 5명의 교사가 투입되어 악기별 개별화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때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재학생이 교사를 도와 학생들을 지도하는 자원 도우미로 활약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습 지도 체계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4-5]와 같다.

실용음악연주 분야별 지도 계획



[그림 4-5]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지도 체계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학교 선생님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학부모 등과 함께 하는 ‘실용음악연주 발표회’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 방과후학교는 중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음악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주를 완성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협동심, 인내심, 책임감 등의 인성적 덕목이 함양되었고, 발표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성취감과 자신감,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특히 학교 간 연계로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를 실현할 수 있었고, 지역주민들을 초대한 발표회는 대민 봉사활동의 장으

로서도 활용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효과에 대하여 참여한 학생들 역시 만족감을 드러내었는데, 2007학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 전반에 98%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소질·적성 및 진로 탐색에 매우 도움을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현황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은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가입된 약 35개의 수련시설들²¹⁾을 중심으로 전화를 통한 면담을 실시하여 각 수련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용음악과 관련된 동아리의 운영 실태와 학교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 CA 수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수련시설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들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1)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수련시설들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참여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²²⁾,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같은 자치활동,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장려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35개 청소년수련시설들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 동아리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약 25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실용음악과 관련된 동아리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밴드 동아리이지만 아카펠라 그룹과 같은 보컬 동아리도 운영되고 있다(<표 4-6>²³⁾).

21) 시립청소년수련관 20곳, 구립 청소년수련관 10곳, 청소년문화의집 5곳

*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 <http://www.youthcenter.co.kr>

22) 서울특별시립 은평청소년수련관 설립목적 <http://www.woori1318.or.kr/introduction/outline.php>

23) 담당자와 전화 연결이 어려웠던 수련시설은 제외된 결과이다.

<표 4-6> 청소년수련시설의 실용음악 동아리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개수	청소년수련시설	개수
은평청소년수련관	15	마포청소년수련관	3
화곡청소년수련관	2	중구청소년수련관	1
신월청소년문화센터	7	성북청소년수련관	4
목동청소년수련관	7	강북청소년수련관	6
보라매청소년수련관	8	쌍문동청소년랜드	2
방배유스센터	2	쌍문동청소년문화의 집	1
구로청소년수련관	3	창동청소년문화의 집	1
금천청소년수련관	2	노원청소년수련관	2
역삼청소년수련관	4	망우청소년수련관	8
수서청소년수련관	7	중랑청소년수련관	3
송파청소년수련관	6	동대문청소년수련관	1
광진청소년수련관	14	성동청소년수련관	10
성동청소년문화의 집	2		

이들은 학교 친구끼리, 혹은 인터넷에서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한 다음 해당 지역의 수련시설에 동아리로 등록한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 동아리들을 위하여 연습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수련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악기 및 부대 장치들을 대여해주고 있다.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연 1~4회 정도 개최하는 발표회뿐만 아니라 대외 행사나 축제, 대회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수련시설에 따라서는 외부 실기 강사의 수업을 정기적, 혹은 방학 기간에 집중하여 아카데미를 여는 형식으로 지원해 주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또한 동아리 회의나 모임, 그리고 간식 등을 지원해주기도 한다([그림 4-6]).



[그림 4-6] 청소년수련시설의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한편, 해당 구청이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련시설도 있었다.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은 수련시설에서 지원하여 선정된 동아리들에게 연간 약 1,000,0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실용음악과 관련된 동아리 중에서는 9개 수련시설의 총 39개 동아리가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다. 특히 은평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 사업에 선정된 해당 지역의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1달에 1번 지역케이블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학교와 연계한 계발활동(CA) 수업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학교와 연계하여 계발활동 수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는 매년 3월 초에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강사를 파견하거나 수업 장소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용음악과 관련된 계발활동 수업은 총 35개 수련시설 중 12개 수련시설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동아리가 밴드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계발활동 수업은 드럼반, 기타반, 보컬반 등과 같이 개별 악기를 위한 수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이 내용은 <표 4-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7> 청소년수련시설의 실용음악 관련 계발활동 수업 지원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종류	청소년수련시설	종류
광진청소년수련관	보컬밴드반 드럼반	금천청소년수련관	드럼반 보컬반
동대문청소년수련관	밴드반	쌍문동청소년랜드	밴드반
쌍문동청소년문화의 집	보컬반 밴드반	서울청소년수련관	보컬반 드럼반 일렉기타반
성동청소년문화의 집	기타반 보컬반	수서청소년수련관	밴드반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드럼반	역삼청소년수련관	드럼반 보컬반
은평청소년수련관	드럼반 일렉기타반	중랑청소년수련관	드럼반

2.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분석

현재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용음악 교육 실태와 현장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발 활동이나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실용음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설문 조사의 내용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배경변인,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효과, 그리고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표 4-8>과 같다.

<표 4-8> 설문지 내용 구성

영역	문항 내용	
	교사용	학생용
I. 배경 변인	1. 지역	1. 지역
	2. 학교 유형	2. 학교 유형
	-	3. 학년
	-	4. 성별
II.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1. 운영 방식	1. 담당 파트
	2. 프로그램명	2. 악기 소유 상태
	3. 실시 횟수	3. 악기 교육의 경험
	4. 실시 시간	4. 연습 시간
	5. 참여 학생 수	-
	6. 악기별 참여 학생 수	-
	7. 보유하고 있는 악기	-
	8. 실시 장소	-
	9. 담당 교사의 소속	-
	10. 담당 교사의 수	-
	11.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5.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12.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6.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13. 추천 연주곡	7. 추천 연주곡

나. 설문 조사의 대상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중·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선 방식으로 표집을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통계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전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수조차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설문 조사를 위한 대상 표집은 우선 각 시·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는 학교들의 목록을 조사하고, 그 학교들 중에서 무선 방식을 사용하여 실용음악 담당교사와 전화통화를 한 후, 설문지에 충실하게 답변할 의사가 있는 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사용 설문지는 전국적으로 선정된 60개 학교, 60명의 교사에게 배포하였다. 반면 학생용 설문지는 계발활동 수업이 한달에 1번 있는 경우가 많아, 선정된 학교 중 수도권 학교의 500명 학생에게 실시하여 설문지 회수가 비교적 용이하게 하였다. 회수율은 교사의 경우는 약 77%, 학생의 경우는 약 65%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4-9>와 같다.

<표 4-9> 설문 조사 표집 인원 및 회수율

구 분	표집 인원	회수(회수율)
교사	60명	46부 (76.7%)
학생	500명	327부 (65.4%)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의 배경 변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를 살펴보면, 약 58.7%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학교에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23.9%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17.4%는 도 단위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84.8%의 교사가 중학교에서, 4.3%의 교사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10.9%의 교사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10>과 같다.

<표 4-10> 교사 변인

	배경 변인	응답 빈도(백분율)
지역	서울특별시	27(58.7%)
	광역시	11(23.9%)
	도	8(17.4%)
	계	46(100%)
학교 유형	중학교	39(84.8%)
	인문계 고등학교	2(4.3%)
	전문계 고등학교	5(10.9%)
	계	46(100%)

다음은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배경 변인이다. 회수된 327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325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88.3%의 학생들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8.6%가 경기도, 3.1%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4.9%가 중학생, 8.3%가 인문계 고등학생, 6.8%가 전문계 고등학생이었고, 남녀 성비는 남학생이 52.3%, 여학생이 47.7%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방과후학교나 계발활동의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우거나 담당하고 있는 악기로는 드럼이 39.3%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타(24.0%), 가창(14.2%), 베이스(11.7%), 건반(10.5%), 작곡(0.3%)의 순으로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거나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4-11>과 같다.

<표 4-11> 학생 변인

	배경 변인	응답 빈도(백분율)
지역	서울특별시	287(88.3%)
	경기도	28(8.6%)
	인천광역시	10(3.1%)
	계	325(100%)
학교 유형	중학교	276(84.9%)
	인문계 고등학교	27(8.3%)
	전문계 고등학교	22(6.8%)
	계	325(100%)
성별	남	170(52.3%)
	여	155(47.7%)
	계	325(100%)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서 연주하는 악기 (혹은 담당하는 파트)	가창	46(14.2%)
	건반	34(10.5%)
	기타	78(24.0%)
	베이스	38(11.7%)
	드럼	128(39.3%)
	작곡	1(0.3%)
	계	325(100%)

다.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 운영 실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운영 방식, 운영 시간 및 장소, 악기 상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지도교사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운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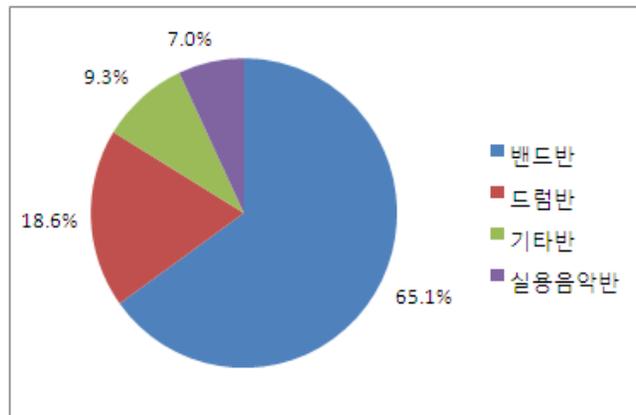
우선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고등학교에서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은 정규 음악시간보다는 방과후학교나 계발활동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59.1%), 계발활동 중 동아리로서 운영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8.2%, 계발활동 중 부서활동으로 운영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3%로 나타났다. 몇몇의 교사들은 이들 중 두 가지 이상의 방식 - 방과후학교와 동아리, 방과후학교와 부서활동, 동아리와 부서활동 - 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가지 방식 모두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도 6.8%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4-12>에 제시하였다.

<표 4-12>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식

구 분	응답 빈도(백분율)
방과후학교	26(59.1%)
동아리	8(18.2%)
부서활동	1(2.3%)
방과후학교 + 동아리	3(6.8%)
방과후학교 + 부서활동	1(2.3%)
동아리 + 부서활동	2(4.5%)
방과후학교 + 동아리 + 부서활동	3(6.8%)
계	44(100%)

② 프로그램의 종류

방과후학교나 계발활동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알아보았는데, 밴드반이 6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때 밴드반은 ‘보컬밴드’, ‘락밴드’, ‘그룹사운드’ 등의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드반 다음으로는 드럼반이 18.6%, 기타반이 9.3%, 실용음악반이 7.0%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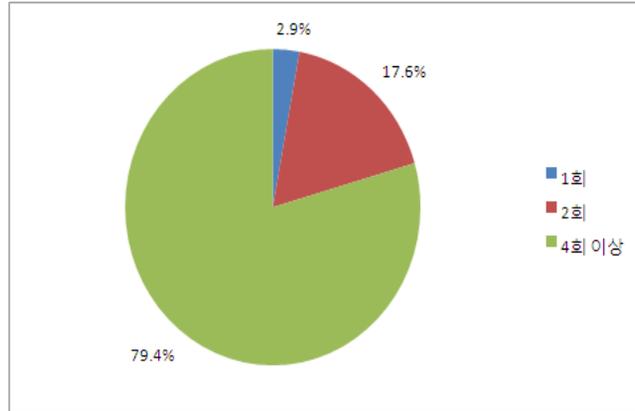


[그림 4-7]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종류

③ 운영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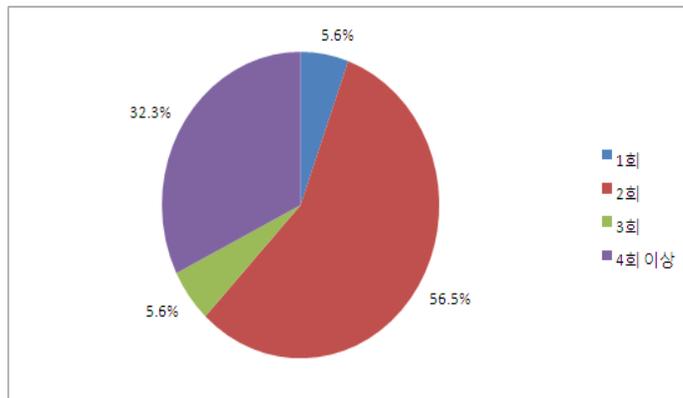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은 그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방과후학교의 경우에는 [그림 4-8]에서 나타나듯이 79.5%의 교사가 1달에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1.8%의 교사가 매회 2시간 정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과후학교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의 경우 1달에 8시간 이상 실시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림 4-8] 방과후학교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실시 횟수(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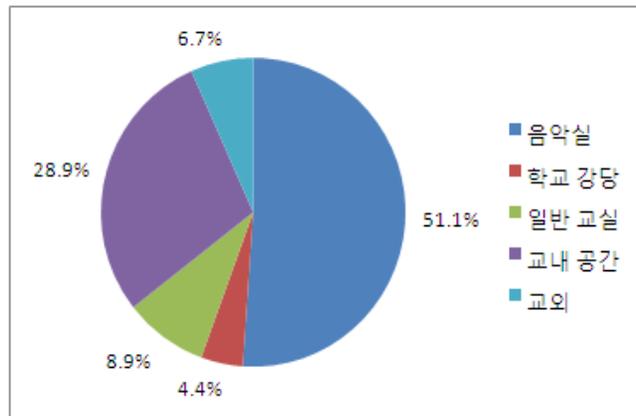
반면, 계발활동(동아리 및 부서활동)의 경우에는 56.5%의 교사가 1달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그림 4-9]), 매회 2시간 정도 진행된다는 교사가 50%로 나타났다. 이는 계발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1달에 4시간 정도 실시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결과는 토요일휴무일이 아닌 토요일을 활용하여 전일제 계발활동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 계발활동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실시 횟수(1개월)

④ 운영 장소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음악실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5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음악실, 강당, 일반 교실을 제외한 교내 공간(28.9%), 일반 교실(8.9%), 교외(6.7%), 학교 강당(4.4%)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0]). 음악실, 강당, 일반 교실을 제외한 교내 공간으로는 시청각실이나 음악준비실 등이 있었고, 교외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회를 활용하거나 음악학원에 위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실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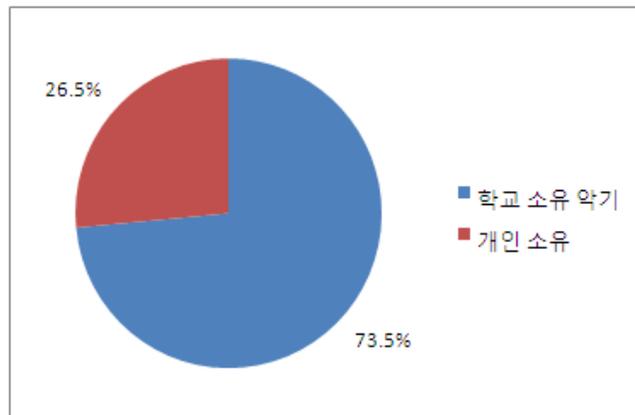
⑤ 악기 보유 상태

대부분의 학교들은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등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악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건반, 베이스, 드럼은 학교당 1대씩, 기타는 학교당 4대씩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그 편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 예로 기타의 경우, 14곳의 학교가 단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에 반해서 40대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도 있었다. 학교당 평균적인 악기 보유 개수를 정리하면 <표 4-13>과 같다. 이러한 악기 외에도 드럼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연습용 드럼패드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표 4-13> 학교의 악기 보유 개수

구 분	평 균
건반	1.53
기타	4.78
베이스	1.33
드럼	1.29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에서는 최소한의 악기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중 73.5%는 학교 소유의 악기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나머지 26.5%의 학생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악기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11]).



[그림 4-11] 악기의 소유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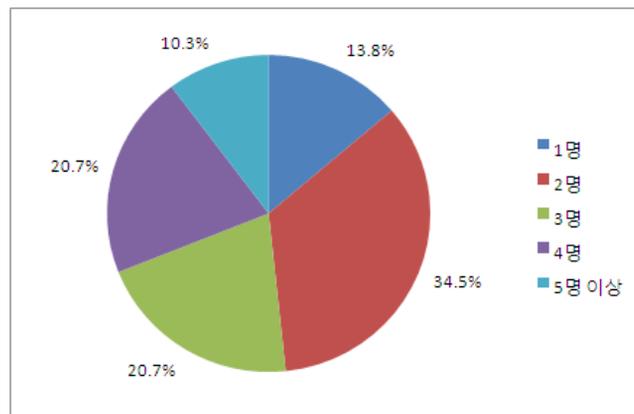
⑥ 참여 학생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수를 알아본 결과, 1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11~20명(55.6%), 6~10명(31.1%), 21~30명(6.7%), 40명 이상(4.4%), 5명 이하(2.2%)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 10~15명 내외가 하나의 학급을 구성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14>에 제시하였다.

<표 4-14>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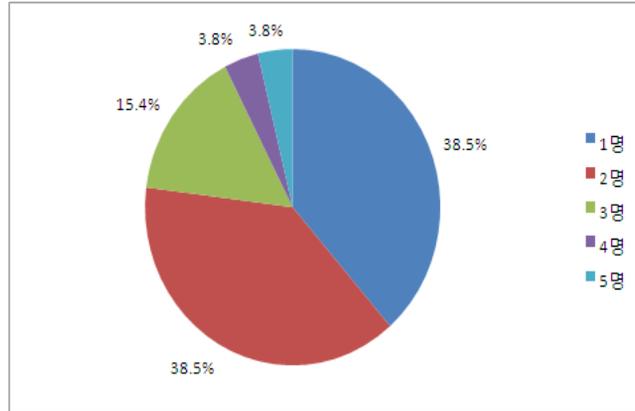
구 분	선택(백분율)
5명 이하	1(2.2%)
6~10명	14(31.1%)
11~20명	25(55.6%)
21~30명	3(6.7%)
31~40명	0(0%)
40명 이상	2(4.4%)
계	45(100%)

특히, 밴드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담당하는 악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조사해 보았다. 우선 가창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은 적게는 1명부터 많게는 8명까지였는데, [그림 4-12]을 참고하면 대부분의 경우 2~4명 정도의 학생이 가창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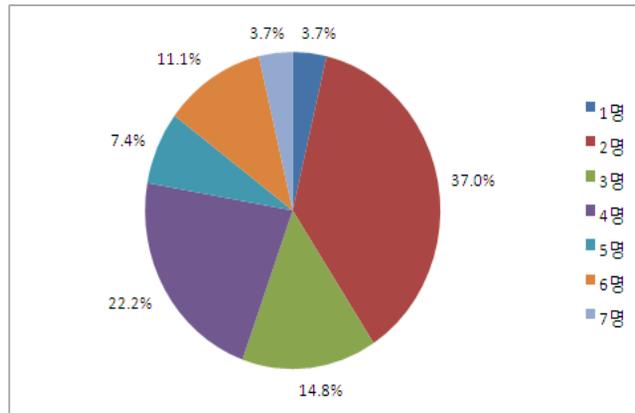
[그림 4-12] 가창을 담당하는 학생 수

건반 연주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은 학교에 따라 1명에서 5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4-13]을 참고하면 1명 또는 2명인 경우가 전체의 77%에 해당될 만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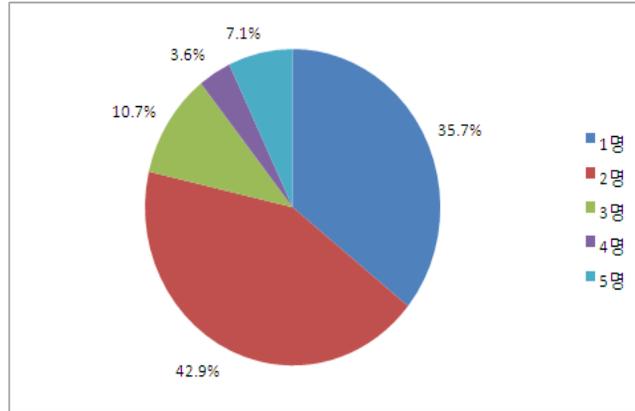
[그림 4-13] 건반을 담당하는 학생 수

기타 연주를 담당하는 학생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4명의 학생이 기타를 담당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밴드에서 기타를 담당하는 학생은 2~4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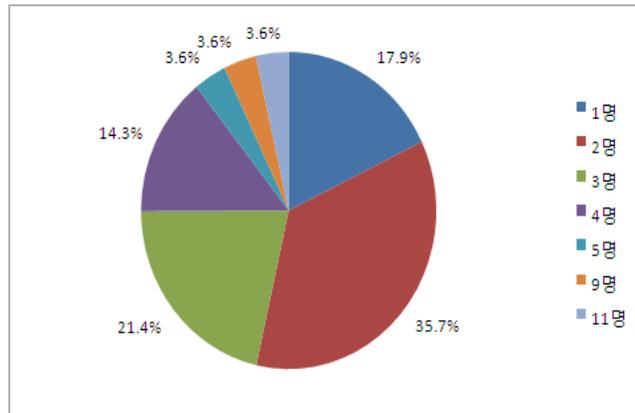
[그림 4-14] 기타를 담당하는 학생 수

베이스 연주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은 학교에 따라 1명에서 5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4-15]을 참고하면 1명 또는 2명인 경우가 전체의 78%를 넘을 만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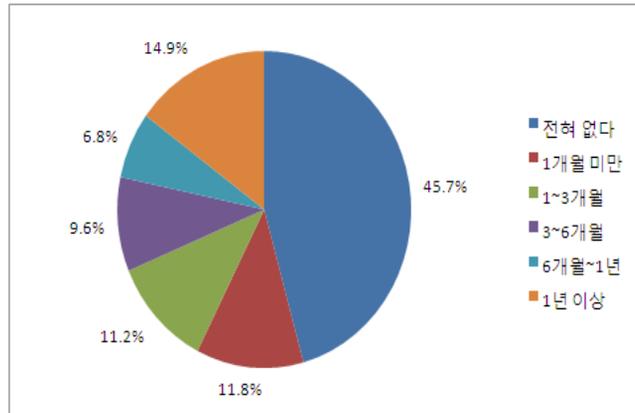
[그림 4-15] 베이스를 담당하는 학생 수

드럼 연주를 담당하는 학생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1명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명 이상의 학생이 기타를 담당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11%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밴드에서 드럼을 담당하는 학생은 1~4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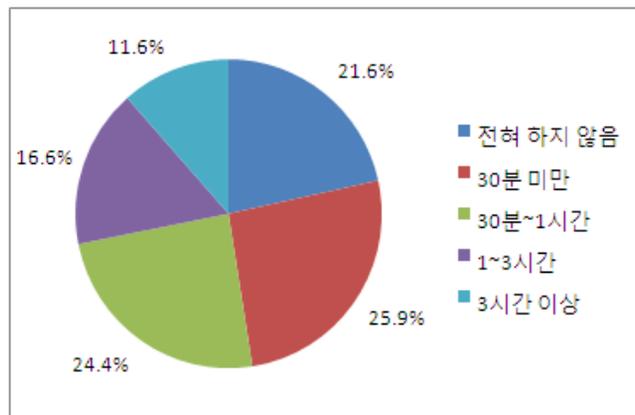
[그림 4-16] 드럼을 담당하는 학생 수

다음으로 학생들이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당시의 악기 교육 경험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해당 악기를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4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년 이상(14.9%), 1개월 미만(11.8%), 1~3개월(11.2%), 3~6개월(9.6%), 6개월~1년(14.9%)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17]).



[그림 4-17] 학생의 악기 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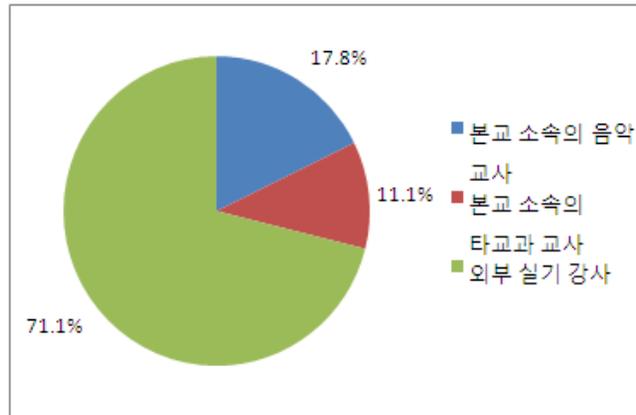
다음으로 학생들의 연습 시간을 알아보았는데,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중 약 78%는 수업 시간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9%의 학생이 일주일 동안 30분 미만을 연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4.4%의 학생이 일주일 동안 30분~1시간 정도 연습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지만 점심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틈틈이 연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18]).



[그림 4-18] 학생의 개별 연습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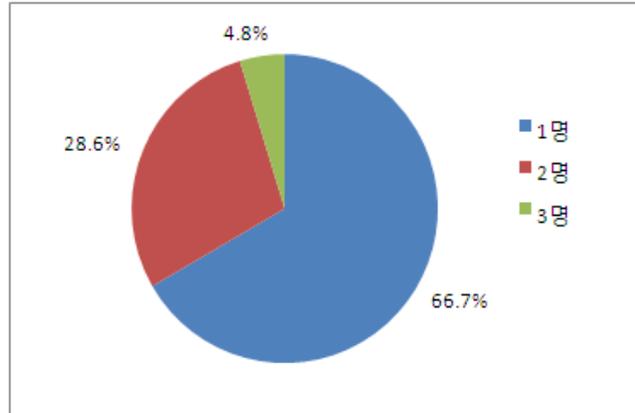
⑦ 지도 교사

마지막으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교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도교사의 대부분은 외부 실기 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71.1%). 음악 교사가 지도하는 경우는 17.8%였고, 타 교과 교사가 지도하는 경우도 11.1%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4-19]과 같다.



[그림 4-19] 지도교사의 소속

한편, 하나의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교사의 수는 1명(66.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0]). 이와 같은 결과는 밴드반이 가장 많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밴드에 포함되는 악기들의 개별 교육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4-20] 지도교사의 수

2)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6개의 항목들로 제시하고 그 각각을 교사와 학생에게 5점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음, 5=매우 동의함)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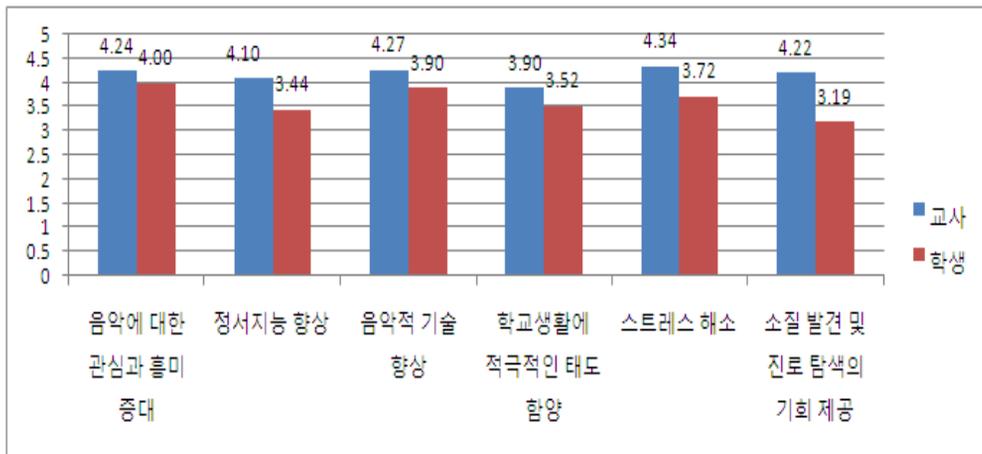
그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 간에 조금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그림 4-21]). 우선, 교사는 ‘스트레스 해소’를 가장 큰 효과로 손꼽았으며(평균=4.34), 그 다음으로 악기 연주 능력과 같은 ‘음악적 기술 향상(4.27)’,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 증대(4.24)’, ‘소질 발견 및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4.22)’, ‘정서지능 향상(4.10)’, ‘학교생활에 적극적인 태도 함양(3.90)’의 순으로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혔다.

반면,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 증대’를 가장 큰 효과로 보았고(평균=4.00), 그 다음으로 ‘음악적 기술 향상(3.90)’, ‘스트레스 해소(3.72)’, ‘학교생활에 적극적인 태도 함양(3.54)’, ‘정서지능 향상(3.44)’, ‘소질 발견 및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3.19)’의 순으로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학생에 비하여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교사와 학생 간에 항목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항목들이 5점 만점 중 평균 3점 이상의 점수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삶에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교사들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된다.’,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즐거워한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들 역시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새로운 취미 생활이 생겼다.’, ‘무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삶의 활력소가 된다.’ 등으로 밝혀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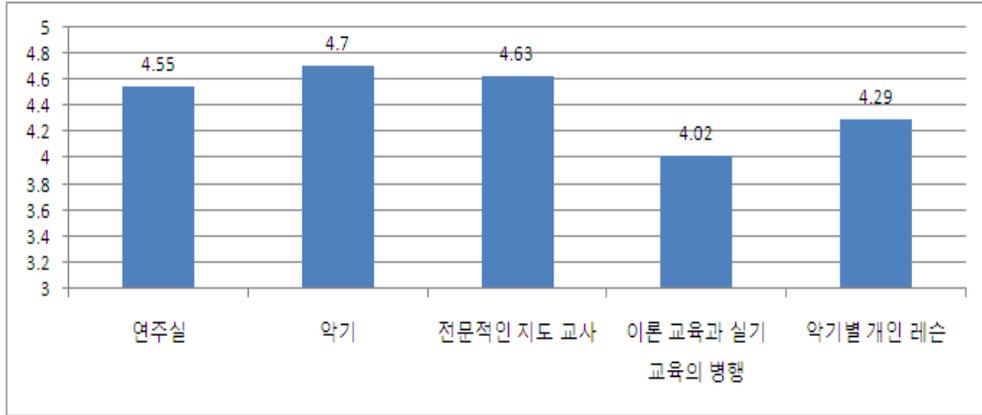


[그림 4-21]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3)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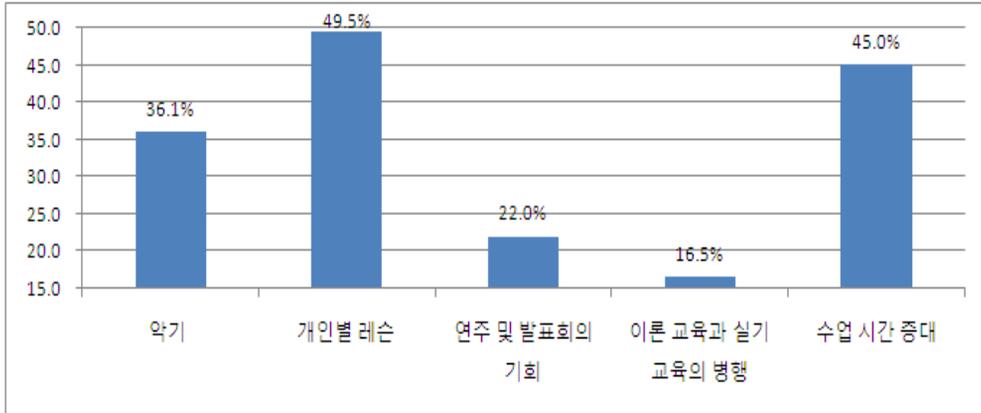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교사들에게 5가지의 항목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 정도를 5점 척도(1=전혀 필요하지 않음, 5=매우 필요함)에서 평가하도록 했다. 교사들은 ‘악기의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평균=4.70), 그 다음으로 ‘전문적인 지도교사(4.63)’, ‘연주실(4.55)’, ‘악기별 개인레슨(4.29)’,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의 병행(4.02)’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22]). 모든 항목이 5점 척도에서 평균 4점 이상을 기록한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시급하게 갖추어져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항목들 외에도 교사들은 기타 의견으로 ‘악보 자료의 확보’, ‘수업에 필

요한 소모품 확보’, ‘운영비 지원’, ‘지원시스템 구축’, ‘무대 설치 관련 실습 병행’, 그리고 ‘보다 많은 공연 참여의 기회’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22]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

한편, 학생들에게는 5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필요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림 4-2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인별 레슨이 이루어져야 한다.’에 응답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49.5%로 가장 많았고, ‘학교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수업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한다.(45%)’, ‘개인별 악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36.1%)’, ‘학기 당 1회 이상의 연주 및 발표회가 이루어져야 한다.(22.0%)’, ‘연주 실기 뿐 아니라 이론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16.5%)’의 순으로 그 필요성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4-23]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V. 미국과 영국의 학교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실태

- 1. 미국의 학교 실용음악 교육 실태**
 - 2. 영국의 학교 실용음악 교육 실태**
-
-

1. 미국의 학교 실용음악 교육 실태

미국의 음악교육은 1907년 창립된 미국 음악교육자 협회(MENC: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협회에는 현재 75,000명의 음악 교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60,000명의 후원자들을 가지고 있다. 전국적인 규모로 학회를 개최하며 출판, 실습 프로그램과 자료 제작을 통해 음악교사들을 교육하고 학교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실용음악 교육역시 전국 음악교육협회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데 재즈 교육과정은 미국을 대표하는 예술형식인 재즈의 이론과 실기 교육을 강조한다. 또한 클래식 악기로부터 전자 악기에 이르는 다양한 악기 편성과 다양한 음악 장르들을 제시한다.

재즈 교육과정의 목표는 유연성 개발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성 함양이다. 특히 한 음 변주에서 시작하는 기초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화성 지식을 요구하는 고급 단계까지 즉흥연주 교육이 중요시 된다.

MENC가 마련한 6 ~ 8학년 재즈수업을 위한 교사 가이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주제를 1~3주에 걸쳐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들로 보조할 수 있다: Garageband (Macintosh), Logic, Cakewalk, Acid (Windows), Band-in-a-Box (Windows, Macintosh) or CD-ROM program Rock, Rap n Roll (Windows, Macintosh).

<표 5-1> MENC 6 ~ 8학년 교사 가이드

음악가	곡 목	학습 내용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 에디 제퍼슨(Eddie Jefferson) 마커스 밀러(Marcus Miller)	So What So What So What	마일즈 데이비스가 고안한 재즈양식인 Cool Jazz의 특징과 요소들. 마일즈 데이비스의 미술작품과 음악작품의 연관성-Cool style 특징. 마일즈 데이비스곡의 다른 버전들 비교 (보컬과 베이스기타리스트). 즉흥 독주 부분 분석.
디지 길레피스(Dizzy Gillespie) 길레피스(D. Gillespie),	Manteca Salt Peanuts	한 작곡가의 두 작품 비교. 아프로-쿠바 양식과 재즈의 접목.

찰리 파커(Charlie Parker) 띠또 뿌엔페(Tito Puente)	Tito's Theme	재즈에 사용된 타악기들. 비밥 양식.
루이 암스트롱 (Louis Armstrong)	What Did I Do To Be So Black and Blue	음악에 내포된 사회적 배경 (인종주의). 가사 내용 분석(인권운동).
램버트(Lambert), 헨드릭스 앤 로스 (Hendricks and Ross)	Moanin'	Call and response의 사용. 가스펠 양식과의 연관성. 감정과 분위기의 특징. 블루스 양식.
엘라 피츠제럴드(Ella Fitzgerald with the Duke Ellington Orchestra)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 (The Duke Ellington Orchestra with Oscar Peterson) 데이브 브루벡 퀘텟 (Dave Brubeck Quartet)	Take the "A" Train Take the "A" Train Take Five	보컬의 악기사운드 모방 양식. 보컬과 기악독주 간 상호 영향. 박자의 이해(3박과 4박의 혼합, 5/4박자). 가사의 시각적 배경. 보컬 즉흥연주 분석. 즉흥독주의 다양한 양식들과 즉흥합주의 악기편성.
텔로니어스 몽크 (Thelonious Monk)	Misterioso	신비로운 음향의 요소들. 아티스트 네임, 패션과 이미지 메이킹. 아티스트의 성격과 음악의 양식간 연관성.
바비 맥퍼린(Bobby McFerrin)	There Ya Go	신체와 음성을 통한 다양한 밴드 악기 사운드 모방. 그룹 스테디: 맥퍼린 모방 양식으로 즉흥연주 실습. So What의 여러 버전들로 보컬과 신체의 타악기 효과를 사용한 편곡 실습.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 (The Duke Ellington Orchestra)	Dance of the Floreadores (Waltz of the Flowers)	왈츠의 변주 양식.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왈츠와 비교.
디저블 플래닛츠 (Digable Planets)	K.B.'s Alley	재즈와 힙합의 접목. 그룹 스테디: 팝송을 선택하여 재즈 양식으로 편곡 실습.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양식들의 사운드 믹싱 실습.

MENC의 추천음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5-2> MENC 추천 음반 목록

음악가	추천 음반 (발매 회사)	특 징
루이 암스트롱 (Louis Armstrong)	The Best of Louis Armstrong: The Hot Five and Seven Recordings (Columbia/Legacy)	1920년대에 나타난 최초의 재즈 아이콘인 루이 암스트롱의 음악
베니 굿맨 (Benny Goodman)	The Famous 1938 Carnegie Hall Jazz Concert (Columbia/Legacy)	빅밴드 스윙의 최고의 라이브 다큐멘터리
빌리 홀리데이 (Billie Holiday)	The Ultimate Collection (Hip-O)	재즈계 여왕의 25년간의 경력을 충망라한 음반
듀크 엘링턴 (Duke Ellington)	Never No Lament: The Blanton-Webster Band, 1940 - 42 (Bluebird/BMG)	불후의 명곡 "Take the 'A' Train"을 포함하여 재즈 작곡과 오케스트레이션의 명곡 선곡집
찰리 파커 (Charlie Parker)	Yardbird Suite: The Ultimate Charlie Parker Collection (Rhino).	비밥(Bebop)의 선구자가 꼽은 1940-1950년대 최고의 음반들
데이브 브루벡 (Dave Brubeck)	Time Out (Columbia)	클래식 음악의 영향을 받은 음반들
엘라 피츠제럴드 (Ella Fitzgerald)	Ella Fitzgerald Sings the Cole Porter Songbook (PolyGram)	재즈 보컬을 위한 선곡집
오넷 콜맨 (Ornette Coleman)	Free Jazz (Atlantic)	전통과 혁신을 모두 반영하는 1960년대 재즈 밴드 즉흥연주
스탠 게츠와 주앙 힐베르투 (Stan Getz and João Gilberto)	Getz/Gilberto (Verve)	라틴재즈의 정수인 브라질의 보사노바 (Bossa-nova) 솔로 음반
존 콜트레인 (John Coltrane)	A Love Supreme (Impulse)	최고의 테트닉을 사랑하는 소규모 그룹들의 명곡 모음
마일즈 데이비스 (Miles Davis)	In a Silent Way (Columbia)	1960년대 재즈밴드에 도입된 전자 악기들과 음악 소개
허비 행콕 (Herbie Hancock)	Head Hunters (Columbia)	펑크 비트를 사용한 1970년대 즉흥연주의 퓨전 사운드

윈튼 마살리스 (Wynton Marsalis)	Citi Movement (Columbia)	현대 재즈의 대변인이라 불리는 마살리스의 대표작
------------------------------	--------------------------	-------------------------------

MENC의 추천교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5-3> MENC 추천 교재 목록

제목 (출판사)	저 자	추천 학년
The Sound That Jazz Makes (Walker)	Carole Boston Weatherford	초등학교 1~4학년
Meet the Great Jazz Legends (Alfred)	Ronald McCurdy	초등학교 3~6학년
The History of Jazz (Chelsea House)	Sandy Asirvatham	초등학교 5학년 이상
Jazz, An American Saga (Henry Holt)	James Lincoln Collier	초등학교 6학년 이상
Jazz: The First Century	John Edward Hasse, ed.	중학교 3학년 이상

재즈 수업을 위한 MENC의 추천 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George Gershwin, DuBose Heyward, Dorothy Heyward, and Ira Gershwin, Summertime, New York: Simon & Schuster Books for Young Readers, 1999.

Chris Raschka, Charlie Parker Played Be-Bop, New York: Orchard, 1992.

Roxanne Orgill, & L. Jenkins, If I Only Had a Horn, Young Louis Armstro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97.

Ron Frankl, Miles Davis,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96.

P. McKissack, & F. McKissack, Louis Armstrong, Jazz Musician. Berkeley Heights, NJ: Enslow Publishers, 2001.

Adam Woog, The Importance of Louis Armstrong, San Diego: Lucent Books, 1995.

Bud Kiment, Ella Fitzgerald, Singer, Philadelphia, Chelsea House, 1988.

Ron Frankl, Duke Ellington, Bandleader and Composer, New York: Chelsea House, 1988.

Chris Raschka, Mysterious Thelonious, New York: Orchard Books, 1997.

팝음악은 폭력성, 음란성, 정치적 이슈 등에 민감한 주제들을 선별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MENC의 팝음악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5-4> MENC의 팝음악 교육과정

음악가	학 습 내 용
콜드 플레이(Cold play)	록밴드의 특성들, 특히 창조성에 연관된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어 밴드 멤버들의 성격, 경험, 관계,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음악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	로큰롤 장르의 특징. 감정과 느낌을 일으키는 음악적 도구와 미학적 특성 분석. 적절한 음악 용어들의 사용하여 "Blinded by the Light"의 작곡, 편곡, 연주 분석. Manfred Man의 편곡 버전과 비교. "Devil & Dust"의 메타포와 해석.
펄 잼 (Pearl Jam)	장르의 이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최신 팝송을 두 곡 선택해서 다른 장르들의 특징들을 비교하게 한다. 가사에 나타난 시대 상황, 창조성, 표현성 이해: 펄 잼의 곡들의 가사를 의역해보고 표현력 있게 발표하도록 시킨다. 작품들 간의 영향력 이해: 기존의 작품들은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영감이 된다. 기존의 작품들을 현재의 이슈에 맞추어 새롭게 개사해 서 연주해 보게 한다.
더 후	그룹 더 후의 악기편성과 사운드에 나타나는 개별 악기들의 역할

(The Who)	<p>이해.</p> <p>개별 성부 작곡법 분석.</p> <p>팝송의 형식, 악기 편성, 가사에 나타나는 사회적 배경 이해.</p> <p>“Tommy”의 서주에 나타난 오페라적인 특성 이해.</p>
아이스 티 (Ice-T)	<p>랩의 역사, 사회적 배경(다이아몬드 무역에 얽힌 불공정 거래와 빈곤), 음악적 요소 이해.</p> <p>"Power" 분석: 가사내용, 운율 구조, 선율과 리듬 분석.</p> <p>자서전적인 기술의 위력과 자기표현의 도구로서의 랩의 이해: 자서전적인 랩송을 작곡하고 연주해 보게 한다.</p>
헤비메탈	<p>장르의 기원과 시대적 배경 이해.</p> <p>Hair Metal, Teeth Metal 등 메탈의 서브 장르 이해.</p> <p>음악과 타예술의 검열제도 이해: 예술적인 건전성의 기준에 대해 토론하고 건전치 못한 사례들을 들게 한다.</p> <p>KISS 등 메탈 밴드들의 이미지 분석: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메탈 밴드 의상을 디자인 해보도록 한다.</p> <p>Black Sabbath의 곡 분석.</p> <p>Twisted Sister의 “We’re Not Gonna Take It”의 합창부분을 불러보고 다른 버전으로 작곡하고 연주해 본다. 현장에서 청중의 반응을 체험해보게 한다.</p>
카니예 웨스트 (Kanye West)	<p>카니예 웨스트의 전기 이해.</p> <p>카니예 웨스트의 랩 양식: “Through the Wire” 양식으로 랩송과 비트를 작곡하고 연주해본다.</p>
제이미 폭스(Jamie Foxx)	<p>폭스의 경력: 교회 성가대 지휘자이자 클래식 음악가로서의 배경 대표적인 교회음악인 마틴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형식과 텍스처 분석.</p> <p>클래식 피아노와 재즈 피아노 양식 비교, 장단조 음계와 블루스 음계 비교.</p> <p>블루스, 시, 할렘 르네상스에 대해 이해: 12마디의 블루스 형식을 익힌다. 시인이자 작사가인 Langston Hughes의 “The Weary Blues”를 낭송해 본다.</p>

가. 리오 아메리카노 고등학교 (Rio Americano High School²⁴⁾)

1) 학교 소개 및 교육과정

음악수업은 디렉터 한명과 두 명의 교사가 담당하는데, 이들은 모두 즉흥연주와 작곡 활동을 하고 있는 재즈 음악가로서 클래식, 팝, 재즈의 교육과 연주 경험이 풍부하다.

음악실은 여러 그룹들이 동시에 리허설을 할 수 있도록 전자 악기들과 드럼을 여러 세트 구비하고 있다. 또한 미디(MIDI) 워크스테이션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교사가 미디사용법을 수업하기도 한다.

현재 학생 정원 1800명중 180명이 음악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있다. 음악이론 수업은 클래식과 재즈(팝)를 모두 포함한다. 연주 수업으로 오케스트라, 콘서트 밴드, 재즈 밴드 수업이 있는데 90명 정도가 재즈 밴드 수업에 참여한다. 레벨에 따라 콘서트 밴드는 네 그룹으로, 재즈 밴드는 세 그룹으로 나뉜다.

즉흥연주법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는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고 있다. 즉흥연주는 독주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자신감 있게 무엇이든 직접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재즈 밴드 교육과정은 독주, 합주, 편곡법, 즉흥연주, 재즈의 이론/문헌/양식, 분석과 감상, 재즈 프레이징, 악기별 테크닉을 포함한다.

2) 연주 활동

밴드는 봄, 가을, 겨울의 정기 연주회가 있고 연 2회 자선기금마련 행사 등 매년 학교 연주에 6-9회, 외부 재즈 페스티벌 등에 3-6회 참여한다.

소규모 앙상블은 음악 특기자로 선정된 학생들이 구성하는 그룹들로서 매년 5개 이상의 학교 정기 행사들과 외부 행사들에서 연주한다. 악기편성과 레퍼토리는 구성 멤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팝 장르가 주를 이룬다.

현재 소규모 앙상블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30명 내외이며 악기 구성은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 가창, 관악기 연주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악기를 다루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가창은 모두 악기 연주에 능숙하다.

24) 4540 American River Drive
Sacramento, CA 95864

이 밴드들을 위한 고정된 교육과정은 없고 학교는 학생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서 레슨을 지원한다.

1) 2007년 9월 ~ 2008년 8월 합주 레파토리

AM Jazz Band – Folsom Jazz Festival

Basie Boogie (5:34)²⁵⁾
Choro Dancado (10:16)
RDNZL (8:32)
Sight Reading Selection (3:32)

Small Ensemble Night 1 (10월3일)

I Want It That Way (3:27)
Improv. (5:38)
Mr Furray (2:26)
Turn Me On (3:19)
Techno MIDI (2:47)
Tribute (3:56)
Homecoming Invitation (2:11)
It Is You (1:32)
Selected Bricks From The Wall (7:01)
Solo (4:50)
Message In A Bottle (3:05)
Can't Stand Losing You (2:46)
My Pretty Pony (2:08)
Flute Solo (1:51)
Mr Big Stuff (7:00)
SNL Closing (0:38)

25) 연주시간

Small Ensemble Night 2 (2월13일)

Cakewalkin' Baby Blues (4:17)
Waltz in C# Minor (4:49)
Peaches En Regalia (3:20)
Dreaming With a Broken Heart (3:56)
Small Ensemble Theme Song (4:49)
Snakes on a Plane (5:17)
Medley- Take the A Train, Autumn Moonlight
The Nearness of You (10:46)
Chariots of Fire (2:33)
New Soul (3:27)
VooDoo Chile (4:06)
Improv. (2:37)
Crazy Race (3:13)
Etude #12 (1:43)
Canon (Telemann) (2:19)
Soul Bossa Nova (5:34)
The Wind Cries Mary (4:11)
Wish Your Were Here (4:27)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5:27)
SNL Ending (1:28)

2) 2006년 9월 ~ 2007년 8월 합주 레파토리

AM Jazz Band

King Kong (7:00)
Spectrum (6:07)
Diminuendo and Crescendo in Blue (11:35)
Monsoon (8:25)
C Jam Blues (4:54)
Sophisticated Lady (5:30)

2007 Reno Jazz Festival

- Stolen Moments (7:50)
- Black and Tan Fantasy (4:15)
- Nica's Dream (5:59)
- Yardbird Suite (5:01)
- Road Song (4:43)
- R U Chicken (6:35)
- Spectrum (6:47)
- Sophisticated Lady (3:58)
- Diminuendo and Crescendo in Blue (8:58)
- All Blues (7:02)
- Wave (6:16)
- Caravan (6:28)

3) 2006년 이전의 녹음 곡 레파토리

Ensemble

- Emilie's Tears (2:25)
- John R & Kelly (2:25)
- Leaving Ketterman (2:25)
- Percussion Ensemble (2:25)
- Ready Teddy (1:50)
- The Longest Time (2:18)
- The Swiss Shepherd (2:08)

AM Jazz Band

- Across the Track (3:33)
- Boy Meets Horn (4:49)
- Idiom 59 Part 2 (5:25)
- Delta City Blues (7:09)
- The Jazz Garden (8:47)

Blue Cellophane (3:28)
It Don't Mean a Thing (5:08)
The Mooche (3:38)

Honors Concert Band

Havendance (5:38)
Fate of the Gods (9:55)
At a Dixieland Jazz Funeral (3:16)
Jasmine Flower (3:10)
King Cotton (2:51)
Pirates of the Carribean (4.46)
Cloudburst (9:05)
Star Wars (6:57)
Stars and Stripes Forever (3:48)
Tranzendental Danse of Joi (5:32)

PM Jazz Band

Idiom 59 Part 2 (5:57)
Lucky So and So (4:07)
Sophisticated Lady (4.45)



[그림 5-1] 리오 아메리카노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주활동 장면

나. 로얄 오크 고등학교 (Royal Oak High School²⁶⁾)

1) 학교 소개 및 교육과정

1927년 개교한 돈데로 고등학교(Dondero High School)는 한때 2000명에 달했던 학생 수가 이 지역의 전반적인 인구감소로 3분의1 이하로 줄자 2006년 로얄 오크 고등학교로 합병되었다. 현재 로얄 오크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1800명이며 심화된 음악교육 교육과정, 활발한 밴드 활동, 팝 콘서트 (Rox Concert)로 유명하다.

세 명의 음악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마칭밴드(Marching band), 콘서트 밴드(Concert band), 심포니 밴드(Symphony band), 재즈밴드(Jazz band), 관악 합주(Wind ensemble), 합창단(Concert choir)은 각종 밴드 대회 수상 경력이 있고 지역 축제들을 위한 초청 공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정기 연주회 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 10회 이상) 오디션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위한 수준 높은 소규모 앙상블 훈련 체계도 갖추어져 있다.

총 학생 수 1800여 명 중에 합창단원 200여명, 기악 (클래식 악기) 교습 학생 50여명인데 비해 교내 팝 밴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10-25명이다.

일반적인 학교들의 팝 페스티벌이나 텔런트 쇼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반해, 1960년대 후반 시작된 돈데로 팝 콘서트는 원래 합창 교육과정의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것인데, 매년 그 규모가 커져가면서 학교와 지역 사회의 중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음악 교사 겸 합창 지휘자 릭 하르초(Rick Hartsoe)가 이 팝 콘서트의 총감독을 맡게 되면서 35년간 체계화된 계획과 지도하에 8-10주 동안 수업 시간과 방과 후 활동 시간들을 활용한 집중적인 연습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며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95년부터는 팝 콘서트들의 공연 음반이 제작, 판매되었고 매년 팝 콘서트를 즐기기 위해 800-900명의 관객이 모여들었다.

전자 악기 레슨이나 소규모 팝 밴드 (일명 Garage band) 활동이 학교보다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음악 교사 개인의 팝 음악에 대한 취향이나 지도 능력이 학교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행사의 의미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늘 즐겨 듣는 음악을 원곡 음반의 사운드에 가까운 높은 수준으로 연주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연주 곡목은 물론 연주 버전도 신중하게 선택한다. 1960년대 말에는 팝 음악의 출판악보를 활용하거나 음반을 듣고 사보하거나 편곡하여 (예를 들어 "Cherish", "What The World Needs

26) 1500 Lexington Blvd.
Royal Oak, Michigan 48073

Now", "Windy") 사용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원곡의 오리지널 사운드를 재현하는 데 편곡이 효과적이지 못 하다고 판단되어 블러드(Blood), 스웨트앤티어즈(Sweat and Tears), 피프스 디멘션(Fifth Dimension)와 같은 밴드들의 음악을 직접 듣고 따라 하는 방법을 도입하였고 여기에 익숙해지자 보스톤(Boston), 시카고(Chicago), E.L.O., 퀸(Queen)(예를 들어 "Somebody to love", "Bohemian Rhapsody")과 같은 밴드들의 좀 더 어려운 곡들도 레퍼토리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레퍼토리 선정에는 가수이자 베이스 연주자였던 단 팔머(Dan Palmer)의 공헌이 컸는데 그는 졸업 후에도 30년 간 매년의 팝 음악 차트나 원곡 음반에 가까운 버전들을 수집하고 제공하였다.

원곡을 직접 들으며 익히는 방법 외에 정확한 음표가 기록된 악보 (예를 들어 기타 교재나 매거진에 수록된 록 음악 악보)도 보조적으로 활용했다. 리허설에 악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음가와 음표들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원곡의 사운드에 가깝고 정확하게 기보된 악보 버전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악보와 편성을 위해서는 음악 교사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고, 합창 리허설은 보통 두 명의 부 지휘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기타나 드럼의 악기 교습은 독학 (음반을 듣고 모방하는 방법)이나 개인 레슨(Sam Ash Music 또는 Guitar Center와 같은 음악사나 악기점을 통해 강사와 연결), 또는 친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7-18세 학생들의 록 밴드 악기 연주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연주 무대를 마련해 주는 사실 교습 기관들(예를 들어 www.schoolofrock.com 또는 <http://www.rockuniversity.org>)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영화 "School of Rock" 이 인기를 끌면서 이러한 교습 방식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악기 구입은 주로 부모의 지원이나 용돈으로 마련한다.

악기를 배우고 밴드를 결성하는 데는 개인적인 동기부여,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들과의 관계, 연주 무대가 가장 중요하고 주 1회 정도 리허설을 갖는다. 주된 리허설 장소로는 멤버들의 집으로서 차고 (Garage)나 지하 스튜디오를 이용한다. 연주 무대로는 카페나 지역 기관 (도서관이나 시청 야외무대), 축제, 파티 등이 있다.

학교에는 앰프 기타, 베이스 기타, 건반, 드럼, 가창과 추가적인 현악기, 관악기들이 풀 사운드로 연주할 때 개별 악기들이 충분한 음량과 밸런스를 만들 수 있는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강력한 음량을 내는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앞서 소개한 원곡 음반을 틀어 놓고 들으면서 동시에 연주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연주자들은 원곡 음반의 연주 음색을 인지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연주할 것을 목표로 한다.

각각의 연주자들이 원곡 음반의 연주 뿐 아니라 세부적인 사운드 특색까지도 그대로 재현할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연 무대에서의 사운드 시스템은 더더욱 중요한 요인이 된다.

팝 콘서트 초기에는 15채널(60여명의 합창단에 12채널, 악기 밴드와 키보드에 3채널)로 시작했다가 가창에 24채널을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드럼과 전자 악기들이 도입되면서 50개 이상의 채널을 사용하게 되면서 보다 전문화된 음향 테크놀로지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연주 장소의 음향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므로 최종 리허설들은 강당의 연주 무대에서 마이크, 스피커, 헤드폰(드럼) 장치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모니터링과 피드백 중심으로 한다.

2) 연주 활동

팝 콘서트는 매년 12월과 5월의 주요 정기 연주회들 사이 기간인 3월이나 4월에 열리므로 1월부터 리허설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에는 지역 페스티벌과 경연대회가 많이 열리므로 참여 학교들마다 오디션 준비로 바쁜 기간인데,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더 선호하고 동기부여가 확실한 팝 콘서트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3월에 걸쳐 열리는 팝 콘서트(Rox Concert)는 돈데로 고등학교 시기 의 유명했던 팝 콘서트 전통을 잇고 있는 중요 행사이다.

콘서트 곡목은 교사들이 다양한 악기와 가창으로 편성하여 20곡 정도를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 그룹 피프스 디멘션(Fifth Dimension)의 "Aquarius/Let The Sunshine"은 여러 해 동안 고정 레퍼토리로 연주되었다. 레퍼토리는 합창을 위한 10곡과 솔로(듀엣, 트리오, 소규모 록 밴드 포함)를 위한 10곡 정도로 나뉜다. 이 연주 곡목 들의 연주는 편곡(Arrangement)의 수준이 아니라 오리지널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Re-production)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 합창

합창에는 50-70명 정도 참여하고 오디션 없이 리허설들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 무대에 설 수 있다. 합창 리허설을 위해서는 정규 음악 수업 시간과 방과 후 활동시간을 할애한다. 반주를 맡은 기악 연주자들은 반주가 필요한 리허설들에 참여한다.

이 합창 리허설들에서는 주로 원곡 음반을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귀로 익혀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때는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서너 번 연주해 본 후 개별 성부나 섹션 단위로 부분 연습에 집중한다.

성부 구성이란 전통적인 합창단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4성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섹션 단위로 구성되고 원곡의 편성을 반영하여 주로 선율 성부와 장식 성부들로 구분된 편성을 말한다. 5인조 록 그룹 보스톤을 예로 들면 리드 가창 라인과 후렴구 라인 모두 선율 음역 안에 밀집되어 있는 곡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 "Foreplay/long time") 이러한 곡들은 남, 여 구분 없이 합

게 부르기에 좋고, 섹션 별로 남녀 간에 또는 솔로와 후렴구로 교대로 부르도록 편성하기도 했다. 또는 남학생들에게 선율을 맡기고 여학생들에게 선율을 넘어서는 고음역의 장식 라인을 맡기는 편성도 록음악 합창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두비 브라더스(Doobie Bros)의 "Black Water"와 퀸(Queen)의 "Bohemian Rhapsody"와 같은 곡들은 남성 중창에 이상적으로 적합한 음역을 지녔고 70년대 말부터 수년간 록 음악계의 독보적인 합창곡으로 불릴 만큼 팝 콘서트의 애창곡이 되었다.

② 합창 반주 밴드

합창을 반주하는 밴드 악기 연주자들은 오디션을 거쳐야 하는데, 이 밴드 리허설은 약 8주간 주 3회 (화, 수, 목요일 3-5시) 이루어진다. 콘서트 전 마지막 주는 주 5일 연습하고 마지막 며칠은 솔로 연주 밴드들을 중심으로 콘서트 장소인 강당에서 실전 세팅으로 장시간 집중 연습한다.

주 3회의 리허설 일정상 하루 세 곡을 연습하도록 계획되고 따라서 한 곡당 연습은 30분 정도이며 이 시간 동안 3-4회 전곡을 중단 없이 연주하기를 목표로 한다.

③ 솔로

솔로(듀엣, 록 밴드와 같은 소그룹 밴드 포함)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기악 연습은 보통 학교의 연습실, 강당, 합창실에서 이루어지지만 음량이 큰 록 밴드는 학생들이 장시간 연습할 수 있는 장소들에서 이루어지는 편이다. 주로 밴드 멤버들의 집(주로 차고)이나 음량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장소들을 택한다.

팝 콘서트 초기에는 전자 건반(신디사이저)들을 악기 대여점에서 대여해서 사용하다가 재정이 마련되어 학교 명의로 구입하였다. 학교의 그랜드 피아노도 앰프를 연결하여 팝 콘서트에 사용한다. 다른 전자 악기들은 모두 개인 소장 악기들이다. 오디션을 통과한 솔로 연주자들은 재능, 악기와 장비, 열정을 갖추고 있으며 오랫동안 원곡 음반을 듣고 따라서 연주하는데 익숙한 학생들이다.

솔로 곡목 선정은 G등급(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곡)으로 정하여 가사, 내용의 선정성이나 폭력성을 예방한다.

솔로 연주자들은 오디션 경쟁을 거쳐야 한다. 오디션을 위해 합창실에 사운드 시스템을 장치하고 합창단원들이 전원 모인 자리에서 모든 팀들이 연주를 선보인 후 합창단원들이 투표를 하고 최고 득점자들로 10팀 정도 선정한다. 대체로 경쟁이 치열한 편이고 같은 곡을 두 팀이 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 한 번 더 경쟁을 거쳐야 한다. 1등을 차지한 팀은 앙코르 곡을 연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통 두 곡씩 미리 준비해야 한다.

돈데로 팝 콘서트는 35년간 전통을 이어 오는 동안 매년 연주 수준이 매우 향상되어 왔다. 이는 어릴 때부터 이 지역 주요 행사였던 팝 콘서트를 관람해 왔던 학생들이 이 학교에 들어와 재학 중 매년 연주에 참여함으로써 탄탄한 실력을 쌓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학교에는 학교 합창단 활동을 하는 동시에 전자 악기도 능숙하게 연주할 줄 아는 학생들도 상당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초보자들로서 처음에는 청강으로 시작해서 몇 달 간의 리허설에 참석하면서 실력을 다지게 되고 공연을 통해 큰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팝 콘서트 참가자들 중에는 졸업 후에 보다 전문적으로 팝 밴드 활동을 하는 동문도 상당 수 있다.

리허설 중의 밴드 연습은 시간의 제한으로 개인 연습보다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이 동시에 합주함으로써 진행된다.

원곡 음반에 가까운 연주를 위해 백 후렴구가 필요하다면 합창단 단원들이 도와준다. 필요할 경우에는 클래식 악기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콘서트 한주 전부터 리허설에 합세한다.

초기에는 음악회 실황을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해서 배포했고 1995부터는 편집하여 CD로 출시, 판매하였다.

2005년 팝 콘서트 프로그램

- Heaven (Los Lonely Boys)
- Cold As Ice (Foreigner)
- Dust in the Wind (Kansas)
- Defying Gravity (Idinia Menzel)
- Baby, You Can Drive My Car (Beatles)
- Say It Ain't So (Weezer)
- You're My Best Friend (Queen)
- Sink Beneath the Line (Incubus)
- Broken Wings (Martina McBride)
- Already Gone (Eagles)
- Paperback Writer (Beatles)
- Last Nite (Strokes)

Don't Look Back (Boston)
Remember When it Rained (Josh Groban)
Burning Down the House (Talking Heads)
Runaway (Bon Jovi)
This Love (Maroon 5)
Take Me Out (Franz Ferdinand)
Carry On My Wayward Son (Kansas)
Aquarius/Let the Sunshine In (5th Dimension)

2005년 팝 콘서트 밴드 멤버 구성

드럼: 5명
전자 기타: 16명
어쿠스틱 기타: 2명
베이스: 3명
키보드: 3명
어쿠스틱 피아노: 2명
오르간: 1명
트럼펫: 2명
트롬본: 2명
플루트: 1명
바이올린: 2명
타악기: Cowbell(1명), Flexitone(1명), Congas 또는 Bell Kit(1명), Congas (1명)

다. 성 마이클-알베르빌 고등학교(St. Michael-Albertville High School²⁷⁾)

1) 학교 소개

총 1200명의 학생들이 음악이론 수업과 관악 합주(Wind Ensemble), 콘서트 밴드(Concert Band), 콘서트 합창단(Concert Choir), 디바 합창단(Diva Choir), Knight's Chorus, Freshmen Women's Choir, Garage Band 101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로 오디션으로 선발하는 전문 소규모 합창 클럽들 (Chamber Singers, Sirens)이 있다. 현재 오케스트라 구성을 계획 중이다.

3명의 교사가 주 90분 음악수업 (이론과 합창 중심)을 담당한다.

음악실들은 컴퓨터, 미디 키보드, 작곡 소프트웨어, 파워포인트 PT 시스템, 최신 녹음 테크놀로지 시설과 고음질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Garage band project에 이 시설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 교육과정

• Garage Band 101

학생들에게 팝 밴드를 결성할 기회와 팝음악과 자신의 작품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업 내용은 기본 음악이론, 악기 연주, 작곡법, 팝음악 역사 등이 있으며 악기를 다루는 기본 스킬이 요구된다. 출석, 연구 보고서, 퀴즈, 공개연주로 평가 점수를 내린다.

27) 5800 Jamison Avenue NE,
St. Michael, Minnesota 55376

<표 5-5> Garge Band 101 교육과정

일자	이론 교육과정	연주 테크닉	과 제
2009년 4월	<p>주제: 어떻게 의미있게 로큰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는가?</p> <p>A. 감상 록 밴드를 구성하는 여러 악기들의 연주법</p> <p>B. 악기 테크닉 B1. 드럼</p> <p>B2. 베이스 기타</p> <p>B3. 기타</p>	<p>A. 감상 감상곡을 듣고 비평한 후 공개 연주해 보고 싶은 곡을 선택한다.</p> <p>B. 악기 테크닉 B1. 드럼 – 5-piece, 4-piece 드럼 세트 설치와 관리법. 록 비트 연주법 (제1, 3박에 베이스 드럼, 제 2, 4박에 스네어드럼 드럼, 8분음표 패턴들). 기본 4박자 연주법.</p> <p>B2. 베이스 – 악기 관리법. 튜닝 연습. 현들의 알파벳 명칭을 익히고 프렛을 반음씩 올리기 연습. 장조 음계 패턴 연습 (예를 들어 E현의 5번째 프렛에서 시작하는 A장조). 두음 패턴과 7화음을 사용하여 블루스 진행 연습 (프렛을 한 칸씩 위로 옮겨 가며 IV, V 코드 이동 연습). 기본 Im 테크닉과 왼손 테크닉 연습.</p> <p>B3. 기타 – 악기 관리법. 튜닝 연습. 현들의 알파벳 명칭을 익히고 프렛을 반음씩 올리기 연습. 장조 음계 패턴 연습.</p>	<p>A. 감상 음반 해설과 잡지 비평</p> <p>B. 악기 테크닉 시청각 자료 연구와 실습. 레벨에 따른 밴드와 개별 악기 과제.</p>

	<p>C. 이론 C1. 음자리표와 오선보읽기 C2. 음표 C3. 음정 C4. 화음 C5. 로마 숫자의 화음 표기</p>	<p>현들의 관계를 배우고 베이스 현의 프렛 연습. 기본 화음인 오픈 코드 A, E, D 연습. 파워 코드 연습. 5음 음계 연습. "Drop D" 튜닝 연습. 기본 스트럼 테크닉과 왼손 테크닉 연습.</p> <p>C. 이론 C1. 오선보와 음자리표들 연습. C2. 선율과 베이스 악보의 음표 읽기 연습. C3. 음정의 개념과 순서 연습. C4. 장단3화음을 이용한 화음 만들기 연습. C5. 여러 음계들과 음정들을 연습하고 I, IV, and V 화음 식별하기.</p>	<p>C. 이론 과제물</p>
<p>2009년 5월</p>	<p>주제1 : 록밴드를 구성하는 악기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선율과 가사를 만들까? 록 음악의 공연과 녹음에 연관된 사항들은 무엇인가? D. 앙상블 실습 D1. 블루스 D2. 커버(Covers) D3. 팝송 작곡</p>	<p>D. 앙상블 실습 D1. 블루스를 여러 악기들과 함께 어우러져 연주하는 법을 연습한다. D2. 웹사이트("YouTube", "Guitar Tab White Pages", "tabs911.com") 자료를 검색하여 커버송들을 선택해서 연습한다. D3. 밴드들이 부른 원곡 음반을 기보하고 연주해 본다.</p>	<p>D. 앙상블 실습시청각 자료 연구. 레벨에 따른 밴드와 개별 악기 과제. 매일의 연습진행 상황을 스스로 평가하여 제출. CD 녹음. 공개 연주.</p>

<p>D4. 녹음</p> <p>D5. 연주</p> <p>주제2: 어떻게 짙막한 선율과 가사를 발전시켜 보다 큰 규모의 작품을 구축할 수 있을까?</p> <p>E. 노래 형식</p> <p>E1. 블루스 형식</p> <p>E2. 기본적인 가사 구조</p> <p>E3. 기타 형식</p> <p>F. 역사</p> <p>주제 3: 로큰롤의 역사에서 중요시 되는 그룹들의 백그라운드는 어떠했을까</p>	<p>D4. 한 곡을 정해서 연주하고 CD로 녹음한다.</p> <p>D5. 교내 런치타임 콘서트에서 직접 공연해 본다.</p> <p>E. 노래 형식</p> <p>E1. AAB 블루스 형식을 작곡해 본다.</p> <p>E2. 곡의 특징들을 분석한다. (오리지널 아이디어, 유명한 제목, 인상적인 도입부, 클라이막스, 전체적인 형식)</p> <p>E3. 곡을 구성하는 부분들(verse, pre-chorus, chorus, bridge, introduction, interlude, and coda 등)의 개념을 이해한다.</p> <p>F. 역사</p> <p>로큰롤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그룹에 대해 집중 탐구한다.</p>	<p>E. 노래 형식</p> <p>E1. 블루스 형식의 가사와 선율을 작곡해 본다.</p> <p>E2. 지정된 형식 (verse-chorus-verse-chorus-verse-chorus)에 맞춰 작곡을 실습하고 가사의 기본 구조를 설계한다.</p> <p>E3. 형식에 따른 가사와 선율로 곡을 완성해 본다.</p> <p>F. 역사</p> <p>유명 록 밴드에 대한 연구 보고서 제출.</p>
---	--	---

3) 연주 활동

정기 콘서트들과 경연대회들이(Veteran' s program, Solo/Ensemble Contest and Arts of the Knight) 열린다.

라. 브렉스빌 고등학교(Brecksville High school²⁸⁾)

1) 학교 소개

다양한 음악 장르들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균형 잡힌 교육 프로그램을 목표로 팝과 재즈 음악이 클래식 음악과 동일하게 중요시 된다. 음악적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음악이라는 예술형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문 음악가가 되지 않더라도 음악을 가까이 하고 음악에 대한 소양과 열정을 지니게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학교에서 한다면 이 학생들이 장차 예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후원하며 공연을 찾아다니거나 아마추어 연주단에 참여하는 등 문화적으로 윤택한 삶을 향유하는 성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6명의 음악 교사 중 4명은 주로 교내 연주 그룹들을 위해 작편곡과 연주회 행사들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라이언 나울린(Ryan Nowlin)은 KJOS MUSIC 출판사를 통해 학교 밴드 작품집을 출판할 정도로 유명한 작곡가이다. 음악과장과 또 한명의 교사는 전문적으로 팝 밴드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 음악 교사들 대부분이 즉흥연주에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음악과에 소장된 밴드 악기와 기구들로는 어쿠스틱 드럼 세트, 미디 드럼 세트, 베이스 기타, 베이스 기타 앰프, 키보드 앰프, 여러 대의 신디사이저와 건반들이 있다. 현재 음악 이론 수업에서만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디 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2) 교육 과정

예술 과목을 한 학점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미술, 연극, 음악, 산업 미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음악 수업 중 음악 이론과 음악 감상 교육과정에 팝과 재즈 음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실용음

28) 6380 Mill Road
Cleveland, OH 44147

악 장르들과 클래식 장르들의 특징과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음악 양식들과 연주 양식들의 특징과 차이점을 인지하고 직접 연주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예를 들어 8분 음표들을 단순 양식이나 스윙 양식으로 연주하거나 기본 음계들과 재즈 음계들을 비교하며 연주해 본다).

음악 이론 교육과정은 작곡을 포함하며 시중에 출판된 작곡 교재들과 교사 개인이 만든 보충 자료들로 작곡을 가르친다. 또한 재즈 밴드, 음악 감상 수업에서는 기초적인 즉흥연주법을 가르치고 있다. 즉흥연주법은 음악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합주 프로그램으로 밴드, 합창단, 오케스트라 활동이 있는데 총 1600명의 학생들 40% 정도가 이 합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수업외 활동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밴드들로는 4개의 콘서트 밴드, 마칭 밴드, 재즈 밴드(“코모션Commotion”), 그리고 드럼 밴드(“드럼라인 Drumline”)가 있다. 이 중 재즈 밴드는 자체 공연뿐만 아니라 합창단을 반주하거나 오케스트라와 합주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 레슨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밴드 악기들 중 현재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악기 레슨을 지원하고 있는 악기들은 드럼과 기타이며, 전자 기타나 베이스 기타는 개인적으로 배우거나 외부에서 레슨을 받아야 한다.

3) 연주 활동

매년 봄에는 교내 정기 연주회들을 개최하고 있다. 음악 특기자들은 오디션을 통해 연주자를 선발하는 외부 앙상블(국립이나 오하이오 주립 앙상블) 연주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연 1회의 텔런트 쇼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밴드(Garage band)나 록 밴드들을 결성한다.

2. 영국의 학교 실용음악 교육 실태

영국의 학교 교육은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과정이 6년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중등학교 과정 중에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시험인 GCSE²⁹⁾ (Th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중등교육수료자격증)와 A 레벨 시험을 치른다. 이 시험들은 대학 진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모두 음악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GCSE시험 대상과목은 총 30과목이나 이중에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다섯 개에서 일곱 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며, A 레벨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과목 이상 합격해야 한다.

영국의 A 레벨시험은 한국의 수학능력 평가와는 달리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하게 될 학과와 관련이 있는 과목들을 대개 3과목에서 4과목 정도를 택하여 시험을 치르는 시험이다. A레벨 시험을 위한 음악 과목 응시자들의 평가는 국가공인 음악능력 평가기관인 영국 왕립음악원 연합회(ABRSM: Associate Board of Royal Society of Music)의 등급(Grade)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A레벨 음악과목 응시자들은 실기와 이론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9등급을 획득해야 음악과목 A학점을 인정받기 때문에, 학교 내 음악 교육은 입시를 위해 음악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이 시험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영국 중등학교 음악 교육과정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국 왕립음악원 연합회 등급시험은 음악을 전공하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1889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 시험은 현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도 권위 있는 음악능력 평가 시험으로 인정되고 있다. 시험관은 교수나 교사 등 전문 음악가들로 구성되고 교육과정 역시 교수, 작곡가와 연주자들로 구성된 검증된 연구진에 의해 제작된다. 이 기관은 악기나 성악의 연주 테크닉, 작곡, 음악이론의 단계를 난이도에 따라 8등급으로 분류하여 악보집, 이론 교재, 음반을 출판하고 시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등급 시험은 전통적인 실기 교습과 객관화된 평가를 지향하는 만큼 예술 음악에 치중되어 있으며 르네상스로부터 21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 장르, 국적의 작품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1999년부터는 재즈 분야를 도입했고, 대중음악 교육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드럼, 전자 바이올린, 전자 첼로도 선택 악기로 인정하는 문제를 고려중이다. 이 시험은 현재 드럼이나 전자 악기들을 제외시키고 있지만 등급 시험에 응시하는 기타와 피아노를 선택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심에서 전자기타와 전자피아노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타악기, 피아노, 어쿠스틱 기타의 시험에 요구되는 테크닉과 음악

29) 1986년 9월부터 새로 도입되어 1988년에 첫 시험이 시행되었다. 영국의 의무 교육에 대한 졸업 시험인 동시에 중등 교육 수료 자격증이며, 동시에 A 레벨 시험 지원시 학습 능력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국가고시이다.

지식을 갖고 있다면 팝 밴드 활동에 참여할 만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과목 선택자들은 원하기만 하면 다양한 악기들을 시도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소수로 구성된 밴드도 쉽게 결성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어 클래식 음악교육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팝 밴드 활동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험은 8등급(재즈는 5등급)으로 분류되어 악기(가창) 연주, 초견 연주 테스트, 청음 테스트로 이루어진다. 악기 연주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은 음고와 리듬의 정확도, 박자, 프레이징, 악센트, 음색의 다양성, 터치 등을 표현되는 음악성이다.

재즈 시험 응시자는 지정 곡목 연주 외에 초견 연주 테스트에서 악보를 보거나 귀로 듣고 초견을 연주하고 이어서 즉흥연주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악기 시험을 살펴보면, 응시자들은 선율 타악기(실로폰, 비브라폰 등) 하나와 팀파니와 스네어 드럼 중 하나, 총 두 개의 악기를 선택해야 한다. 팀파니와 스네어 드럼의 시험 곡목은 다음과 같은데, 이 중 한 곡을 선택하여 연주해야 한다.

<표5-6> 영국 왕립음악원 연합회 (ABRSM) 타악기 시험

등급	탐파니	스네어 드럼
1	March past, Fanfare, Allegretto, Prelude	Marching time, On parade, Stick together, Two step, Tempo timekeeper, Step lightly
2	Step three, Alla Marcia, Contrasts, Rondino	Beat it out, Mind the accent, Three step, Ben marcato, Flam and drag
3	Maestoso and Allegro, Mazurka, Rondo vivace, Galop	Rhythmic accents, Slow waltz, Marche grandioso, Five stroke, Flam waltz, Three wheeler
4	6/8 Variations, Alleluia, Waltz, Prelude and Scherzo	Mazurka, Vienna woods, Amazing Grace notes, Rock steady, Interrupted waltz, Con spirito, Constant quaver
5	Sea storm, Beethoven plus, March Funèbre, Fives and threes	Sophisticated syncopation, Radetsky, Tarantella, Alborada, Allegro energico
6	Unsquare dance, square dance, Diversions, Scherzoid	Malvern March, Con anima, Fanfare and dance, Waltz variations, Midsummer dream, Con forza
7	Tchaikovsky plus, Conflict in Verona, Impulse, Soliloquy	Contemporary patterns, Scherzo Caprice, Light infantry, Allegro giocoso, Prelude and Scherzo
8	Bacchanale, Modern times, Burlesque, Waltz variations	Sicilienne, Overture to accents, A bar from Mars, Scheherazadia

재즈 음계연주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

장음계



5음음계 (장조)



5음음계 (단조)



5음음계 (장조 옥타브)



5음음계 (단조 옥타브)



5음음계 (b3)



블루스 음계



아르페지오

- CM9



- C9



- Cm9



분산화음 (broken chord)

- C7



한편 입시와 무관히 학교 교육과정에서 음악 과목 수업을 선택하거나 개인 레슨을 받고 합주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기 사항과 활동들 역시 대학 입시 지원서 자기 소개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음악 전공 교사들로 구성된 음악과 (Music department)가 있는 학교들은 오케스트라, 합창단, 실내악단, 밴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연주회를 활발히 개최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음악 수업 이외에 실기 레슨은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음악 전공자들을 초빙하여 일반 레슨비용의 반액 정도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교육을 받게 한다. 특히 기초 단계에서는 개인레슨보다는 보다 경제적인 그룹 레슨도 권장하고 있다. 악기는 개인적으로 구입, 소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학교를 통해 악기를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다.

영국 학교 교육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평준화에 반하는 차별화, 즉 사립학교(Public school)와 공립학교(Comprehensive 또는 State school)의 확연한 구분이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음악 과를 운영하고 오디션을 통해 음악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렇게 선발된 음악 특기자들은 학비 지원과 개인 레슨 지원을 받으며 학교 음악 활동의 핵심멤버로 활동하게 된다.

예체능 교육을 위한 재원과 정책에 있어서는 공립과 사립학교들 간 격차가 심한 편이지만, 80년대 말부터 특화 교육 시행령에 따라 특화학교(Specialist school)로 지정된 공립학교들 중에 정부 지원이나 자체적인 재단을 기반으로 특화된 예체능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악기 레슨과 연주 활동은 공립, 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가. 덴비 스쿨(Denbigh School³⁰)

1) 학교 소개 및 교육과정

런던 북쪽 신도시에 위치한 공립학교로 테크놀로지와 수학 그리고 과학 특화 학교(Specialist school³¹)로 분류되며, 현재는 자체 재단과 자율적인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연예술부(Performing arts faculty)가 있으며, 음악, 댄스, 드라마 분야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 교육의 목표는 자제력, 창조성, 미적 감수성, 집중력의 개발이다.

7-9학년은 음악과 드라마를 주 1시간씩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음악은 중요한 소통의 형식으로서 지성과 감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자기표현과 정서의 개발에 도움을 주며, 또한 역사와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자기 발견과 사회성 개발에 도움을 주며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한 양식의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고 연주와 작곡, 독주와 합주를 통해 다양한 양식들을 체험하며 창작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2) 연주 활동

4명의 음악교사로 구성된 음악과는 정규 수업 외에 기악 레슨을 관리하고 다양한 학교 공연 행사와 밴드 활동을 주관한다. 오케스트라, 합창단과 소규모 밴드들이 활동하고 있다.

밴드가 주도하는 공연 행사들로는 Battle of the Bands, Rock Challenge, School Production, Showcase, Talent Show, Denbigh Superstars가 있다. 이 공연들의 연주 샘플로 에릭 클랩튼(Eric Clapton), 뮤즈(Muse), 케이티 텐스털(K. T Tunstall)의 음악을 기타, 건반, 가창으로 연주한 오디오 파일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2009년 봄에는 뮤지컬 <유진(Eugene)> (창작 뮤지컬)과 <Joseph and the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가 공연되었다.

방과 후 활동 밴드들은 매주 목요일 15.00-16.00에 음악 교사 지도하에 리허설을 갖고 있다.

30) Burchard Crescent, Shenley Church End
Milton Keynes, MK56EX

31) 1980년대 말 시작된 잉글랜드 지역의 공교육 개혁안에 따라 기존의 공립학교들이 특정 과목을 선정하여 심화된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체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일반대학 진학률을 높일 뿐 아니라 전문대학 교육에 해당하는 수준을 지향하는 실용적 교육 체제이다. 특기 과목들로는 테크놀로지, 과학, 인문학, 언어, 경영, 수학, 컴퓨터, 미술, 음악, 드라마, 스포츠 등이 있다. 현재 잉글랜드 지역 공립학교의 88%인 3000개교가 특화학교이다. 이 학교들은 정부나 민간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화 학교들 중에는 자체적인 재단을 가지고 사립학교와 유사한 자율적 운영방식을 채택한 학교들도 있다.

2008년 11월에는 음악 교사들 인솔 하에 49명이 버밍햄의 국립전시관(National Exhibition Centre)에서 열린 Music Live Exhibition 행사에 참가하여 다양한 악기들을 체험해 보고 여러 록밴드들의 콘서트들을 관람하였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록밴드들 중 <인센디아(Incendia)>는 교내 행사인 Battle of the Bands 2008에서 우승하였고 전국적인 학생 예술 공연 축제인 ‘샤인위크’ (Shineweek)에서도 연주하였다.



[그림 5-2] 덴비 스쿨 학생들의 연주활동 장면

나. 소햄 빌리지 칼리지(Soham Village College³²⁾)

1) 학교 소개

케임브리지 인근에 위치한 이 학교는 1878년 인문계 공립학교로 개교했으며, 현재는 테크놀로지와 언어 특화 공립학교이다. 예술 과목들로는 음악, 공예, 디자인, 드라마가 있는데, 총 1350명의 학생들 중 140명 정도가 기악 레슨을 받고 있고, 또 다른 140명 정도의 학생들이 밴드와 합창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음악과는 다양한 음악 교육과정 개발의 수상 경력이 많은 5명의 교사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과는 자체 건물과 연습실들을 구비하고 있다.

2) 교육 과정

음악은 과학, 수학, 언어, 역사, 신체 운동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정 표현과 사고의 폭을 넓히고 창조성, 개인성, 사회성을 개발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고 흥미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7-9학년은 음악이 필수과목으로서 다음의 주제들을 포함한다.

- 7학년: 박자와 리듬, 음성의 음색, 선율 프레이즈, 5음 음계, 장 단조, 인도 음악(라가와 탈라), 기보법
- 8학년: 중세음악, 복합 박자, 민속음악, 선법, 비틀즈(노래의 기본 화음들), 반복형식들(론도), 캐리비안 음악(레게와 칼립소), 가스펠(선율), 오페라
- 9학년: 블루스, 썸바, 전쟁 음악(금관악기),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불규칙 박자), 영화 음악, 방송 음악, 아프리카 음악, 팝송 작곡

● 밴드 교육과정 자료

① 오아시스의 Don 't Look Back In Anger

- 장르: 영국 록-팝
- 기본 편성: 드럼, 타악(탐버린 등), 베이스, 기타, 가창(남자2-3명)
- 반주: 건반(피아노, 오르간), 기타, 리드 기타, 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32) Sand Street, Soham, Ely
Cambridgeshire CB7

- 구조: 전주(4마디) - 1절(8마디) - 후렴(12마디) - 코러스(8마디+기악 간주 2마디),
2절(8마디) - 후렴(12마디) - 코러스(8마디) - 기악 솔로(12마디) - 코러스(8마디) -
코러스 반복 - 코다(4마디)
- 세부적인 특징: C장조, 4/4박자, 빠르기 ♩ = 80.
규칙적인 8분 음표들로 이루어진 피아노 전주가 템포를 잡고 2마디 후 기타가 합세한다. 1, 2절과 코러스의 4마디 코드 패턴은 다음과 같다.
C- G-Am- E- F- G -C- Am -G

한번 변주가 되는 곳이 있는데 각 절의 두 번째 행에서 F장조 다음에 G7화음으로 바뀐다.

후렴의 코드 패턴은 다음과 같다.

C- F- Fm7- C- F- Fm7
F -Fm7- C -G- G#dim
Am- G- F- G -G

가창은 유니즌으로 노래하며 1, 2절의 반주는 강하고 짝 찬 화음을 내야 한다. 드럼과 타악은 지속적인 리듬을 이어간다. 건반은 화음을 반복해서 연주하고 오르간은 한 화음을 지속한다. 기타는 8분음과 16분음들로 이루어진 패턴을 연주한다. 리드 기타는 선율을 연주하거나 반주한다.

후렴은 현악기들과 건반이 화음을 보장한다. 리드 기타는 처음 6마디에서는 약박에서 화음을 연주하고 다음 5마디에서는 8분음들을 코러스가 들어가기 전 마지막 한 마디에서는 쉰다.

기악 솔로 부분은 리드 기타가 맡는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코러스부분에서는 점점 크게 연주하다가 코다에 이르면 갑자기 점점 여리게 연주하며 속도를 늦춘다. 음량을 줄이며 조용한 화음 반주로 이어지면서 리듬 기타가 마지막 화음을 연주한다.

이 음반 녹음에는 가창에 딜레이와 에코가 많이 들어있고 전체적인 사운드를 풍성하게 내기 위한 더블 트랙킹이 사용되었다. 리드 기타의 솔로 부분에는 잔향(Reverb)이 많이 첨가되었다.

② 팝송 작곡

- 음반 감상: 레니 크라비츠(Lenny Kravitz)의 “Fly away” 를 듣고 절과 후렴구의 차이를 구분하기(음량, 음고, 악기편성, 감정표현, 화음, 리듬, 선율, 솔로/듀엣, 백 후렴구,

드럼 비트의 차이 구분).

- 절과 후렴구 만들기: 절과 대조되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귀에 쉽게 들어오는 후렴구 코드 진행 만들기, 반복과 변주(반복 음형인 리프(riff: 반복적인 선율이나 코드 음형)나 뱀프(vamp) 사용), 음량, 음고, 화음, 리듬의 차이 만들기, 선율과 가사 매치하기.
- 심화된 작곡법: 전체적인 구조와 선율, 화음, 리듬 계획하기, 귀로 작곡해보기(코드를 진행을 먼저 만들어 악기로 연주하면서 가사를 반복적으로 읊다 보면 자동적으로 선율이 나오게 하는 법, 기보법 지도 필요).
- 리프 만들기: 버브(Verve)의 Bitter sweet Symphony, 팻보이 슬림(Fat Boy Slim)의 Praise You, ACDC의 A Whole Lot of Rosie 에 나타난 바이올린, 기타 리프 활용법.
- 작사, 리듬과 선율 작곡 실습
- 종지 만들기: 종지의 종류, 주선율 변주법
- 녹음 기술, 판매 계약, 저작권 정보

③ 비틀즈의 Eleanor Rigby

- 코드 연습

안정된 리듬과 템포를 유지하며 각 성부를 연습한다.

Part 1

Verse

Chorus

E C E C

C E C E C E

Part 2

Verse

O E O E

Chorus

E G E G E G

Part 3

Verse

B G B G

Chorus

G B G B G B

다음에는 세음을 한 번에 연주하여 화음을 만든다. 한 음씩 넣었다 뺐다 해본다.

Exercise 1: E-G-B, C-G-B, E-G-B, C-G-B

Exercise 2: E-G-B, C-G-B, E-G-B, C-G-B, E-G-B

3) 연주 활동

각 요일별로 리허설을 가지며 뮤즈(Muse), 헨드릭스(Hendrix), 푸 파이터스(Foo Fighters) 등 록음악 작품들을 분석하고 토론하고 연주한다. 매주 새로운 밴드와 기타리스트에 대해 배우며 기본적인 기타 연주 실력이 요구된다.

<표 5- 7> 점심시간 클럽 활동 시간표

요일	클럽활동
월요일	컴퓨터 음악, 레코딩, 합창단
화요일	쌈마, 현악기 그룹, 록밴드
수요일	목관악기 그룹, 건반 클럽
목요일	빅밴드, 색소폰 트리오, 록밴드
금요일	음악 이론 클럽

연 1회 예능 발표회인 College Production을 위한 오디션과 리허설이 가을 학기에 3주 동안 있다. 매년 열리는 뮤지컬 공연에 다양한 밴드들이 참여하여 활약하고 있다. (2008년 작품은 <브로드웨이42번가>이다.).

재즈 밴드의 CD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수익은 새 베이스와 앰프 구입에 사용될 계획이다.



[그림 5-3] 소햄 빌리지 컬리지 학생들의 연주활동 장면

다. 제임스 알렌즈 걸즈 스쿨 (James Allen's Girls' School³³⁾)

1) 학교 소개

1741년 개교 이래 음악 교사로 본 윌리엄스(Ralph Vaughan Williams)와 홀스트(Gustav Holst)가 재직했고 탁월한 음악 교육의 전통을 세워온 런던의 명문 사립학교이다. 음악과는 8명의 정교사와 30명의 외부 강사가 있다. 학생들은 재즈 피아노, 재즈 바이올린, 신디사이저, 기타, 드럼 레슨을 받고 있다. 전체 770명의 학생 중 약 550명이 오케스트라, 합창단, 소규모의 클래식, 팝, 재즈, 록, 가스펠 앙상블 등 36개의 밴드 활동에 매주 참여하고 있다.

음악과를 후원하는 12명 중 샬롯 리치(Charlotte Ritchie)는 이 학교 출신의 가수로서 영국의 크로스오버 팝 그룹인 올 엔젤스(All Angels)의 멤버이다.

2) 교육 과정

7-9학년은 음악이 필수 과목으로서 주 70분 수업을 받는다. 7-9학년은 음악 수업과 더불어 모든 학생들이 기악이나 가창 레슨을 받으며 영국 왕립 음악원 연합회(ABRSM)시험의 4등급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수업 교육과정은 다음의 주제들을 포함한다.

- 7학년: 리듬, 5음 음계, 인도네시아 가멜란 음계, 온음음계
- 8학년: 선율작곡, 3부 형식, 음정, 12마디 블루스
- 9학년: 팝송 작곡, 컴퓨터 작곡(큐베이스 소프트웨어 사용하여 팝송 작곡과 연주), 아방가르드, 방송음악

10학년부터 음악은 선택과목이며 심화된 수준의 작곡, 연주, 감상을 배우게 된다. 영국왕립음악원 연합회시험 5등급을 목표로 하고 합주 활동과 연주 기회들도 이전 학년보다 많아진다.

33) 144 East Dulwich Grove
London SE22 8TE

3) 연주 활동

매년 30회의 정기 연주회가 열리는데 팝음악만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연주회로 Pop festival, Jazz lunchtime concert, Jazz night, Battle of the bands, Talent show가 있다. 그 외에도 공연예술분야인 드라마나 뮤지컬 무대에서도 연주할 기회가 많다. 연주 무대는 학교뿐 아니라 인근의 교회, 커뮤니티 센터, 병원, 복지시설 등 다양하다.

클래식 그룹들은 일반적으로 오디션을 거쳐야 하는 반면 다음의 팝음악 그룹들은 오디션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빅밴드: 클래식과 재즈 연주 - 영국 왕립음악원 연합회(ABRSM)시험 2~6등급을 권장하며 2명의 교사가 개인 교습을 담당하고 1명의 교사가 리허설 지휘.

연 2회 연주회.

- 재즈 밴드: 라틴, 재즈, 즉흥연주- 책임 지휘자가 있으며 영국 왕립음악원 연합회(ABRSM)시험 6등급 이상 요구된다.

- 주니어 뮤직 클럽: 팝음악

- 기타 그룹

- 가스펠 콰이어)

그밖에 써머 스쿨로 참여하는 빅밴드 워크숍 코스가 있는데, 이것은 외부강사들을 초빙하여 한 주간 집중 리허설을 하고 마지막 날 연주회를 갖는다.



[그림 5-4] 제임스 알렌즈 걸즈 스쿨 학생들의 연주활동 장면

VI.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1.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2.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예시
 3.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적용의 결과
-
-

1.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가.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 수업의 대상, 수업의 차시, 주요 교육 내용,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등은 다음 <표 6-1>과 같다.

<표 6-1>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개요

항 목	내 용
교육프로그램 유형	계발 활동, 방과후 수업, 동아리 활동
수업 대상	중 · 고등학교 학생
수업의 차시	30차시 (1회 2차시 수업)
학습 내용	실용음악 합주(양상블)
교수학습방법	개별화 수업 및 팀 티칭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의 계발 활동이나 방과후 수업,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다. 수업의 대상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까지 넓게 설정했는데, 이는 실용음악 분야가 정규 수업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적인 선수 학습 수준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발 활동이나 방과후 수업, 혹은 동아리 활동에 지원하여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으나 초보자인 경우도 있는 반면에, 연주경험이 많은 경우도 있었다. 도시 지역에 위치한 학교

인지 혹은 농산어촌의 학교인지에 따라 수업 참여 학생의 실용음악에 대한 선수 학습의 정도가 다를 것이고, 수업에 필요한 교사의 수급이나 악기, 음악실 등의 시설에 대한 준비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수업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의 수준별로 상·중·하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사가 팀을 이루어 수업을 하는 팀티칭 방식으로 고안되었지만, 한 교사가 여러 악기에 관한 일반적인 지도가 가능하다면 더 적은 수의 교사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의 차시는 30차시로 개발하였는데, 실용음악 합주 수업에서는 악기 준비 및 음향 기자재의 설치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1회에 두 시간의 수업을 책정하도록 한다.

실용음악 교육의 학습 내용은 실용음악 합주로 하여서 가창,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이 합주하는 수업을 하는데, 1회 수업에서 1차시에는 개별화 수업으로 가창,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각각의 악기를 가르치는 교사가 해당 악기를 학습하는 소수의 학생군을 지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시 수업에서는 가창,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모듬을 이루어서 합주 수업을 하는데 이때에는 리더를 맡는 한 명의 주임 교사와 나머지 보조 교사들이 팀 티칭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한다. 개발된 실용음악 합주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조직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 <표 6-2>와 같다.

<표 6-2> 실용음악 합주 교육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

차 시	교수학습방법	
1	개별화 수업	가창 담당 교사 ⇔ 가창 전공 학생 건반 담당 교사 ⇔ 건반 전공 학생 기타 담당 교사 ⇔ 기타 전공 학생 베이스 담당 교사 ⇔ 베이스 전공 학생 드럼 담당 교사 ⇔ 드럼 전공 학생
2	팀 티칭	주임 교사 가창·건반·건반 및 ⇔ ·베이스·드럼 보조 교사 전공 학생

수업 장소는 가능하면 방음 설비를 갖춘 음악실로 하고, 수업을 위한 준비물은 가창용 마이크와 전자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의 악기 및 음향 시설이다.

나.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내용

1) 주차별 교육 내용에 관한 개요

각각 두 시간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15주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실용음악 합주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장르에 대한 배경 설명, 화성 및 리듬 이론 등의 내용과 실질적인 합주 실습을 포괄적으로 수용 하도록 한다. 1차시에는 합주를 위한 개별적 악기지도 및 이론 수업을, 2차시에는 개별적인 악기지도를 바탕으로 한 합주 실습 및 이에 따른 응용과 심화의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교육프로그램의 응용 및 심화는 난이도에 따른 악곡의 선정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표 6-4>에서와 같이 장르별로 초급 수준에서 고급 수준에 이르는 악곡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을 수업 환경에 적합하게 응용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악기별 전공 교사가 지도하는 1차시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을 다룬다.

- 음악 스타일(장르)과 리듬의 이해
- 음악 스타일에 적합한 코드진행과 그에 따른 코드이론
- 음악 스타일에 적합한 악기별 연주 주법에 관한 교습

주임 교사가 리더가 되어 합주를 지도하는 2차시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을 다룬다.

- 개별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밴드스코어 및 앙상블 실습
- 합주 시 유의점 설명(연주 속도, 다른 악기와의 조화 등)
- 해당 주차의 음악 스타일에 대한 응용 학습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학습 내용은 기초단계부터 심화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모든 주차별 교육 내용에는 각 스타일이 끼치는 역사적, 문화적 영향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교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 내용 세부계획

30차시의 실용음악 합주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은 다음<표 6-3>와 같다.

<표 6-3> 실용음악 합주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세부계획

주	차시	스타일 (장르)	화성이론	리듬 혹은 연주법	예제곡 《난이도》
1	1	악기론		실용음악 합주에 사용되는 각 악기에 대한 설명	
	2				
2	3	악곡론		실용음악 합주 악곡의 기본적인 형식에 대한 설명	
	4				
3	5	팝 발라드	주3화음	-건 반: 기본 4 비트/컴핑 -기 타: 다운 스트로크 -베이스: 기본 화음 패턴 /운지법 -드 럼: 기본 8 비트	사랑보다 깊은 상처 《하》 (전주~악절)
	6				
4	7	팝 발라드	주3화음	-건 반: 4 비트 응용 -기 타: 업-다운 스트로크 -베이스: 기본 발라드 패턴 -드 럼: 8 비트 응용 (라이드, 크래쉬 심벌)	사랑보다 깊은 상처 《하》 (악곡 전체)
	8				
5	9	팝 락	7화음	-건 반: 현악건반 -기 타: 파워 코드 -베이스: 8 비트 5도 라인 -드 럼: 8 비트 응용 (4비트 킥, 크로스오픈 하이햇사용)	붉은 노을 《하》 (전주~악절)
	10				
6	11	팝 락	7화음	-건 반: 당김음 리듬 -기 타: 커팅 스트로크 -베이스: 장음계 Fill-in -드 럼: 8 비트 응용 (Fill-in, brake-down)	붉은 노을 《하》 (악곡 전체)
	12				
7	13	하드 락	써스포(Suspended) 화음	-건 반: 락 컴핑(관악기 음색) -기 타: 파워코드, 팜뮤트 주법 -베이스: 8 비트 락 패턴	그대에게 《중》 (전주~악절)

	14			-드럼: 4비트 하프오픈 하이햇, 셋잇단음 리듬	
8	15	하드 락	비온음계(Non-Diatonic)화음	-건반: 락 컴핑 응용 -기타: 5음음계(벤딩, 슬라이드) -베이스: 8 비트 응용 (해머링온, 슬라이드)	그대에게 《중》 (악곡 전체)
	16			-드럼: 8 비트 응용 (베이스 드럼 변형 리듬)	
9	17	펑크	단조 화음	-건반: 펑크 컴핑(관악기 음색) -기타: 악음 단현 주법 -베이스: 당김음 패턴	소녀시대 《중》 (전주~악절)
	18			-드럼: 16 비트 펑크	
10	19	펑크	단조 화음	-건반: 펑크 Riff 패턴 (오픈 톤컨트롤)	소녀시대 《중》 (악곡 전체)
	20			-기타: 디스토션, 수직 비브라토 -베이스: 슬랩 주법 -드럼: 16 비트 응용	
11	21	라틴	속7화음 텐션 화음	-건반: 보사노바 컴핑, 애드립 -기타: 보사노바 컴핑, 핑거리듬 -베이스: 보사노바 패턴, 롱슬라이드	춘천가는 기차 《상》 (전주~악절)
	22			-드럼: 보사노바 패턴	
12	23	라틴	속7화음 텐션 화음	-건반: 보사노바 패턴 응용 -기타: 보사노바 패턴 응용 -베이스: 보사노바 패턴 응용	춘천가는 기차 《상》 (악곡 전체)
	24			-드럼: 보사노바 리듬에 슬로우 삼바 리듬 혼합	
13	25	리허설	라이브 무대용 악기 배치 및 음향 설치		
	26	연주	실제 무대 연주		
14	27	음향편집 1	연주실황 투-트랙 녹음 기법		
	28				
15	29	음향편집 2	녹음된 데이터의 편집 및 포맷 전환		

위의 실용음악 합주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서 보이는 대로 실용음악 악기론과 악곡론, 팝 발라드, 팝 락, 하드 락, 펑크, 라틴, 연주 실습, 그리고 녹음과 음향편집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학교의 수업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수업 기자재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교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히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한 교육 내용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다. 아래의 <표 6-4>에서는 같이 장르별로 초급 수준, 중급 수준, 그리고 고급 수준에 이르는 악곡이 악곡별 음악적 특성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수업에서 응용하거나 심화시켜서 교수학습 하도록 하였다.

<표 6-4> 실용음악 합주 장르에 따른 난이도별 예제곡

장르	난이도	악 곡 명	음악가	작곡가	음악적 특성
팝 발라드	초급	가시나무	시인과 촌장	하덕규	- 다이아토닉 화성만 사용함. - 4 비트 위주의 평이한 리듬 구성
		라구요	강산에	강산에	- 이산가족의 상황을 노래한 가사 - 다이아토닉 화성만 사용함.
	중급	Desperado	Eagles	Eagles	- 버금딸림화음(IV)을 마이너 화성으로(IVm) 변조하여 사용함.
		그대 사랑합니다	TIM	윤상	- 부드러운 음악적 표현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부속화음(secondary dominant chord)을 사용함.
	고급	Still with you	Eric Benet	Eric Benet	- Bm 조성으로 시작하여 나란한조인 D의 관계조 Dm로 전조하는 화성진행으로 더욱 극적인 악곡의 흐름을 표현함.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Elton John	Elton John	- 단조에서의 하행 라인 클리셰(Line Cliche) 기법을 사용한 화성 진행.
팝 락	초급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	조용필	- 빠른 로큰롤(rock'n roll) 형식의 곡.
		My Happy	Avril	Avril	- Bm, G, D, A로만 구성된 간단한

		Ending	Lavigne	Lavigne	화성진행 - 8 비트 리듬 변주의 사용
	중급	Runaway	Bon Jovi	Bon Jovi	- 8 비트의 경쾌한 전자 건반 전주와 효과기를 사용한 강렬한 전자 기타의 음색이 특징.
		Final Countdown	Europe	Europe	- 전자건반이 주도하는 전주와 간주, 그리고 전자 기타의 독주가 강렬한 곡.
	고급	Jump!	Van Halen	Van Halen	- 전자 건반이 주도하는 전주의 음색을 잘 선택해야 하며 간주의 전자 기타 독주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
		Pamela	Toto	Toto	- 모든 악기의 합주와 독주가 잘 조화되어 있는 편곡이 매우 세련되며 연주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곡이다.
팝 펑크	초급	어쩌다 마주친 그대	송골매	구창모	- 16 비트 리듬의 전자 기타 연주와 현악부의 편곡이 주요 구성으로 악곡사이의 짧은 전자 베이스 슬랩(slap) 연주가 잘 표현되어야 한다.
		그녀는 예뻐다	박진영	박진영	- 디스코(disco)에서 주로 쓰이는 전자 음원을 사용한 펑크스타일의 곡.
	중급	Funk	불독맨션	이한철	- 16 비트의 경쾌한 전자 기타 연주와 주를 이루고 있고, 관악부의 편곡이 전형적인 펑크음악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That's the way I like it	KC & Sunshine Band	Europe	- 전자건반이 주도하는 전주와 간주, 그리고 전자 기타의 독주가 강렬한 곡이다.
	고급	I wish	Stevie Wonder	Stevie Wonder	- 펑크 음악에서 주로 사용하는 독특한 음색의 전자 건반(Clavier)이 주도하는 전주의 음색을 잘 선택해야 하며 관악부의 표현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September	Earth, wind &	Earth, wind &	- 가장과 현악부, 관악부의 화음이 고급스러운 편곡을 이루고 있고,

			fire	fire	정교한 가창력과 연주력이 필요한 곡이다.
하드 락	초급	잊을게	윤도현밴드	윤도현	- 두 대의 기타가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연주한다. 이 곡에선 건반은 연주되지 않는다.
		It's my life	Bon Jovi	Bon Jovi	- 메인보컬과 코러스의 호흡이 돋보이는 곡이다.
	중급	Separate ways	Journey	Journey	- 전자 건반을 사용하여 전주를 연주한다. 일렉기타가 리프에 파워코드로 리듬을 연주하면서 하모닉스를 섞어서 연주를 한다.
		You give love a bad name	Bon Jovi	Bon Jovi	- 기타가 파워코드만으로 연주하지 않고 베이스랑 같이 리프를 만들어서 연주한다.
	고급	Highway star	Deep purple	Deep purple	- 빠른 템포의 곡으로 전자 건반의 오르간 소리로 연주하며 건반과 기타의 솔로가 돋보인다.
		Master of puppets	Metallica	Metallica	- 빠른 템포의 곡인데도 기타가 모두 다운 피킹으로 연주한다. 처음부분은 4/4에서 3/4로 연주되기도 한다.
라틴	초급	우울한편지	유재하	유재하	- 잔잔한 서정적인 보사노바 곡이다. 간주에서 피아노의 선율이 주를 이룬다.
		그대 내게 다시	럼블피쉬	김형석	- 어쿠스틱 기타의 소리가 주를 이루는 편안한 느낌의 곡이다.
	중급	사랑하나요	이승환	유희열 이승환	- 전자건반이 E.P(일렉피아노)소리로 연주하는 밝은 보사노바 곡이다. 관악소리가 함께 나와 더욱 밝은 분위기를 나타낸다.
		The girl from Ipanema	Jobim	Jobim	- Jobim의 유명한 보사노바 곡이다. 멜로디가 단조로운듯 하지만 느낌에 따라 다양한 연주가 가능하다.
	고급	Wave	Jobim	Jobim	- 전형적인 재즈 보사노바 곡이다.
		어느 멋진 날	성시경	Trust	- 텐션이 가미되어 더욱 재즈적인

				chen pow	느낌이 드는 리듬있는 보사노바 곡이다. 전체적으로 어쿠스틱 기타와 함께 일렉기타가 필인을 연주하듯 채우고 있다.
--	--	--	--	-------------	--

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틀

실용음악 합주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여덟 개의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실용음악 악기론과 악곡론, ② 팝 발라드, ③ 팝 락, ④ 하드 락, ⑤ 펑크, ⑥ 라틴, ⑦ 연주 실습, 그리고 ⑧ 녹음과 음향편집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원의 단원명은 단원의 주제나 악곡의 장르 그리고 악곡명으로 이루어진다. 학습목표와 수업 기자재, 단원 전체의 학습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등이 개괄적으로 설명된다. 계속하여 제시되는 ‘학습자료’ 란에서는 악곡의 장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악곡의 이해에 필요한 화성적인 지식, 그리고 리듬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된다. 각 차시별 수업 계획안에 이론적인 설명을 수록하지 않고 별도로 ‘학습자료’ 란으로 구분한 것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업의 과정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악곡의 화성 및 리듬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1차시의 첫 개별 악기 수업이든지 4차시의 합주 수업이든지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수준으로 설명될 수 있고 반복, 심화되어 학습될 수 있다.

팝 발라드나 펑크 등의 장르별로 대표적인 악곡을 합주하는 수업은 모두 4차시로 구성되는데 1차시 수업은 전주³⁴⁾~악절³⁵⁾의 전반부에 대한 개별 악기지도, 2차시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 합주, 그리고 3차시는 후렴구³⁶⁾~연결구³⁷⁾인 후반부에 대한 개별 악기지도, 마지막 4차시는 후반부 및 전체 악곡의 합주로 수업하도록 하였다. 예제 악곡을 중심으로 한 합주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틀은 다음과 같다.

34) 전주(introduction): 음악의 시작 부분으로 이어 나오는 악절부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35) 악절(verse): 일반적으로 같은 화성과 선율이 반복되며 1절, 2절 등의 가사가 붙는 전개 부분이다.

36) 연결부(bridge): 악절에서 후렴구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이 두 부분의 화성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곡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37) 후렴구(chorus): 후렴구는 여럿이 노래한다는 ‘합창’의 의미를 가지는데 악절을 더욱 강하고 의미 있게 고조시키며 곡의 절정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단원명 및 악곡설명	⇒	3. 팝 락-7화음 : 붉은 노을
학습 목표 수업 기자재 학습 내용 유의점	⇒	1. 학습 목표 2. 수업 기자재 3. 학습 내용 4. 지도상의 유의점
악곡의 이론에 대한 학습 자료	⇒	학습자료 1. 락 음악 소개 2. 화성 3. 리듬 4. 악곡의 구조
1차시 수업부분	⇒	1차시 : 전주~악절
악기별 지도내용	⇒	가 창 건 반 기 타 베이스 드 럼
2차시 수업부분	⇒	2차시 : 전주~악절
합주 지도내용	⇒	합 주
3차시 수업부분	⇒	3차시 : 후렴구~연결부
악기별 지도내용	⇒	가 창 건 반 기 타 베이스 드 럼
4차시 수업부분	⇒	4차시 : 후렴구~연결부
합주 지도내용	⇒	합 주

2.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예시

개발된 합주 교육프로그램 가운데서, ‘팝 락-7화음 : 붉은 노을’ 단원을 제시하는데 이 단원은 팀티칭으로 개별 악기 수업과 합주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팝 락-7 화음 : 붉은 노을

선곡 의도

작곡가 이영훈과 이문세의 첫 작품인 ‘이문세 5집(1988)’에 수록된 이곡은 김명곤이 편곡을 맡은 작품으로써 당시로는 매우 세련된 팝 락 곡이다. 팝 락에서 주로 쓰이는 악기들을 위한 편곡으로 밴드 편성의 합주에 적합하고, 1980년대 후반의 곡이지만 신세대 가수들이 새로이 편곡하여 연주할 정도로 시대를 아우르는 정서가 담긴 곡이다.

락 음악의 기본 박자인 8 비트에 충실하면서도 곡의 전개에 따라 4 비트와의 조합과 당김음을 사용한 리듬감의 변화가 연주자들에게 리듬적인 긴장감과 흥미를 줄 수 있다.

건반에서 현악(synthesizer strings)이 전주와 후주, 그리고 간주의 주선율을 담당하는 이곡은 악절(verse)의 잔잔한 부분과 후렴구(chorus)의 폭발적인 부분이 대비를 이루고 있어서 강약의 조절이 합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곡의 빠르기는 $J = 126$ 으로 약간 빠른 곡이고 E 장조이다.

1) 학습 목표

- ① 제재곡을 감상하며 1980년대 팝 락의 전형적인 악기 편성을 이해한다.
- ② 제재곡에 나오는 7화음 화성이론을 이해하고 연주한다.
- ③ 각 악기별 연주 기법을 익혀 악곡의 전개에 따른 연주의 강약을 표현하여 연주한다.
- ④ 곡의 형식을 파악하고, 다른 악기의 진행을 들으면서 조화로운 합주가 되도록 연주한다.

2) 수업 기자재

- ① 악기 : 가창용 마이크 1개, 전자 건반 2대, 전자 기타 1대 및 기타 앰프,

전자 베이스 1대 및 베이스 앰프, 드럼 1 조, 악기별 케이블,
믹서(mixer) 및 믹서용 스피커, 전자 박자기

② 합주 자료 : 선곡 악보와 오디오 CD, CD 플레이어, 악기별 보면대

3) 학습 내용

차시	주요 내용	주요 활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 감상 및 악보 읽기 • 화성 및 리듬 이론 • 악기별 개별 학습 	① ‘붉은 노을’ 감상 및 악기별 악보 읽기 ② 다이어토닉 7화음 코드 이론 학습 ③ 8비트(beat) 리듬이론 학습 ④ ‘붉은 노을’ 중 악절 부분 개별 악기 연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주 	① 악기별 음색 선택 및 음량 조절하기 ② ‘붉은 노을’ 중 악절 부분 합주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 감상 및 악보 읽기 • 화성 및 리듬 연주 • 악기별 개별 학습 	① ‘붉은 노을’ 감상 및 악기별 악보 읽기 - 후렴구 및 연결부 ② 제재곡 화성 진행 이론 학습 ③ 4비트와 8비트 혼용 리듬 학습 ④ ‘붉은 노을’ 후렴구 및 연결부 개별 악기 연주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주 	① 악기별 음색 및 음량 조절하기 ② ‘붉은 노을’ 전체 악곡 합주

4) 지도상의 유의점

- ① 연주전에 교사가 악기의 조율 상태를 점검하고, 악기별로 제재곡에 맞는 음색을 찾아 연주하도록 한다.
- ② 개별 악기 지도 시 박자기를 이용하여 제재곡의 박자와 빠르기를 정확히 익히도록 한다.
- ③ 제재곡의 이해에 필요한 실용음악 화성이론의 선지식이 부족한가를 파악하고 기초 내용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여 충분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연주하도록 한다.
- ④ 합주는 연주곡을 완전히 암기했을 때 조화롭고 이상적인 합주가 가능하므로, 개별 악기 지도 시 악보의 암기를 지도한다.
- ⑤ 합주 수업 전에 실제 가수의 실황공연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여 감상함으로써, 악곡의 느낌

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악기별 연주 자세를 점검하도록 한다.

- ⑥ 원활한 합주 연주를 위해 악기 연주자들도 가사를 암기하도록 지도한다.
- ⑦ 본 수업안에서는 합창 부분을 편의상 제외하였으며, 전체 합주시에는 가창만으로 구성해도 무방하다.

학 습 자 료

1. 락 음악 소개

가. 락(Rock) 음악의 시작

1960년대 이후 반전과 반정부의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의 음악으로 탄생된 락은 흑인들의 리듬 앤 블루스(rhythm & blues)와 백인들의 포크(folk)음악의 융합으로 만들어졌다.

락 음악은 백인들이 포크 음악에 블루스의 코드 진행과 절규하는 창법을 접목하면서 음악적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전자 악기와 증폭장치들이 생겨나면서 커다란 음량이 가능하자, 넓은 야외 공간으로 공연장을 이동하며 더 많은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반전 문화와 반정부 문화는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어, 대중 집회적인 음악 공연은 기존의 음반과 소규모 공연장에서의 연주보다 더 강하게 대중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문화적 파급력은 실로 막대했다.

나. 1980년대 이후의 락 음악

1980년대 초반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한 팝 락(pop rock)은 전자 기타, 전자 베이스, 드럼, 그리고 가창만으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락 음악에 비하여 전자 피아노나 신디사이저(synthesizer)가 추가되어 보다 풍성한 사운드 편성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8 비트(beat)에 기초한 비교적 빠른 박자의 음악인 팝 락은 듣는 사람들에게 질주하는 듯 한 느낌을 주었고, 반복적인 가사는 메시지 전달을 하기에 적합해서 대중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락큰 롤(rock'n roll)이나 블루스 락(blues rock)과의 차이는 장음계(major key)의 음악이 많고 블루스 음계(blues scale)보다는 온음계(diatonic scale)로 주선율이 구성되어 우울한 정서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장르의 선두주자로 유럽지역의 듀란 듀란(Duran Duran), 아-하(A-ha)와 미국의 보스턴(Boston), 본 조비(Bon Jovi)등을 들 수 있다.

2. 화성

가. 온음계에서의 7화음 (Diatonic 7th Chords)

온음계에서 으뜸음, 3음, 5음, 7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7화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 구성 및 표기	구성 음정	으뜸음 C	표기 예
장 7 화음 (major 7th)	1, 3, 5, 7	C, E, G, B	CMA7
속7화음 (dominant 7th)	1, 3, 5, b7	C, E, G, B b	C7
단7화음 (minor 7th)	1, b3, 5, b7	C, E b, G, B b	CMi7
반감7화음 (minor 7(b5))	1, b3, b5, b7	C, E b, G b, B b	CMi7(b5)

아라비아 숫자로 음정을 나타낼 때 으뜸음은 1로 표기하고, 으뜸음에서 장 3 도 음정에 해당하는 음은 3으로 표기하며 그보다 반음 아래인 단 3 도에 해당하는 음은 b3으로 표기한다. 으뜸음에서 완전 5 도인 음은 5로, 그보다 반음 낮은 감 5 도는 b5로 표기한다. 제 7 음이 장 7 도이면 7로, 반음 낮은 단 7 도이면 b7로 표기한다.

으뜸음부터 장 3 도, 완전 5 도, 장 7 도로 구성된 화성을 장 7 화음(major 7th chord)이라 한다. 장 3 화음에 단 7 도가 더해져서 속 7 화음(dominant 7th chord)이 된다.

속 7 화음의 3음이 반음 내려가면 단 7 화음(minor 7th chord)이 된다. 단 7 화음에서 5음도 반음 내려가면 반감7 (minor 7(b5))화음이 된다. 그렇게 구성된 7 화음은 고유한 순서로 화성 진행이 이루어지며 그 표기는 로마숫자로 하는데 아래와 같다.

화성진행	I MA7	II MI7	III MI7	IV MA7	V 7	VI MI7	VII MI7(b5)
C 장조	C MA7	D MI7	E MI7	F MA7	G 7	A MI7	B MI7(b5)
E 장조	E MA7	F# MI7	G# MI7	A MA7	B 7	C# MI7	D# MI7(b5)

나. 제재곡의 구조별 화성 진행

‘붉은 노을’의 악곡 구조별 화성 진행과 그 분석은 다음과 같다.

마디 악곡구조	1	2	3	4	5	6	7	8
전주/간주 /후주	E	E	C#m	A, B7				
	I	I	VI	IV, V				
악 절	E	E	C#m	A, B7				
	I	I	VI	IV, V				
연 결 부	E	B7	C#m	A, B	G#m	C#m	A	B7
	I	V	VI	IV, V	III	VI	IV	V
후 령 구	E, G#m	C#m	A, B7	E, A, B	E, G#m	C#m	A, B	E
	I, III	VI	IV, V	I, IV, V	I,III	VI	IV, V	I

- 1) 온음계 화성에서 I, III, VI도 화음은 으뜸화음(tonic)으로, II도, IV도는 버금딸림화음(sub-dominant)으로, V도, VII도는 딸림화음(dominant)으로 나눈다. 이 곡의 기본화성진행을 살펴보면 버금딸림화음에서 딸림화음을 거쳐 으뜸화음으로 진행한다.
- 2) 전주와 간주는 4 마디 구조를 두 번 반복하고, 후주는 4번 반복한다. 악절 역시 이와 같은 화성 진행을 두 번 반복한다. 온음계 화성진행의 으뜸화음인 I도와 VI도를 연속 배치하였고, 마지막 제 4 마디에는 버금딸림화음 IV도와 딸림화음 V도를 배치하여 종지를 이루며 다시 으뜸화음으로 진행하고 있다.
- 3) 연결부는 8 마디 구조를 두 번 반복하며 비교적 긴 16 마디를 이루고 있다. 이 부분은 제재곡 중 가장 온화한 분위기의 악곡으로 활기찬 후렴구와 대조를 이룬다.
- 4) 후렴구에서도 으뜸화음에서 버금딸림화음, 딸림화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종지의 형태는 음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진행이다.

‘붉은 노을’은 E 장조의 곡으로서 사용된 화성은 I도, III도, IV도, V도, VI도이다. 악보를 보며 각 화성 위에 화음 기호를 적어보며 화성을 분석한다.

3. 리듬 - 8 비트 (8th beat)/당김음

가. 8 비트

8 비트는 8분 음표 위주로 구성된 리듬으로, 락 음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리듬이다. 4분 음표와 조합하거나, 8분 쉼표, 또는 이음줄 등을 사용하여 4 비트 음악보다 더 다양한 리듬의 조합이 가능하다.

- ☑ 악기별로 악보를 보며 4 마디 단위로 리듬 읽기를 지도하고, 베이스 악보와 드럼 악보를 비교하며 제재 곡의 기본 리듬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나. 당김음(syncopation)

약박의 음이 같은 음정으로 계속되는 다음 마디의 강박으로 붙임줄로 이어졌을 때, 또는 강박에 쉼표가 붙었을 때, 약박에 강세(accent)가 붙었을 때 생기는 리듬이다. 같은 마디 안에 있거나 또는 두 마디에 걸쳐지는 경우도 있다.

제재곡 후렴구의 제 1 마디에서 제 2 마디로, 제 3 마디에서 제 4 마디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모든 악기는 당김음으로 연주하여야 하는데, 이때 의도적으로 강세를 두어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악기별로 악보를 보며 당김음이 발생하는 부분의 리듬 읽기를 지도한 후 악기로 연주한다.

4. 악곡의 구조

전주 - 제 1 절 - 후렴구 - 제 2 절 - 후렴구 - 간주 - 제 3 절 - 후렴구 - 후주

전주, 간주, 그리고 후주는 같으며, 제 1절과 제 3절도 같은 선율로 가사만 다르다. 제 2절은 1, 3절과 화성 진행은 동일하나 가창 선율이나 악기 연주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다.

수업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악 감상을 통하여 악보의 흐름과 악곡 구성을 파악한다. 2. 온음계에서의 7화음 코드와 화성 진행 이론을 이해하고 제재곡의 화성을 화음 기호로 분석한다. 3. 8비트 리듬 읽는 법과 기본 연주 기법을 익히고 악보를 보고 연주한다. 4. 각 악기별로 악절 부분의 화성과 리듬을 연주한다.
-------	--

가 창

악곡의 부분	학 습 활 동
악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 마디부터 가창이 시작된다. 1절 부분의 리듬적 특징은 홀수 마디의 첫 음의 길이가 2분 음표 또는 8분 음표와 점 4분 음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어 8분 쉼표 뒤에 다시 8분 음표가 나오는 형태이다. 즉 마디의 전반부는 길게, 그리고 후반부는 짧은 리듬으로 되어 있다. 이때, 홀수마디의 첫 박의 음표 길이만큼 음정을 지속해주어야 부드러운 가창이 이루어진다. • 홀수 마디의 제 3 박의 쉼표에서 충분한 호흡을 해야 리듬이 고르게 가창을 유지할 수 있다. 호흡의 경우 쉼표가 있을 때마다 숨쉬는 것이 보통이며 가사 내용의 연결과 단절에 따라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무엇보다 전주 후 노래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서는 듣는 사람이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한 발음과 음정으로 부른다. • 불필요하게 강하게 부르면 음이 딱딱 끊어지게 들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한 음씩 강조하기보다는 강박에 위치한 음절들의 첫 자음에 악센트를 주어 발음함으로써 가사의 연속성은 유지하되 리듬감은 살릴 수 있도록 한다. 가사에 리듬만을 실어 여러 번 부른 후 가락을 붙여 노래하여, 빠른 템포의 노래에서 가장 중요시 요구되는 리듬감을 잃지 않도록 주의한다.
5~9마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마디의 ‘뽀’, 제 6마디의 ‘면’ 제 9마디의 ‘나’ 는 약간 끌어올리듯 부르되 바이브레이션 없이 간결하게 제 박자만큼 지속시켜 부른다.
7마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7마디와 9마디 등에 나오는 음의 도약이 넓은 부분의 음정을 정확히 이어 부를 수 있도록 지도 한다

10마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0 마디의 높은 라 음은 남자 음역으로는 매우 고음이므로 정확한 음정을 구사할 수 있도록 반복 지도한다.
------	---

건 반

악곡의 부분	학 습 활 동
악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건반(synthesizer)에서 현악(strings) 음원과 피아노 음원을 찾는 법을 지도하고 각 음원에 따른 연주법을 강의한다. • 현악의 경우 건반을 누르자마자 음이 발생하는 음원을 선택해서 연주하여야 하고, 보통의 피아노 연주처럼 양손을 다 연주하거나 적혀있는 코드의 구성음을 다 눌러 연주하지 않아도 된다. 스트링은 음악의 맛을 더욱 살려주는 조미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드의 구성음을 다 연주하지 않더라도 좋은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피아노의 경우 음의 잔향이 많지 않고 밝은 음색의 음원을 사용하도록 한다. <p>피아노는 악보에 나온 대로 4 비트 위주의 비교적 단순한 연주를 하면 되므로 초급자가 연주하기에 적합하다. 반면에 건반 현악은 전주부터 악절에 걸쳐 제 4 박에 나오는 16분 음표와 점 8분 음표의 조합을 연주할 때 8 비트 이외의 리듬 변형을 정확히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건반을 누를 때 그 부분에서 더 강하게 연주해서 전체적으로 경쾌한 리듬을 잘 표현하도록 지도한다.</p>

기 타

악곡의 부분	학 습 활 동
악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워코드(기존 1, 3, 5도로 구성된 코드에서 3도 음을 빼버리고 으뜸음인 1도와 5도음으로만 이루어진 코드)의 구성을 이해하고 각 코드의 으뜸음에 따른 움직임 이해한다. • 전체적으로 전주와 악절에 걸쳐 기본 운지를 온음표나 2분 음표로 유지하는 연주 형태이다. 평이해 보일 수 있으나 초급자의 경우 정확한 음표 길이를 연주하고 다음 운지로 화성을 연주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고, 가급적 음의 울림이 좋은 운지법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전자기타의 앰프의 소리는 맑고 잔향이 풍부하게 조절하고, 악곡 전체

	를 피크를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팔을 내리듯이 연주하는 ‘다운 피킹(down picking)’ 으로 연주하게 한다. 예외적으로 전주의 제 4 마디의 제 3 박의 B7 화성은 ‘업 피킹(up picking)’ 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 연주한다.
--	--

 **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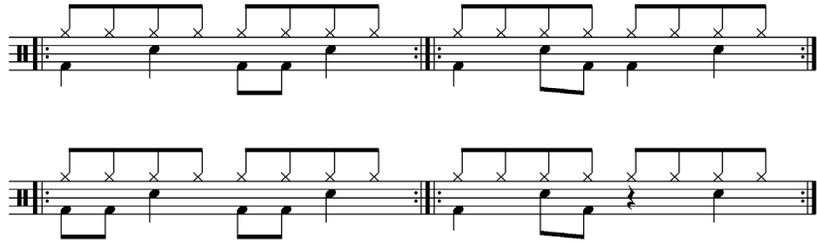
악곡의 부분	학 습 활 동
악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의 기본은 메트로놈을 사용하여 시작한다. 속도는 원래 템포보다 상당히 느리게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금씩 올려 박자에 맞추어 정확한 연주를 하는 것을 연습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원래 빠르기보다 약간 빠르게 연습을 해서 실제 합주 시에 베이스의 연주가 훨씬 여유로울 수 있도록 연습을 한다. • 드럼과 함께 8 비트 연주의 기반이 되는 연주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락 베이스 주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2 손가락 (two finger) 주법’ 을 사용하여 일정한 음의 강약으로 8분 음표를 두 손가락으로 교차하며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p>이때 사용되는 손가락은 검지와 중지이고 엄지는 베이스 몸체에 고정하여 안정된 연주가 가능하도록 손 전체를 지지한다. 손목을 구부려서 손바닥과 베이스의 몸체가 서로 마주보게 하여 연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p> <p>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간격이 좁은 ‘브이’ 를 만들고, 엄지를 살짝 펴서 넥 쪽 픽업 위에 손끝을 살짝 올려 둔다. 어깨와 팔은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포지션에 맞게 왼손을 움직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피크나 슬랩을 사용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자의 경우 피크를 사용하여 다운 피킹만 사용하여 연주하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중급자의 경우에도 더욱 강한 표현을 위하여 엄지손가락이나 피크로 연주하는 방법도 지도할 수 있다. • 제 5 마디 이후 악절에 나오는 8분 쉼표는 음정은 없지만 의도한 약음(ghost note)을 연주하여 전체적인 8 비트의 리듬감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 방법으로는 뮤트(mute) 주법이나 커트(cut) 주법이 있다. • 제재곡의 핵심은 당김음을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하고 8분 음표의 리듬감을 표현력 있게 살리는 것이므로, 이에 유의하여 충분히 연습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 베이스의 기본연습</p>

--

드럼

악곡의 부분	학 습 활 동
악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의 빠르기를 결정하는 드럼의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한 박자의 유지이다. 그리고 악곡마다의 전체 음량을 결정하는 악기도 드럼이므로 드럼 연주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음악적 배경을 잘 설명하여 다른 악기 전체를 생각하며 연주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전체적으로 8 비트의 하이 햇(hi-hat) 연주에 전주와 악절의 베이스 드럼(bass drum)과 스네어 드럼(snare drum)의 형태가 다른 연주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하이 햇 심벌과 스네어 드럼의 연주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8분음표 베이스 드럼 연주에 변화를 주어 8비트 드럼 리듬의 연주 방법을 다양하게 연출해보자.

•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8비트 드럼 리듬을 학습해보자.



• 전주의 홀수 마디마다 나오는 크래쉬 심벌(crash cymbal)의 연주는 정확하고 강해야한다. 제 5 마디부터 악절 전체에 걸쳐 베이스 드럼과 스네어 드럼의 악박에서의 8분 쉼표와 8분 음표의 조합이 전체의 리듬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반복 지도를 통하여 악보를 암기하여 연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차시

전주 / 악절

합주 지도

수업 목표

1. 음악 감상을 통하여 악보의 흐름과 악곡 구성을 파악한다.
2. 각 악기별로 음악에 맞는 음원을 선택한다.
3. 전주와 악절의 강약을 구별하여 연주한다.
4. 주어진 박자의 빠르기에 맞게 악보를 암기하여 연주하며 연주자들 간의 호흡을 맞추어 합주한다.

합 주

악곡의 부분	학 습 활 동
음원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창 믹서의 1번 채널에 마이크를 연결하고 음량을 -10dB에 맞춘다. 잔향(reverb)을 필요한 만큼 설정하고, 선명한 음색에 방해가 되는 저음역대는 일부 제거한다. 이때 입력단의 음량이 과도하게 크면 고음역의 거슬리는 잡음(feedback)

	<p>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음의 좌우(pan)는 중앙으로 고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반 현악 및 전자 피아노 믹서의 3, 4번 채널에 건반 현악을, 5, 6번 채널에 전자 피아노를 각각 연결한다. 각 악기의 음의 좌우를, 홀수 채널은 완전히 왼쪽으로, 짝수 채널은 완전히 오른쪽으로 고정한다. 건반 현악의 음량은 상대적으로 커야 하므로 -5dB에 맞춘다. 전자 피아노는 -10dB로 조정한다. 이후 각 악기에서 연주의 진행에 따라 음량을 조절한다. • 기타 기타 앰프의 음색을 맑은 소리(clean)로 선택하고 기타와 앰프 사이에 오버드라이브를 연결한다. 기타의 음량은 최대 음량의 1/2로 선택한다. 이때 오버드라이브를 사용했을 때 전체 음량이 사용 전보다 약간 커지는 정도로 오버드라이브의 출력을 설정한다. 음이 찌그러지는 정도는 2/3으로 설정한다. • 베이스 베이스 앰프의 음량은 최대 음량의 1/2로 선택한다. 음색의 설정은 크게 조정하지 않는다. • 드럼 드럼의 음량은 연주자의 연주에 의해 조절된다. 너무 크지 않게 연주 지도한다.
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는 4 마디로 구성되었는데 2번 반복하여 총 8 마디이며, 건반 현악이 주선율을 연주한다. 다른 악기들은 비교적 리듬의 기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 악보의 첫마디가 시작되기 전 드럼 연주자가 드럼 채를 사용하여 지정된 박자에 맞는 4분 음표를 한 마디(4회) 연주한다. 이는 다른 연주자들이 앞으로 연주할 기본 박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전주는 제재 곡이 전하려는 분위기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힘차고 경쾌하게 연주하도록 지도한다. 가장 주가 되는 악기는 건반 현악이므로 다른 악기의 음량이 그보다 크지 않도록 유의 시킨다.
악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창이 시작되는 부분으로서 가창주자는 전주를 들으며 호흡을 예비한 후, 제 5 마디 제 1 박에 정확하게 가창을 시작한다. 이때 전체 악기는 전주에서 연주되던 음량을 1/2 정도로 줄여 연주하도록 한다. 이는 가창을 잘 들리게 하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이후 나오는 후렴구와의 강약 대비를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수업 목표

1. 악보를 보며 화성 진행의 특징을 파악한다.
2. 제재 곡의 악곡 구조의 특징을 이해한다.
3. 8 비트에서의 당김음을 이해하고, 악보를 보고 실제 연주한다.
4. 각 악기별로 후렴구와 연결부의 화성과 리듬을 연주한다.

가 창

악곡의 부분	학 습 활 동
후렴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절의 가창 이후 제 13 마디부터 바로 후렴구가 나오므로 제 12 마디부터 가창의 음량을 점점 크게 하여 후렴구에서는 최대 음량으로 가창하도록 지도한다. • 고음부의 가창이 많으므로 가창을 하지 않는 쉼표에서 충분한 호흡을 한 후에 그 호흡으로 음정을 낼 수 있도록 가창법을 지도한다. 호흡이 부족한 경우 성대에 무리한 힘을 주어 음정을 끌어올리게 되고, 이는 정확한 음정을 내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 또한, 소리를 머리 위쪽과 뒤쪽 부분으로 보내듯이 올려냄으로써, 자칫 날카로울 수 있을 고음 소리를 부드러운 느낌이 나도록 프레이징 처리한다. • 특히, 음절의 첫 자음을 또렷이 발음 해 줌으로써, 정확한 음정과 리듬을 유지 할 수 있음을 숙지하게 한다. • 제 12마디부터 점점 크게 하여 제 13마디는 한 음절씩 강하고 또렷하게 제 14마디의 ‘네’ 는 너무 길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제 15, 16마디는 앞마디보다 부드럽고 애절한 감을 살려서, 제 17, 18마디는 강하게, 특히 ‘만’ 은 잔 바이브레이션으로써 길게 던지듯이, ‘대답’ 은 점 리듬을 충분히 살려 부르도록 한다.
연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1 마디부터 제 36 마디까지의 연결부의 가창은 후렴구와 대비하여 부드러운 창법으로 가사의 의미 전달과 표현력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도록 한다. • 제 29마디의 ‘아’ 는 잔 바이브레이션으로 애절함을 표현하고 제 36마디에선 점점 크게 진행하고, 제 37, 38 마디에서 폭발하듯 강하게

	<p>블러주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의 끝부분까지는 제 13마디부터 제 20마디 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	---

건 반

악곡의 부분	학 습 활 동
후렴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반 현악과 전자 피아노의 후렴구 연주는 당김음의 강세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후렴구 전체에 걸쳐 홀수 마디에서 짝수 마디로 넘어가는 부분에 당김음이 배치되어 있다. 당김음을 연주할 때에 강세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그러나 강세에만 집중하여 연주하게 되면 템포가 빨라질 수 있다. 드럼의 박자에 귀 기울여 안정적인 템포로 연주할 수 있게 지도한다. • 전자 현악의 경우 건반을 누르는 강약과 길이에 따라 음색이 변하므로 적합한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전체적으로는 강하게 표현되는 부분이지만 스트링은 배경의 역할로서 멜로디 라인으로 연주를 하지만 도드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음 한 음 강조하여 연주하지 않고 음표의 길이를 충분히 연주하며 다음 음으로의 연결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연주한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연주하는 것이 어려울 때엔 지속 페달을 사용하여 연주하는 것도 좋다. • 전자 피아노의 경우에는 짝수 마디에서도 당김음을 연주하여야 하므로 8 마디인 후렴구의 리듬 형태를 4 마디 씩 나누어 중점 지도하고, 이후 8 마디 형태의 전체 연주로 연습하도록 한다.
연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부의 건반은 4 비트 형태로 전환되며 전체적인 악곡에서 8 비트에서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하는 연주가 되어야 한다. 연주 음량도 2/3 정도로 작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 타

악곡의 부분	학 습 활 동
후렴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절에서 후렴구로 전환되는 제 13 마디 바로 전에 효과기인 오버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음색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제 12 마디에서 제 4박의 8분 음표 약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후 당김음의 연주에서는 당김음 바로 직전에 기타 줄을 잡은 왼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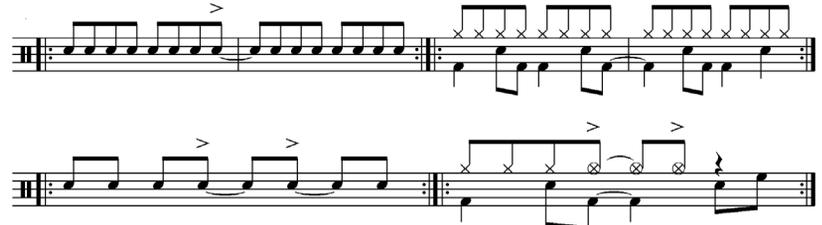
	살짝 들어 올려 다운 피킹하며 의도한 잡음을 연주하여 이어지는 업 피킹에 의한 당김음 연주의 긴장감을 강화하는 주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커트(cut) 주법이라 하며 락 음악의 강렬한 표현을 위한 중점사항이다.
--	--

베이스

악곡의 부분	학 습 활 동
전주, 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후주 부분은 ‘붉은 노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특유의 멜로디와 코드나 오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5 ~ 12마디, 21 ~ 36마디에 있는 도입 부분에서 가장 중요히 여길 것은 리듬에 충실한 일이다. 드럼의 하이 햇 연주와 맞물려 8분 음표를 최대한 강도 있게, 음표의 길이를 실제의 길이보다 4분의 1을 짧게 연주한다는 느낌으로 연주하면 훨씬 긴장감 있는 리듬으로 연주 할 수 있을 것이다.
후렴구와 연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곡에서 제 13 마디부터 시작되는 2 손가락 주법으로 8 비트 락의 리듬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악기인 베이스는 당김음 이외에는 일정한 음량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한다. 당김음에서는 강세를 주어 전체 악기들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13 ~ 20마디, 37 ~ 44마디에서는 8분 음표 리듬이 계속된다. 초보자의 경우 일단 이 부분은 충분히 연습을 한 후에 합주를 하도록 한다. • 당김음 부분은 메트로놈을 사용하여 일정한 속도로 연주하도록 하고 악보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합주하도록 한다. • 연결부에서는 잠시 연주를 정지하는 듯 최소 음만을 연주하며 이후 후렴구에서의 8 비트 연주를 준비하도록 한다.

드럼

악곡의 부분	학 습 활 동
후렴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2 마디의 제 4 박에서 탐 탐(tom tom)³⁸⁾ 연주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 13 마디 시작을 경쾌한 심벌 연주로 정리하여 이후 곡의 클라이막스의 당김음에서는 심벌 연주로 강세를 정확히 표현하도록 한다. • 후렴구의 가장 큰 변화는 베이스 드럼의 배치이다. 악절과는 달리 두

	<p>마디 형태를 반복하여 연주하며 전체적인 리듬을 단순화한 것이 후렴구의 당김음 연주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분 음표의 당김음 연주로 이 곡의 후렴구 느낌을 잘 살려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은 후렴부에 사용된 당김음 패턴을 연습하여 보자. 
연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부에서는 최고 음량의 1/2로 연주하다가 제 36 마디에서는 점점 음량을 크게 연주하여 후렴구로의 긴장감을 조성하도록 지도한다.

4 차시 후렴구 / 연결부 합주 지도

수업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악 감상을 통하여 악곡 구성의 변화에 따른 음량의 변화를 파악한다. 2. 각 악기별로 적합한 음색을 선택한다. 3. 후렴구와 연결부의 강약을 구별하여 연주한다. 4. 주어진 박자의 빠르기에 맞춰 제재곡 전곡을 조화롭게 합주한다.
--------------	--

38) 드럼 세트 중의 하나.

합 주

악곡의 부분	학 습 활 동
음량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럼을 중심으로 악기 간 음량을 설정한다. 최대 음량으로 연주해야 할 후렴구를 반복 연주하며 바람직한 음량으로 조절한다. 이때 지도교사가 합주 전체의 소리를 듣고서 합주에 조화로운 음량의 설정을 지도하도록 한다.
전곡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차시의 연주에 비해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악곡 부분별 연주를 선행하도록 한다. 이 때 악기별 중점사항을 다시 한번 지도한다. • 악곡 전개에 맞게 연주하는가를 관찰하며 당김음에서의 전체 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의한다. 이 때 악기간의 음량의 조화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악곡 구조의 전환에 따른 음량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여 연주하여 완성도 있는 제재곡 합주가 되도록 한다.

3.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적용의 결과

실용음악 합주 프로그램 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프로그램의 적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수정하기 위하여 시범 수업을 실시하였다.

가. 시범 수업의 계획

실용음악 합주 프로그램 시범 수업의 대상, 수업의 차시, 학습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은 다음의 <표 6-5>와 같다.

<표 6-5> 실용음악 합주 시범 수업의 계획

항 목	내 용
수업 유형	방과 후 수업
수업 대상	상신 중학교 밴드부 2학년 학생 11명
수업 교사	개별수업 : 가창,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교사 모듬수업 : 드럼 교사
수업 차시	2차시(16:00~16:45, 17:00~17:45)
학습 내용	실용음악 합주(양상블)
단원 주제	팝 락-7화음 : 붉은 노을

학교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조사에서 심층 인터뷰한 학교인 서울 상신중학교의 밴드부 2학년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시범 수업을 실시하였다. 시범 수업에는 가창,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전공의 교사 5명³⁹⁾이 참가하였고, 2009년 10월 28일 정규 수업 후인 16시 이후에 각 두 차시의 45분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39) 가창교사:나○○(실용음악학원강사), 건반교사:김○○(실용음악과 2학년학생), 기타교사:이○○(실용음악학원강사), 베이스교사:김○○(실용음악과 2학년학생), 드럼 및 합주교사:문○○(실용음악학원강사),

수업의 내용은 실용음악 합주이고, 단원의 주제는 ‘팝 락-7화음 : 붉은 노을’ 단원을 선정하였다. 다음은 1차시 악기별 수업과 2차시 전체 합주 수업의 간단한 수업 지도안이다.

1차시 수업 지도안

단 원	팝 락 - 7화음		
제 재 곡	‘붉은 노을’ 중 전주~악절		
수업유형	악기별 개별 수업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상을 통하여 팝 락 악곡의 분위기와 구성을 파악한다. 2. 온음계에서 7화음 코드와 화성 진행을 이해한다. 3. 8비트 리듬 읽는 법을 익히고, 악보를 보고 연주한다. 4. 각 악기별로 전주 및 악절 부분의 화성과 리듬을 연주한다. 		
수업전개	<p><도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팝 락 장르에 대해 설명하고 대표곡을 알아본다. <p><전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재곡의 전주부터 악절 부분을 들으며 악곡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악곡의 구조에 대하여 이해한다. 3. 마장조에서 7화음 코드와 화성 진행을 이해한다. 4. 악기별로 해당 악곡의 연주에 필요한 화성 및 리듬적 연주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주한다. <p>-가창 : 충분한 호흡과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하며, 강박에 위치한 음절들의 첫 자음에 악센트를 주어 발음함으로써 가사의 연속성은 유지하되 리듬감은 살릴 수 있도록 한다.</p> <p>-건반 : 전자 건반악기에서 피아노 음색과 현악 음색을 찾아 연주한다. 현악 건반에서는 8 비트 이외의 리듬 변형을 정확히 연주한다.</p> <p>-기타 : 파워코드를 이해하고 커팅 스트로크 연주법을 익힌다.</p> <p>-베이스: 8 비트를 기본으로 연주한다. 의도한 악음을 연주하기 위하여 뮤트(mute)주법이나 커트(cut)주법을 익힌다.</p> <p>-드럼 : 전체적으로 8 비트의 하이 햇(hi-hat)연주를 익힌다. 전주와 악절에서는 베이스 드럼과 스네어 드럼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연주를 해서 음량의 차이를 내도록 한다.</p>	자 료	<p>▶ 제재곡 음원</p> <p>▶ 컴퓨터</p> <p>▶ 악보</p> <p>▶ 악기 및 앰프</p>
정 리	1. 정확한 선율과 리듬으로 제재곡의 전주 및 악절을 연주한다.		

2차시 수업 지도안

단 원	팝 락 - 7화음		
제 재 곡	'붉은 노을' 중 전주~악절		
수업유형	전체 합주 수업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상을 통하여 팝 락 악곡의 분위기와 구성을 파악한다. 2. 각 악기별로 악곡의 흐름에 맞는 음원을 선택한다. 3. 전주와 악절의 강약을 구별하여 연주한다. 4. 주어진 박자의 빠르기에 맞게 악보를 외워 연주하며 연주자들 간의 호흡을 맞추는 연주한다. 		
수업전개	<p><도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악기별로 연습한 제재곡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악곡의 부분별 특징에 대하여 토론한다. <p><전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악곡의 부분별 분위기에 맞는 음원을 선택하고 음량을 조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창 : 마이크의 잔향을 필요한 만큼 설정하고, 선명한 음색에 방해가 되는 저음역대는 일부 제거한다. -건반 : 믹서의 3, 4번 채널에 건반 현악을, 5, 6번 채널에 전자 피아노를 각각 연결한다. -기타 : 기타 앰프의 음색을 맑은 소리(clean)로 선택한다. -베이스: 베이스 앰프의 음량은 최대 음량의 절반으로 한다. -드럼 : 너무 큰 소리로 연주하기보다는 악곡의 부분 별로 음량의 차이를 내도록 한다. 3. 전주에서 악절까지의 부분을 그룹별로 연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 : 힘차고 경쾌하게 연주하도록 지도한다. 전주에서 가장 주된 악기는 건반 현악이므로 다른 악기의 음량이 그보다 크지 않도록 유의한다. -악절 : 가창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다른 악기는 전주에서 연주하던 음량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가창과의 조화를 이룬다. 4. 모듬별로 연주하면서 악기별 주의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자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 음원 ▶ 악기 및 앰프
정 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듬별 연주 후 서로의 장단점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시범 수업의 실시

1) 1차시 수업

시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가창 2명, 건반 2명, 기타 3명, 베이스 3명, 드럼 1명 모두 11명이었다. 방음 설비가 되어있는 합주용 음악실과 일반 음악실, 그리고 일반 교실에서 다섯 명의 악기별 교사와 학생들이 전공 악기별로 나누어서 1차시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6-1] 합주용 음악실과 가창 수업용 일반 음악실

일반 교실에서는 기타와 베이스 개별 악기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6-2] 기타와 베이스 개별 수업

합주용 음악실에서 건반과 드럼 개별 악기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6-3] 건반과 드럼 개별 수업

2) 2차시 수업

전공 약기별로 이루어진 1차시 수업이 끝난 후 모든 학생들이 합주 수업을 위한 음악실에 모여서 모듈별 합주 수업을 하였다. 먼저 밴드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제재곡의 합주에 대한 전반적인 유의 사항을 설명하였다.



[그림 6-4] 전체 합주 수업

기타와 베이스 전공의 학생들이 각 3명이었기 때문에 3개의 모듈로 나누어서 합주 수업을 진행하였다. 각 모듈별로 전 곡을 3~4회 정도 연주하면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지도하였다.



[그림 6-5] 모듬별 합주 수업

그리고 모듬별 연주 후에는 서로의 장단점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다. 시범 수업의 결과

실용음악 합주 프로그램 중 ‘팝 락-7화음 : 붉은 노을’ 단원의 1차시, 2차시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 수업을 마친 후 연구진과 수업 관찰자 교사, 그리고 다섯 명의 시범 수업 교사가 모여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 하였다. 토론회의 결과,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학교 수업에 적용되기에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차시의 개별 악기 지도로 진행된 수업 가운데서 가장 수업은 제재곡인 ‘붉은 노을’ 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악곡이었기 때문에 지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팝 락의 분위기와 7화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 건반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피아노를 어느 정도 배웠던 학생들이라 악보 읽기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7화음의 이론을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설명하고 연주에 필요한 코드를 하나씩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기타 수업에서도 연주법을 익히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세 명의 학생들이 선수 학습의 정도에서 상당히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화음 이론의 설명이나 코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웠다. 베이스 수업은 제재곡의 베이스 부분이 연주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주법을 쉽게 익힐 수 있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코드 이론과 7화음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2차시에는 밴드부 전체 학생 11명과 다섯 명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드럼 교사가 리더가 되어 합주 수업을 진행하였다. 소수의 인원이 모여 각자 전공 교사로부터 연주법 및 이론 수업을 받은 1차시 수업이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던데 비해, 2차시 수업은 실제 악기를 다루면서 연주를 하는 수업이라 학생들이 훨씬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합주 수업에서는 악기들 간의

조화를 중점적으로 지도했는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반복하여 연습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들으며 박자와 빠르기, 그리고 음량을 조절하는 것을 훈련하였다.

시범 수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밴드부 학생들이 음악을 매우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으며, 연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큼 음악 이론적인 지식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의 합주 수업에 악곡의 구조나 화성, 리듬 이론 등의 이론적인 학습과 연주법에 대한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밴드부 학생들도 시범 수업을 마친 후, 이론적인 지식이 실제 음악 연주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는 소감문을 발표해 주었다. 다음은 합주 시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송○○(베이스)

오늘 시범수업을 듣고 나서 실제 연주하는 것은 물론 이론적인 지식까지 많이 늘은 것 같다. 45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수업시간에도 불구하고 기량이 향상된 것이 보이는데 지속적인 수업만 들으면 연주 실력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에 다시 한번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도 재미있고 잘 가르쳐주셨다.

원○○(건반)

수업 받기 전에는 이론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악보대로 대충 쳐가면서 내가 고쳐 가는 게 다여서 오래 쳤다 했어도 좀 엉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레슨을 받고 난 후 코드 종류나 그런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 좋았다. 선생님도 재밌었고 수업도 재밌었다. 주마다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과 좋은 인연을 갖게 될 것 같다. 끝날 때 아쉬웠다.

서○○(가창)

보컬수업을 받기 전에는 음악의 대한 표현력이 부족했는데 수업을 받고 나서 노래는 정말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어떤 장르의 노래는 어떻게 부르고, 어느 부분에는 더 세게 부르고 여리게 부르는지 음악에 대한 표현을 더 섬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약 일주일의 분량을 배웠다.

오○○(건반)

피아노 레슨을 받기 전에는 이론을 잘 모르고 코드도 대충치고 악센트나 흐름이나 줄 길 줄을 몰랐는데 수업을 받아보니 살짝 이지만 개념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좋았고 오늘 배운 것으로도 기초는 되니깐 생각하면서 칠 수 있는 것 같다. 소리를 하나하나

들을 수 있으므로 합주도 잘 한 것 같고 얻은 것이 많다. 그렇지만 잠깐 해본거라 아쉽다. 될 수 있다면 주마다 레슨을 받았으면 좋겠다. 레슨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엔 한곡을 다 했으면 좋겠다.

개발된 합주 프로그램을 밴드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수업한 결과, 연주 실기 방법을 지도하는 것보다 화성이나 리듬 이론에 대한 설명에 좀 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범 수업 대상으로 선정한 밴드부 학생들은 소속 교육청의 밴드부 경연대회나 각종 축제에서 연주한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밴드 수업이 주로 실기 중심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체계적인 이론적 학습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시범 수업 후 학생들의 소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악곡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곧 바로 연주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학습의 단계이다. 그러므로 개발된 합주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의 수업에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악곡의 화성 및 리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학습 부분을 실제 연주와 긴밀하게 연결시켜 충분히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합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기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표현력 있는 연주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과 소양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V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 가운데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하나인 실용음악을 중심으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대중문화예술교육의 성격을 탐구하고 학교 교육에서 실용음악 교육의 의미를 정리했으며,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음악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가운데서 우수한 수업을 심층 조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사례도 분석함으로써, 학교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와 요구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학교에서 실용음악 교육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우리 현실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탐색하였고,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시사점을 얻었다.

연구의 산출물로 중고등학교의 계발 활동, 특별 활동, 또는 방과 후 교육 과정에 적합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시범 수업을 실시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학교 교육에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교육에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음악 교육프로그램이 학교 안에서 만의 교육이 되기 쉬운데 비해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즐겨 듣고 노래 부르는 일상생활에서의 음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덕분에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은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대시켜 연주 실력을 향상시키고 음악을 생활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창조적인 분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물론,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실용음악 관련 이론이 소개되고, 여러 시대와 문화권의 가요를 부르게 하며, 기타나 드럼 등의 실용음악 악기 연주 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규 음악 수업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학습하기란 매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방과후학교나

계발활동 등을 통하여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이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등록된 실용음악 관련 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이라는 점과 이미 방과 후학교나 계발활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인기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앞으로의 실용음악 교육 수요자들을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실용음악 수업시간이 더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학교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용음악 교육을 위한 교실 시설과 악기 및 악보, 여러 가지 음향기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방음 시설이 되어 있는 음악실, 악기, 마이크와 앰프, 녹음 및 편집기기 등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다. 앞에서 우수 사례로 살펴본 학교들은 개인의 후원이나 학교의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악기들을 구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이 연습할 수 있는 악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를 중심으로 실용음악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충분히 구축하여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연주 무대와 축제적인 음악 활동의 기회를 가지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용음악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담당교사들은 전문적인 지도교사, 개인별 레슨,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의 병행 등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대해서 높은 요구 정도를 표하였고, 학생들도 효과적인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악기별 개인 레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연주 기술과 같은 음악 내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음악이론 교육, 무대설치와 관련된 교육, 그리고 발표회와 같은 무대경험에 대한 요구도 있다. 따라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하나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하는 연주 실기에 대한 교육과 함께, 악곡의 구조나 화성, 리듬 이론 등의 이론적인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과 지역 사회의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개설의 측면에서는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보다 좋은 시설과 우수한 강사 자원을 소유한 학교에서 인근 학교들과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해당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저렴한 수강료로 질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의 측면에서는 은평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이 좋은 사례가 되는데, 지역 방송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공연을 방송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공연의 기회를 열어줌과 동시에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도 문예 진흥 관련기관들이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및 공연을 기획하고 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은 이제 씨앗을 뿌리는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적인 지원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인력 등이 균형 있게 공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전문성을 갖게 될 것이며 창조적인 미래 사회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저서]

- 곽금주(2000). 한국 청소년의 정서문화, 그 문제와 처방: 대중음악과 청소년 정서문화, 「교육마당21」 통권 220호, 99-102.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특별활동 교육과정.
- 권낙원(1997). 열린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현대교육출판.
- 김동윤(2000). 중등음악 교육과정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의 도입가능성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
- 김혜경(2000). TV방송음악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음악과민족」 19, 244-266. 민족음악학회.
- 노영해(1990). 실용음악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구실하나, 「음악동아」 78, 72-77. 동아일보사.
- 문선임(2001).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음악교육 방안 연구: 특기, 적성교육 system을 적용하여. 경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봉(1999). 대중예술의 미학. 서울: 동연.
- 박철홍(2001). 민족음악학회 창립 제 10 주년기념 특집 '우리시대의 음악: 대립과 공존' 특집 1 / 예술음악과 대중음악; 대중음악(실용음악)의 재해석과 대학의 수용현황. 「음악과 민족」 Vol. 21, 47-71. 민족음악학회.
- 박철홍(2002). 실용음악의 현황과 전망, 「음악과 민족」 Vol. 23, 63-93. 민족음악학회.
- 손욱(2003). 실용음악학과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화숙(2004). 음악학적 대상으로서의 대중음악: 대중음악에 대한 이론적, 분석적 접근가능성에 관한 소고, 「音樂學」 제11집, 249-336. 한국음악학회.
- 안미자, 김혜영(1999). 고등학교 음악수업에 적절한 한국대중가요 선택에 대한 연구, 「교과교육학연구」 3(1), 88-105.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과교육연구소.
- 양은주, 강민선(2008). 고등학교 실용음악전문교과서 분석 및 모형 개발, 「음악교육연구」, Vol.35.
- 양종모, 이경연(2003). 음악과 수업 계획서: 중학교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과 예시 자료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원승룡, 김종헌(2001). 문화이론과 문화읽기. 서울: 서광사.
- 윤선희(1998). 대중음악의 영상기호와 한국 청소년문화의 노마디즘 공간, 「언론과사회」 22,

121-150. 성곡언론문화재단 언론과사회사.

- 이광재(2001). 고등학교 실용음악과의 교육과정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동연 외(2008). 2007 문화예술교육포럼.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이성주(2001). 방과후 교육활동 음악 프로그램 개발 및 모형탐구. 「음악교육연구」, Vol.20 No.1
- 이윤정, 박성옥(2001). 청소년의 대중음악 인식과 수용에 관한 연구. 「자연과학」 12(2), 91-116. 대전대학교기초과학연구소.
- 이장직(1990). 대중화시대의 음악. 서울: 상호출판사.
- 이정선(2000). 실용음악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의 모색 : 전문대학 실용음악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화진 외(2005).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콘텐츠 개발 운영 : 내용교수법 및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유희(2005).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수, 정용탁 외(2002). 대중예술의 이해. 서울: 집문당.
- 정혜경(2000). 20세기 전반기 동안의 실용음악의 실체.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용환, 윤여각, 이혁규(2006). 문화와 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주수정, 김승일(2003). 대중음악이 중학교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연구」 24(1), 121-141.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과교육연구소.
- 채완병(1999). 음악교과교육 실기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코다이 솔페주 교수법을 중심으로. 청주교육대학교 논문집, Vol. 36, no.2.
- 최정선(2009). 중학교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에서의 보컬 실기지도 연구 방안 : 실용음악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수정(2001). 음악교재곡의 다양화를 위한 대중음악의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영상(2000). 고등학교 음악교육에 대중음악이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윤환, 조영임(2005). 개별화수업 :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외국 저서]

- Adorno, T. W.(1990). Einleitung in die Musiksoziologie. 김방현 역(1993). 『음악사회학입문』. 서울: 상호출판사.
- Everett, W.(2000). Expression in Pop-Rock Music: A Collection of Critical and Analytical Essays. New York.
- Frith, S.(1987). Towards an Aesthetic of Popular Music, R / McClary, S. (Hrsg.), Music and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3-150.

- Frith, S.(1988). Music for Pleasure, Essays in the Sociology of Pop. Cambridge.
- Frith, S.(1994). Sound effects: Youth, Leisure and the politics of rock'n'roll. London: Routledge.
- Grossberg, L.(1984). Another boring day in paradise: rock and roll and the empowerment of everyday life. Popular Music 4(225-25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 S.(1981). Notes on Deconstruction the Popular, Raphael Samuel(hrsg.). Peoples History and Socialist Theory,(227-240). London.
- Middleton, R.(1990). Studying Popular Music, Open University Press.
- Moore, A. F.(2001). Rock: The Primary Text. Developing a Musicology of Rock. 2 Ed., Aldershot u. a.
- Sadie, S (Ed.). (2001),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New York: Grove.
- Tagg, P.(1982). Analysing Popular Music: Theory, Method and Practice. Popular Music 2(37-67).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인터넷 자료]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kwe.go.kr>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http://afterschool.edunet4u.net>
- 당산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dangsan.ms.kr>
- 도촌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dochon.ms.kr>
- 상신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sangsin.ms.kr>
- 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sls.hs.kr>
-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 <http://www.youthcenter.co.kr>
- 솔울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solohl.ms.kr>
- 아현산업정보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ahyeon.sc.kr/main.html>
- 영창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yumchang.ms.kr>

미국

- 리오 아메리카노 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sanjuan.edu/RioAmericano.cfm>
- 로얄 오크 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royaloakschools.com/portal/rohs>
- 성 마이클 -알베르빌 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hs.stma.k12.mn.us/>
- 브렉스빌 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bbhcsd.org/>

오마하 공립학교 홈페이지: <http://www.ops.org/district/>

전국 음악교육협회 홈페이지: (MENC-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http://www.menc.org/>

영국

덴비 스쿨 홈페이지: <http://www.denbigh.net/>

소햄 빌리지 컬리지 홈페이지: <http://www.sohamvc.org>

제임스 알렌즈 걸즈 스쿨 홈페이지: <http://www.jags.org.uk/jags/>

영국왕립음악원 연합회(ABRSM) 홈페이지: <http://www.abrsm.org>

실용음악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지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를 맡고 있는 공동연구팀입니다.

최근 실용음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방과후학교나 계발활동에 실용음악과 관련된 동아리 및 수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용음악과 관련된 방과후학교 수업 및 계발활동의 운영 실태 및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지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고견 하나하나가 연구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여기며, 성실하신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 9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교육팀 및 연구진 드림
명지전문대학 교수 양은주
경희대학교 교수 한경훈
국제예술대학 교수 강민선
백석예술대학 교수 정승일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선희

- ※ 각 문항의 해당되는 보기에 \surd 나 O를 하거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 본 설문에서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이라 함은 가창,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과 관련된 방과후학교 수업 및 계발활동을 의미합니다.
- ※ 본 설문지는 방과후학교 혹은 계발활동 담당 교사께서 2009년 9월 15일(화)까지 작성하시고, 행정실에 맡겨두시면 2009년 9월 16일(수)에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설문 회수 관련 문의는 김소희 연구보조원 Tel. 010-9290-5404로 부탁드립니다).
- ※ 위의 내용 외에 본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주 교수(Tel. 010-6655-5096)
 - 강민선 교수(Tel. 018-560-0508)

I. 배경 변인

1. 지역(시·도 단위로 기입해 주세요.) : _____

2. 학교 유형

- ① 중학교 ② 인문계 고등학교 ③ 전문계 고등학교 ④ 기타계 고등학교

II.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1. 귀하께서 담당하고 계신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식을 골라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방과후학교
② 동아리
③ (계발활동 중 동아리 제외) 부서활동

2. 귀하께서 담당하고 계신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ex. 밴드부, 드럼반...)

3.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은 1달(4주)에 약 몇 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시간 ④ 4회 이상

4.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은 1회에 약 몇 시간 운영되고 있습니까?

- ① 1시간 ② 2시간 ③ 3시간 ④ 4시간 이상

5.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 ① 5명 이하 ② 6~10명 ③ 11~20명
④ 21~30명 ⑤ 31~40명 ⑥ 40명 이상

6.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를 악기별로 적어주세요.

- ① 가창 : __명 ② 건반 : __명 ③ 기타 : __명 ④ 베이스 : __명
⑤ 드럼 : __명 ⑥ 그 외(악기명과 학생수를 적어주세요) : _____

7.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악기의 수를 적어주세요.

- ① 건 반 : __개 ② 기 타 : __개 ③ 베이스 : __개 ④ 드 럼 : __개
 ⑤ 그 외(악기명과 갯수를 적어주세요) : _____

8.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 ① 음악실 ② 학교 강당 ③ 일반 교실 ④ ①, ②, ③ 외의 교내 공간
 ⑤ 교외 (구체적인 공간을 적어주세요) : _____

9.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지도는 어떤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① 본교 소속의 음악 교사
 ② 본교 소속의 타교과 교사
 ③ 외부 실기 강사

10.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수는?

- ① 1명 ② 2명 ③ 3명

11.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다음의 항목들이 필요한 정도를 표시하여 주세요.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연주실	①	②	③	④	⑤
2) 악기	①	②	③	④	⑤
3) 전문적인 지도 교사	①	②	③	④	⑤
4) 이론 수업과 실기 교육의 병행	①	②	③	④	⑤
5) 악기별 개인 레슨	①	②	③	④	⑤
6) 그 외 : _____	①	②	③	④	⑤

12.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얼마만큼 동의하시는지 표시하여 주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 증대	①	②	③	④	⑤
2) 정서 지능(EQ) 향상	①	②	③	④	⑤
3) 음악적 기술 향상 (예. 악기 연주 기술)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생활에 적극적인 태도 함양	①	②	③	④	⑤
5) 스트레스 해소	①	②	③	④	⑤
6) 소질 발견 및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7) 그 외 : _____	①	②	③	④	⑤

13. 학교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서 추천하고 싶은 연주곡을 적어주세요.

- 1) 작곡가 또는 연주자 : _____
- 2) 곡명 : _____
- 3) 추천의 이유 : _____

실용음악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지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를 맡고 있는 공동연구팀입니다. 본 연구팀은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용음악과 관련된 방과후학교 수업 및 개발활동의 운영 실태 및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지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 9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교육팀 및 연구진 드림
명지전문대학 교수 양은주
경희대학교 교수 한경훈
국제예술대학 교수 강민선
백석예술대학 교수 정승일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선희

※ 각 문항의 해당되는 보기에 √나 O를 하거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I. 배경 변인

1. 지역(시·도 단위로 기입해 주세요.) : _____

2. 학교 유형

- ① 중학교 ② 인문계 고등학교 ③ 전문계 고등학교 ④ 기타계 고등학교

3.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4. 성별

- ① 남 ② 여

2.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1.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연주하는 악기는 무엇입니까?
 ① 가창 ② 건반 ③ 기타 ④ 베이스 ⑤ 드럼 ⑥ 그 외 : _____
 ☞ 가창의 경우에만 2번 질문을 제외하고 3번 문항부터 응답해 주세요.
2. 현재 학교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서 연주하는 악기의 소유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학교 악기 ② 본인이 구입한 악기
3.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당시 악기 교육을 받은 정도는?
 ① 전혀 없다. ② 1개월 미만 ③ 1~3개월 ④ 3~6개월 ⑤ 6개월~1년 ⑥ 1년 이상
4. 학교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동안 연습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안한다 ② 30분 미만 ③ 30분~1시간 ④ 1~3시간 ⑤ 3시간 이상
5. 학교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음 중에서 골라주세요.(복수 응답 가능)
 ① 개인별 악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개인별 레슨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기 당 1회 이상의 연주 및 발표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연주 실기 뿐 아니라 이론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⑤ 학교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수업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6. 실용음악과 관련한 방과후학교 혹은 계발활동의 효과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을 보고, 각 항목들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대시켜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정서 지능(EQ)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음악적 기술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예. 악기 연주 기술)	①	②	③	④	⑤
4)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었다.(예. 나의 적성이 음악 관련 분야임을 알게 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7) 그 외 : _____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연주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연주곡을 적어주세요.
 - 1) 작곡가 또는 연주자: _____ 곡명: _____
 - 2) 작곡가 또는 연주자: _____ 곡명: _____

대중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자 문

김오영 (전)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교사

오종대 동아방송대학 교수

임미경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정원영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진승림 백석문화대학 겸임교수

한여정 상신중학교 교사

연 구

책임연구자

양은주 명지전문대학 실용음악과 교수

공동연구자

강민선 국제예술대학 음악과 교수

한경훈 경희대학교 예술학부 포스트모던음악과 교수

정승일 백석예술대학 실용음악과 교수

연구보조원

김선희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김혜온 경북여자고등학교

배현우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기 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개발팀 정연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개발팀 장희경